

KINU 연구총서 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 정규섭 · 이기동

KINU 연구총서 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인 쇄 2011년 11월

발 행 2011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ISBN 978-89-8479-608-9 93340

가 격 ₩11,0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iii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6
II. 군의 기강 해이	11
1. 사례연구	13
2. 선군정치와 북한군의 기강 해이	36
III. 기강 해이 유형: 문헌분석	47
1.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49
2.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55
3. 대민피해	65
4. 부대 내 음주	75
5. 구타	79
6. 탈영	81
7. 기밀누설	85
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만연	91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IV. 유형별 정도와 특징: 계량분석	101
1.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4.00)	109
2.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3.30	119
3. 대민피해: 3.28	129
4. 부대 내 음주: 3.16	138
5. 구타: 2.80	148
6. 탈영: 2.73	154
7. 기밀누설: 2.17	159
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만연: 2.31	161
V. 기강 해이 원인과 평가	173
1. 원인	175
2. 평가	194
VI. 결론	201
참고문헌	209
[부록] 설문지	2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7



표 목 차

<표 IV-1>	변수별 통계량	103
<표 IV-2>	학력별 통계량	104
<표 IV-3>	군종별 통계량	104
<표 IV-4>	계급별 통계량	105
<표 IV-5>	성별 통계량	105
<표 IV-6>	부대주둔지(시·도)별 통계량	106
<표 IV-7>	부대주둔지 그룹별(북중국경과 군사분계선) 통계량	107
<표 IV-8>	부대주둔지 그룹별(압록강변, 두만강변, 서부전선, 동부전선) 통계량	108
<표 IV-9>	병과별 통계량	109
<표 IV-10>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0
<표 IV-11>	계급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1
<표 IV-12>	병과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3
<표 IV-13>	부대주둔지(시·도)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5
<표 IV-1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7
<표 IV-15>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0
<표 IV-16>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	121
<표 IV-17>	병과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3
<표 IV-18>	부대주둔지(시·도)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	125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표 IV-19>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6
<표 IV-20>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7
<표 IV-21>	대민피해 정도	130
<표 IV-22>	대민피해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31
<표 IV-23>	병과별 대민피해 정도	133
<표 IV-24>	부대주둔지(시·도)별 대민피해 정도	135
<표 IV-25>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대민피해 정도	136
<표 IV-26>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대민피해 정도	137
<표 IV-27>	부대 내 음주 정도	139
<표 IV-28>	음주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40
<표 IV-29>	병과별 음주 정도	142
<표 IV-30>	부대주둔지(시·도)별 음주 정도	144
<표 IV-31>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음주 정도 ..	146
<표 IV-32>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음주 정도	147
<표 IV-33>	구타 정도	149
<표 IV-34>	구타행위가 병사 상호 간에 주는 영향 정도	150



표 목 차

<표 IV-35>	병사 간 관계	151
<표 IV-36>	탈영 정도	155
<표 IV-37>	기밀누설 정도	159
<표 IV-3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2
<표 IV-39>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63
<표 IV-40>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대상에 대한 계급별 인식	164
<표 IV-41>	병과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5
<표 IV-42>	부대주둔지(시·도)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7
<표 IV-43>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8
<표 IV-4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70
<표 V-1>	부대 내 식량사정	181
<표 V-2>	계급별 부대 내 식량사정 인정 정도	182
<표 V-3>	병과별 식량사정	183
<표 V-4>	부대주둔지(시·도)별 식량사정	185
<표 V-5>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식량사정	187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표 V-6>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식량사정	188
<표 V-7>	식량사정이 어려워진 시기	189
<표 V-8>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	196
<표 V-9>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계급별 인식	196
<표 V-10>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병과별 인식	198
<표 V-11>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부대주둔지(시·도)별 인식	199
<표 V-12>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인식	200



그림 목 차

<그림 IV-1> 계급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2
<그림 IV-2> 병과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4
<그림 IV-3>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8
<그림 IV-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119
<그림 IV-5>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22
<그림 IV-6> 병과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4
<그림 IV-7>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8
<그림 IV-8>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129
<그림 IV-9> 대민피해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32
<그림 IV-10> 병과별 대민피해 정도	134
<그림 IV-11>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대민피해 정도	138
<그림 IV-12> 음주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41
<그림 IV-13> 병과별 음주 정도	143
<그림 IV-14> 부대주둔지(시·도)별 음주 정도	145
<그림 IV-15>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음주 정도>	148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그림 IV-16> 계급별 병사 간 관계 인식	152
<그림 IV-17> 병과별 병사 간 관계 정도	153
<그림 IV-18>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병사 간 관계 정도	153
<그림 IV-19>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병사 간 관계 정도	154
<그림 IV-20> 계급별 탈영 정도 인식	156
<그림 IV-21> 병과별 탈영 정도	156
<그림 IV-22>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탈영 정도 ..	157
<그림 IV-23>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탈영 정도	158
<그림 IV-24> 계급별 기밀누설 정도 인식	160
<그림 IV-25> 병과별 기밀누설 정도	161
<그림 IV-26>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163
<그림 IV-27> 병과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6
<그림 IV-28>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69
<그림 IV-29>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171



그림 목 차

<그림 V-1> 계급별 부대 내 식량사정 인정 정도	182
<그림 V-2> 병과별 식량사정	184
<그림 V-3> 부대주둔지(시·도)별 식량사정	186
<그림 V-4>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식량사정	187
<그림 V-5>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식량사정	189

요 약

1. 문제제기

북한은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에서 주민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부가 동요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했다면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따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체제를 지탱해 줄 기반이 상명하복의 동원체제를 갖춘 조직인 군대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의도하는 바대로 군이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는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전위부대’로서 사상적 무장이 투철해야 하고 규율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소식을 전하는 각종 보도는 북한군의 규율문란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내부에서는 군사규율이 문란해지고 부정과 비리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본 연구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북한군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 복무기강 해이 사례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다. 내용분석의 주 대상이 된 자료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용 『학습제강』과 『선동자료』이다. 이것들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배포되는 내부 비밀자료로서 정신교육 시간에 강연자료로 사용되거나 집단학습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 문건들에서 지적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2000년대 이후이다.

문헌의 내용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연구방법은 최근 군을 제대했거나 군 복무중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 가운데 여러 배경변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이다. 그리고 적은 수의 증언청취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도입부로서 두 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군의 조직적 부패나 일탈행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처럼 군이 사회주의 수호라는 임무를 가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군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여기서는 소련과 중국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북한군 연구에 주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학습제강』, 『선동자료』 등의 북한 비밀 자료, 『군인생활』 등의 잡지,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 등을 분석하여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기강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시한다. 제시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대민피해, 음주, 구타,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와 남한문화 만연의 8가지이다. 이 장에서는 이 8가지 항목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과 그것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노력들이 기술된다.

제Ⅳ장에서는 이 8가지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벌어

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특히 여기서는 8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200명의 응답을 1~5등급으로 나누고 5점 척도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평균값을 산출한다. 또한 5점 척도의 평균값 뿐 아니라 응답자의 계급별, 병과별, 복무지역별 등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도 언급된다.

제V장에서는 제Ⅲ장과 제Ⅳ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강 해이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탐색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기강 해이 현상을 가져오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식량난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군 내부의 식량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탈북군인 200명 자신이 복무할 때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 북한군 기강 해이의 원인

북한군 기강 해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원인이고 또 하나는 내적 원인이다. 정치·경제·사회적 원인으로서 는 우선 선군정치의 역효과를 들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 선군 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군대의 조직적 부패와 일탈행위의 배경이 되었다. 즉,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헌신(원군 풍조)과 군의 정치사회적 위상 강화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등장하였고, 이는 결국 군이 사회를 결박하고 착취하며 군에 대한 견제기구의 약화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선군정치라 하여 군대가 특권을 누리고 세도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군이 경제건설 분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민접촉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대민피해, 음주, 기밀누설, 비사회주의의 현상 등의 기강 해이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은 기강 해이의 모든 유형이 야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줄어들고 장사를 통한 이동성 증가와 시장의 성행으로 외부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상황은 군에도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선군정치 하에 군대에 대한 국가자원의 우선적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단위 부대의 운용에 필요한 식량이나 경비의 상당한 부분마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식량공출이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군도 식량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기강 해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군의 내적 원인으로서도 장기 복무와 구성원의 세대 변화이다. 복무기간이 길다보니 자연히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군에 만연해 있는 음주와 구타, 탈영 등의 현상은 장기복무의 폐해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제대를 2~3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대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및 착복, 대민피해 등의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북한군의 구성변화도 기강 해이의 한 원인이다. 북한은 2002년 추천 방식에 의해 진행되던 군 입대제도를 없애고 ‘전민군사복무제’라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식량난 및 근거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보완하고, 예외없는 군입대를 통해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이들이 군의 규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가 하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신세대가 입대하여 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는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생존의 절박성을 체감하였다. 이들에게 사상교양은 더이상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으며, 군인정신·국가관보다는 이기주의에 젖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군복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할 때 돈 한푼이라도 더 들고 가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또한 이 세대들은 입대 전 이미 북한 사회에 만연한 서구 및 남한문화를 접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류’는 익숙한 것이며, 이들로 구성된 북한군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한 현상이다.

4. 북한군 기강 해이의 정도

8가지의 기강 해이 현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절대적인 존재인 김정일의 지시를 태만히 한다는 『학습제강』의 내용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군 장병들의 충성심은 아직 강한 편(4.00)이다.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강 해이 유형 가운데 김정일이 자주 질타하고 있는 것은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다. 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난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은 5점 척도로 3.30이다. 주둔지 별로는 평양시와 황해남도 주둔부대에서 부대 내 비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 3.30보다 약간 높게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 3.50,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4.11로 나타났다. 수치가 높을수록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다는 뜻이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후진국가의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기강 해이 현상도 발견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민피해이다. 즉, 군대에 게 항일유격대식 내핍생활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군의 대민사업이 늘어나면서 군이 대민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민피해의 정도는 5점 척도로 3.28이다. ‘보통’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군 관련 정보 가운데에는 북한군의 대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데 이 수치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주둔지별로는 평균 3.28에 비해 압록강변 주둔부대가 가장 높은 4.67이다. 압록강변 주둔부대가 대민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군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비행과 범죄행위의 많은 원인이 음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인지 군 내부 문건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의 하나가 부대 내 음주행위이다. 음주는 사병 뿐 아니라 장교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고 선군정치로 인해 군대와 사회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더욱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 음주가 행해지는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매주 행해지거나 한 달에 2~3회 꼴로 행해져 비교적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에 이르고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산출하면 3.16이다. 3.16은 ‘보통’에 가깝다는 뜻인데, 직접 면접한 11명의 탈북군인 대부분이 음주 행위의 만연을 인정했음에 비추어 보면, 설문조사 결과 수치는 다소 의외이다. 평균이 3.16인 것에 비해 두만강변 주둔부대의 경우 4.00으로 가장 높다.

『학습제강』 등 북한군 내부 문건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가

구타 등 가혹행위의 근절이다. 가혹행위로 인해 장교와 병사 간, 그리고 병사 상호 간 관계에서 증오가 쌓인다면 군의 단합과 조직력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매우 많다”거나 “많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구타행위의 만연을 인정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35.0%이고 “적은 편”이거나 “거의 없다”고 부정한 비율이 43.5%로서 부정한 쪽이 더 많다. 이를 5점 척도로 설정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2.80이다.

한편, 탈영사고도 많은데 10년이라는 장기복무에 따른 염증과 부대 내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5점 척도값은 2.73이다. 탈영의 경우는 북중 국경지역보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주둔부대의 경우 탈영이 비슷하게 발생하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보다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식량사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가 북중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탈영사고는 더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면서 탈영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배고픔 때문에 탈영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많은데, 적어도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탈영은 식량부족과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습제강』 등에서는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로 나온 5점 척도 평균값은 2.17이다. 2.17은 적은 편이라는 뜻이다. 계급별로나 병과별, 주둔지별로 응답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계급별로는 병사 출신이 기밀누설이 많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군 내부에 서구풍조와 남한문화가 얼마나 유입되어 있을까 하는 점이다. 탈북군인 200명 가

운데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들어와 있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19.5%였고 “거의 없었다”고 유입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31.0%이다. 응답을 5점 척도로 나타내면 평균값이 2.31이다. 북한 사회에는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북한군 내부에는 아직 “적은 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좀더 상세히 보면 상대적으로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3.89이고, 반면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2.28이다.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위치상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지역의 두만강변 주둔부대보다는 압록강변 주둔부대에, 군사분계선 동부전선보다는 서부전선 주둔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부대 내 여러 일탈현상에 관한 다른 항목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가 다른 지역 주둔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일탈현상이 적었으나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많아 특기할만하다.

북한군의 기강 해이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만성적인 식량난이 자리하고 있다. 식량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영향을 미치고 군수물자의 유용과 착복, 대민피해, 탈영, 기밀누설 등과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복무한 부대에서 식량이 “매우 부족했다”거나 “조금 부족했다”고 대답함으로써 식량의 부족을 인정한 비율은 57.0%이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예상보다 많은 30.0%이다. 응답의 5점 척도값은 3.53이다. “보통이었다”에서 “조금 부족했다”로 반 정도 이동한 수치이다. 북한군 내의 식량사정이 아주 심각한 것

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시(2.50), 황해남도(3.05), 함경남도(3.00) 주둔부대의 식량사정이 비교적 낮고, 평안북도(4.13)와 강원도(4.13)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내 식량사정이 어렵다. 북중 국경지역이나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 모두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나 군사분계선 일대보다는 북중 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더 좋지 않다.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5.00)이 두만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4.00)의 사정보다 열악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3.40)의 사정이 동부전선 주둔부대(4.26)보다 낮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규율문란 행위들과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으로 대신하면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약간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 문란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병사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결론이다.

I. 서론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김정일정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단어는 ‘선군정치’이다. 북한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역사성과 정당성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 그 효시를 1995년 1월 1일에서 1960년 8월 25일로 소급했지만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임은 분명하다.¹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선군정치의 요체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사를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것이다.²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군대를 내세워 체제의 균열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체제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군정치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군의 사상교육이 완벽해야 한다. 북한도 “사회주의의 와해와 붕괴는 사상진지의 와해로부터 시작”되며³ 사상진지가 무너지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보위의 보루인 군대의 사상무장을 매우 중요시한다.

김일성 사망 3년 상을 치르고 자신의 시대를 공식 선언한 1998년 무렵, 김정일도 “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우리 내부에

1. 『로동신문』은 사실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에서 김정일이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립·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2011년 4월 25일.

2.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강성변영할 것이다.” 『로동신문』, 2011년 4월 9일.

3. “사회주의보루를 철벽으로 다지시며,” 『로동신문』, 2004년 6월 3일.

황색바람이 들어와 군인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인민군대가 이전 쏘련군대처럼 사회주의전취물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며 우리 인민은 또 다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⁴ 따라서 김정일은 “모든 군인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일당백의 용사로 준비”시키기 위해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도록 했다.”⁵

북한군이 사상적으로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느냐는 군기, 즉, 규율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나타난다. 북한도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다. 규율없는 군대는 전투에서 패한다. 따라서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세우는 것이 혁명군대의 근본”이라고 역설한다.⁶ 이처럼 북한의 선군정치가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고 군의 완벽한 정치사상적 무장을 지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한군의 복무규율 준수 여부는 선군정치의 효과성과 북한군의 정치사상적 무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군은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나약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고,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서도 정신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된다. 우리 군의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남북

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학습제강』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p. 3.

5.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 전환기를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1년 8월 25일.

6.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자료집』, 김진만, “북한군의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12), p. 17에서 재인용. 김정일도 “강철같은 규율은 인민군대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인민군출판사, 『군인생활』, 2009년 제 3호, p. 69.

군사력 우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우리 군의 장교와 부사관조차 정신전력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더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⁷

그러나 최근 여러 대북 관련 인터넷 매체와 단체, 일반 언론이 전하는 북한 소식에 의하면, 북한군의 일탈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⁸ 북한 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내부에서는 군사규율이 문란해지고 부정과 비리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가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면 북한군이 곧 와해될 지경이다. 만약 북한군 내부에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면, 군은 김정일이 맡긴 체제유지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북한군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우리가 안게 되는 위험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 정보를 공급하는 측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종종 일부의 현상을 일반적인 현상인양 확대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군의 내부에서 어떤 기강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일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지금 북한군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복무기강 해이 사례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7. 이상진, “남북 군사력 우열에 대한 군간부들의 인식 평가,” 『조사연구』, 7권 1호 (2006.3), pp. 29~53.

8. 일례로 “한류에 반한 북한군,” 『조선일보』, 2011년 7월 5일; “북 식량난에 굶주린 군인 탈영·강도짓 줄이어,” 『세계일보』, 2011년 7월 18일.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국가인 데다 그것도 기밀을 중시하는 군 내부에 관한 사항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방법의 모색은 매우 어렵다. 북한군이 북무기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관한 관찰과 조사를 북한에 직접 가서 경험적으로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조사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도 하고 유용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북한 당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문건은 대체로 선전선동성이 강해 활용에 많은 조심성이 요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자료의 경우 선전선동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다.

내용분석의 주 대상이 된 자료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용 『학습제강』과 『선동자료』이다. 이것들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배포되는 내부 비밀자료로서 정신교육 시간에 강연자료로 사용되거나 집단학습에 활용된다. 2005년 이후 북한 당국의 단속강화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북한의 비밀자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 연구는 유출된 『학습제강』과 『선동자료』 수십 권을 입수하여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 문건들에서 지적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2000년대 이후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신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을 과장할 수 있다.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사소한 일탈행위도 침소봉대하여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북한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잡지 『군인생활』 등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참고했

다.⁹ 또한 우리 사회 내 북한 소식을 전하는 각종 인터넷 매체와 소식지에는 탈북군인들의 다양한 수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최대한 수집하여 분석했다.

문헌의 내용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연구방법은 최근 군을 제대했거나 군 복무중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 가운데 여러 배경변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이다. 애초에는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의 사람을 면접하려 했으나 증언을 청취하는 가운데 증언내용이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계획한 증언자 수보다 적은 11명의 증언을 청취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과거부터 통일연구원이 탈북군인들의 증언을 채집하여 구축한 <증언데이터베이스>의 증언 일부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리고 적은 수의 면접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각자의 견해나 관점이 쉽사리 투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모집단에 대해서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조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북한 실태나 북한 주민의 일정한 태도, 의견, 동기, 가치의식 등에 관한 자료를 얻는 데는 이 방법이 유일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흔히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물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신중성이 요구된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은 본 연구의 부록에 실려 있고 수기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목록 역시 참고문헌 속에 있다.

9. 『군인생활』은 중대에 1~2부가 배치되며 군인 수기나 전투실화, 상식, 퀴즈 등이 실린다. 『로동신문』이나 『조선인민군』에는 가공된 내용이 많아 이를 통해서만 일반생활을 알기 어렵고 신문사에서 부대 생활상을 전한다고 적어 게재하는 사진은 실제 생활과 매우 다르다고 한다.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3월 18일.

I
II
III
IV
V
VI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후속 3개의 장이 북한군 내부의 기강 해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앞선 도입부로서 두 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군의 조직적 부패나 일탈행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헌신과 군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군이 사회를 결박하고 착취하며 군에 대한 견제기구의 약화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처럼 군이 사회주의 수호라는 임무를 가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군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여기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M. Gorbachev) 시기의 소련, 장쩌민(姜澤民) 시기의 중국 사례를 검토하는데 사례연구의 목적은 그것이 북한군 연구에 주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학습제강』, 『선동자료』 등의 북한 비밀 자료, 『군인생활』 등의 잡지,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 등을 분석하여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기강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시한다. 제시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대민피해, 음주, 구타,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와 남한문화 만연의 8가지이다. 이 장에서는 이 8가지 항목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과 그것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노력들이 기술된다.

제Ⅳ장에서는 이 8가지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제Ⅲ장과 제Ⅳ장은 서로 맞물려 있고 그 구성이 동일하다. 측정방법은 앞서 밝힌 바대로 탈북군

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특히 여기서는 8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200명의 응답을 1~5등급으로 나누고 5점 척도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를 들면,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 대해서 1등급을 ‘매우 많음’, 2등급을 ‘대체로 많음’, 3등급을 ‘보통’, 4등급을 ‘대체로 적음’, 5등급을 ‘거의 없음’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00명의 평균값이 3.26이라는 식이다. 또한 여기서는 5점 척도의 평균값 뿐 아니라 응답자의 계급별, 병과별, 복무지역별 등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도 언급된다.

제V장에서는 제Ⅲ장과 제IV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강 해이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탐색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기강 해이 현상을 가져오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짐작하다시피 식량난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군 내부의 식량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탈북군인 200명 자신이 복무할 때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 기강 해이 현상이 북한 체제 유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군의 사기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탈북군인 200명이 생각하는지도 소개한다.

I
II
III
IV
V
VI

Ⅱ. 군의 기강 해이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1. 사례연구

가. 소련의 사례 : 고르바초프 시기¹⁰

(1) 소련군의 부패 및 기강문란 실태

소련군에서 부패는 군 고위층들이 군 조직을 통제하거나 때로는 개혁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 당은 더 이상 혁명을 선두에서 이끄는 전위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당은 혁명투쟁을 실제 수행하기 보다는 일상 속에서 그저 혁명을 거론하는 정도였다. 이를 혁명투쟁의 ‘관행화’(routinization)¹¹라고 하는데, 당이 투쟁을 포기하는 대신 누군가 당을 대신하여 투쟁하길 바라는 과정을 의미한다.¹²

이 결과, 당 지도부는 어리석게도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분리하는 ‘관료적 개인화’(bureaucratic personalization)를 저질렀다. 특히 소련군에서의 관료적 개인화 현상은 군 안팎에서 군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이 부패행위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고르바초프 시기에 나타난 소련군의 부패 및 기강문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¹⁰-이 부분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주로 Brenda J. Vallance, “Corruption and reform in the Soviet Military,”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7, No. 4 (December 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¹¹-Ken Jowitt, “Soviet Neotraditionalism: The Political Corruption of a Leninist Regime,” *Soviet Studies*, Vol. 35, No. 3 (July 1983), p. 278.

¹²-막스 베버는 ‘카리스마의 관례화’란 통제를 포기하고 누군가 통제를 수행하길 바라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투쟁의 관행화로 정의하였다.

I
II
III
IV
V
VI

(가) 후원(Patronage)과 보호주의(Protectionalism)

후원과 보호주의는 소련군 내에서 일어난 일상적 관행들이었다.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은 초급 장교나 중급 장교들이 진급을 하거나 징계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 이를 무마시키길 원할 때 평소 알고 지내 온 군 고위층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다. 군 고위층은 초급 장교나 중급 장교들의 희망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갖지 못했던 일부 장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였고, 불만은 주로 불공정한 진급에 모아졌다. 또한 무능한 장교들이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급에 성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많은 장교들은 일에 대한 관심보다 지휘관과의 끈끈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사례 1 : 로갈스키(Rogalski) 중위는 군 중앙지도집단에서 참모장직을 맡았던 부친 덕분에 자신의 진급뿐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 로갈스키 사건에서 나타난 가족 유대감에 기초한 보호 현상은 소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사례2 : 한 기갑사단의 젊은 지휘관은 소속부대의 한 장교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진급대상이 되었다고 불만을 가졌다. 이 문제는 부대 당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자격없는 장교는 결국 진급에 성공하였고, 그 배후에는 한 장군이 있었다.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은 병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당연한 처벌도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례 3 : 멜렌테프(Melentev) 대위는 음주 및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8차례에 걸쳐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을 보호하는 후원커넥

션을 이용하여 이를 무마할 수 있었다.

사례 4 : 유보레비치(S. G. Uborevich) 중령은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에도 술을 마시고, 부하들을 때렸다. 그래도 그는 매번 승진과 더불어 새로운 부서로 전출되었다. 그는 유명한 소련군 사령관이자 전쟁영웅인 페트로비치 유보레비치의 손자였다.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은 근무배속에서도 작동하였다. 후원자는 수혜자들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제공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일부 장교들은 낙후된 지역으로의 배속을 피하였고, 심지어 모스크바 밖으로 한 번도 전출되지 않았던 장교들도 많았다. 반면, 후원자가 없는 일부 장교들은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를 하기가 일쑤였다.

사례 5 : 쉘쉬코(Sheshko) 대위는 여러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10~12년 동안 교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소련군은 후원자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분열되었고, 사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적 규정과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원과 보호주의 시스템의 폐단에 대한 군 고위층의 인식이었다. 이들은 후원과 보호주의가 오히려 군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시대착오적 논리를 갖고 있었다.

사례 6 : 아라포프(Arapov)¹³는 지휘관들이 훌륭한 젊은 장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소련의 군사왕조들(military dynasties)¹⁴을 최고의 전통을 상징하는 조국의 꽃이자 자존심으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군대 내에

¹³. 아라포프(V. F. Arapov)는 3성 장군이며, 소련 국방성 인사참모부의 부부장이었다.

¹⁴. 여기서 군사왕국이란 군벌을 의미한다.



보호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군의 전통이고 이는 군대에게 이익이라고 강변하였다.

(나) 직권 남용(Blat)과 강제 노동

직권 남용은 소련군에서 유행하였던 부패방식이었다. 직권 남용은 군 지휘관들과 고위지도자들이 극장표나 희소한 소비재로부터 기계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를 획득하는 데 이용되었다. 직권 남용은 공식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특권이었으며, 군 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고르스키(V. Gorskii)사건이 있었다.

사례 1 : 신병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고르스키 대령은 대부분의 명령과 지시를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배치된 신병이나 사병들과 거래하는 데 사용하였다. 신병과 사병들의 부모들은 고르스키에게 삼페인, 150루블 이상의 돈, 과자와 책들을 바치므로써 자식이 좋은 근무지를 배정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르스키는 보드카, 코냑, 기타 희소상품이나 좋은 상품들을 외부의 감사관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스키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부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한다는 명목으로 병사들의 노동을 약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이것이 지휘관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준 것은 아니더라도, 군의 존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사대비 태세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장교들은 주로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사병들을 장시간 예외적인 일에 동원함으로써 군사력의 오·남용을 불러왔다.

사례 2 : 병사들이 건설 현장이나 추수 현장, 그리고 노동을 강요당하기 위해 당 본부에 있는 대기실로 모일 때,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군장을 휴대하지 않았다.

사례 3 : 지역 당과 행정조직은 종종 군대를 값싼 노동자원으로 보았다. 그 결과, 많은 군 복무자들이 당·행정관련 조직에서 운 전수로 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영혼 이라는 말이 붙어 다녔다.

강제노동 문제는 건설부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다. 건설부대는 주로 러시아어가 서툴거나 전과가 있는 군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강제노동에 자주 동원되었다. 건설부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건설프로젝트와 전국적 차원의 건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강제동원은 건설부대 내 규율문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례 4 : 1989년 기준으로 300,000명 이상의 군 건설노동자들이 각종 건설사업에 투입되었다. 건설부대는 설거지와 모스크바 고 급당학교의 강의실 청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잡일도 맡았다. 건설부대는 군사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규율문란은 건설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규율문란의 40% 를 차지했다.

규율문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군 지도부는 군 건설노동자를 부도덕하고 군의 위신을 해치는 존재로 치부하였다. 그리하여 건설부대를 정치범 수용소인 ‘굴락’(Gullag)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건설부대원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 고위층은 건설부대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부대원들의 노예적 노동환경보다는 강제노동의 동원 필요성에 방점을 두었다.

I
II
III
IV
V
VI

사례 5 : 육군 원수 아크로미프(S. F. Akhromeev)는 육군이 단순히 국가안보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건설과 농업,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민의 진정한 조력자’라고 주장하였다. 군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행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강제노동의 이용이 적절하다고 절대적으로 믿었다.

(다) 사적 명령, 특권, 그리고 가혹행위

‘사적 명령’(one-man command)은 일부 지휘관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지휘관들은 자주 개인사를 위해 군대를 이용하였다. 지휘관들은 명령복종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이용하여 면책을 누리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사적 명령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기존의 확립된 질서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했으며, 지휘관들은 아무런 규정상의 책임이나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례 1 : 리아호프(Riahov) 대위는 건설부대를 동원하여 군의 사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영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수영장은 주로 지휘관들의 사적 모임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

사례 2 : 페투코프(N. Petukov) 소장은 부대자금과 부대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공짜로 수리했고 자신 소유의 집을 지었다. 그는 부대 비품인 가스 스토브와 커튼도 갖다 놓았다.

사적 명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절대명령화 되었다. 이후부터 군대 내에서는 군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군 복무자들의 권리는 중시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대한 존중도 사라졌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진급을 비롯한 각종 행위에서 하급자들은 상급자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사적 명령은 상급자들로 하여금 하급자에 대한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고 권리와 태만을 절대시 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아래와 같다.

사례 3 : 한 상급자는 “나는 상급자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않던 한 하급자를 다루기 위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자세한 이름(그들의 명단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군 지도층이 누리는 특권은 그들의 우월성을 보여 준다. 그들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로운 별장과 수입가구, 사적 목적에서의 군용기 이용 등의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군 지도층의 이러한 특권 향유는 결국 일반 장교들의 고통과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례 4 : 군 지도층의 별장을 짓는데 수십만 루블이 소진됨에 따라, 일반 장교들은 주택 부족에 직면해야 했고, 부적절한 시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강요받았다. 전체 가족 수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택을 찾을 때까지 장교들은 자신의 가족이 다른 친척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가족이 그대로 남고자 하면, 황폐화된 학교시설과 위험한 건물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군용기는 계획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지휘관들은 사적 필요에 의해 군용기를 사용하였다.

『특권문제에 관한 소련 최고소비에트위원회』 서기를 맡았던 팜필로프(Pampilov)는 군 지도층의 특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례 5 : 대형건축물(Grandness)이 장군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군대의 특권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장군들과 그들의 생활방

I
II
III
IV
V
VI

식이었으며, 그들은 과거나 현재나 국가가 사육하는 여물통(State Feeding Trough)에서 이익을 챙겨왔다.

당시 소련 시민들은 군대가 특권을 누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치스런 특권이 아니라 절제된 특권이였다. 일부 군 지도부의 특권은 로마노프왕가의 스타일과 비교될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소련군에서 일부 지휘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사용하였다. 가혹행위는 상급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태도의 가장 극단적 형태였다. 심지어 어떤 지휘관은 “부하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가혹행위는 신병 길들이기를 위한 일종의 통제체계였다. 신병이 6개월 간격으로 들어오면 고참병들은 그들의 복무기간 우월성을 과시하며 신병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구타나 학대를 가하였다.

사례 6 : 가혹행위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200~300명의 병사들이 탈영하였고, 그 이유가 신병에 대한 고참병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¹⁵ 이런 이유로 인해 1989년에 규제받지 않는 관계, 즉, 가혹행위 가해자의 1/4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89년에 3,900명의 신병이 가혹행위와 관련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가혹행위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는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군 지도자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가혹행위 현상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¹⁵-Mark Urban, *War in Afghanistan*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213.

않았고 1990년에 350명의 병사들이 가혹행위 때문에 탈영하였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관행을 중단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지도자들은 군복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비난받아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전 반항공사령이자 국방차관을 지낸 트레트약(Ivan Tretyak) 장군과 3성 장군인 세르게예프(V. Sergryev)는 가혹행위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례 7 : 트레트약 장군은 가혹행위 문제는 젊은이들이 전통적 환경과 입대전 환경에서 얻어진 교육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3성 장군인 세르게예프는 군대와 군대의 기능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따라서 군대 내에서 긍정적 현상과 부정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한 군 고위지도자들의 책임 전가는 군대의 상관중심적 태도와 지도부의 권위주의적 태도, 가혹행위를 독려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했던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이 그 근원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한 군 관리는 가혹행위 사건의 60%에서 나타난 일차적 동기가 신병을 고참병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최고참은 부하들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인간성을 짓밟고, 굴욕을 주며,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하급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소련군 내에는 가혹행위를 매개로 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뿌리깊게 내렸던 것이다.

가혹행위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모든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이른바 ‘연대책임’(vertical stroke)을 묻는 방식이다. 즉, 하급자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하급자의 행동에 대한 책

I
II
III
IV
V
VI

임을 맡은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소련군 장교들이 이러한 처벌방식을 정식 수용하였다는 점이었다.

한편, 초급장교는 지휘관이 아니어서 권력이나 책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혹행위에 유혹을 느꼈다. 사병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업무의 특성상, 초급장교들은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많은 부하들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초급장교의 권위와 영향력을 늘리는 것은 가혹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소련군의 부패 실상들은 고위 군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통제메커니즘이었다. 통제메커니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제메커니즘은 바로 사적 명령의 원칙이었고, 그것은 부패의 일차적 원인이었다. 사적 명령의 원칙은 절대 권력의 원칙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는 군대 내의 파벌을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즉 군사 왕조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군 파벌에 속해있지 않아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직업군인으로서 업무수행에만 관심있는 장교들은 지휘관들의 통제메커니즘에 대해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을 ‘비자유의 메커니즘’이라고 불렀다. 이 메커니즘 속에서 장교들의 모든 복지는 지휘관들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었다. 이러한 ‘의존의 원칙’은 곧 장교 스스로 지휘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소련군 지휘관들은 가혹행위 없이는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부하들의 개인적 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으로 나타났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다. 그리고 군인들은 사적 명령 하에서는 불법적 명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신무장을 강요받았다. 이와 같이 지휘관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위법적 행동들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부하들은 그러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

소련군의 군인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장치와 권리 없이 노예제도와 같은 시스템에서 일하였다. 합법화된 노예제도는 가혹행위(병사들이 자기조직화의 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폭력) 하의 강제노동, 즉 오로지 강제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노동자 군대’(a labor army)와 같았다.

(2) 당 지도부의 대응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군대의 부패 척결, 즉 군대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혁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전쟁수행 능력의 저하는 간부들과 사병들 간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소련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세계의 변화에 뒤처지고, 페레스트로이카에 부응하지 못하며, 군대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패 관행을 끊는 것만이 군대를 존경의 대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당내 개혁주의자들은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군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행사하는 부하들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을 공격하였다.¹⁶

상급자들의 부패 관행에 맞서는 것, 다시 말해서 부하들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일에 맞서는 것은 당 지도부 내의 군 개혁가

¹⁶ 267명의 장교, 병사들을 상대로 The Main Political Directorate 의 the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Opinion of Servicemen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64%가 부대 내에서 사회정의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56%는 군대의 민주화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답하였다.

I
II
III
IV
V
VI

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¹⁷ 특히 군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군인들에게 법적 지위를 확립해 주는 것, 즉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여기에는 일하고 싶 수 있는 자유처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개인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와 같이 개인적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군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군대 내에서 ‘사회주의의 인본주의적 원칙’(the humanistic principles of Socialism)을 확고히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와 개방에 입각한 군 개혁가들은 기존의 군대 조직들을 통한 군 개혁에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1989년에 조직된 장교의회(the Officers Assembly)는 군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군 지도부는 장교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교의회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보였다. 예를 들어, 장교의회에서 장교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발언을 해야 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언할 수 없었다. 이처럼 장교의회마저도 군 개혁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군 개혁가들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군대의 공식 조직 밖에서 활동해야만 하였다. 우선 군 개혁가들은 군인 개인을 위한 권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 조직을 설립하였다. 그 첫 독립 단체가 ‘보호연합’(the Shield Union)이었는데, 이는 현역과 예비군, 그리고 그

¹⁷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장교 중 60%가 상관과 부하 사이 관계에서 사회정의의 침해가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또한 50%는 진급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70~80%의 장교들이 부대 내의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60% 이상의 장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모순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사회적 보호의 결여와 관계있다고 대답했다.

가족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다. 1990년 초반까지 대략 10,0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였다. 1990년 여름 소련의 인민대표 10명과 러시아 연방 인민대표 8명도 회원에 가입하였다. 보호연합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쟁적인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다. 일부 군인들은 보수적인 공약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1990년 모스크바 선거에서 22명의 군 장교들이 군 개혁을 표방하는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야로슬라브시에서는 군 개혁을 지지하는 공약을 내세운 44세의 직업군인 포지루크(Podziruk)중령이 보수적 공약을 내세운 스네코프(Snetkov) 장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자유주의 성향의 군 개혁가들이 추진한 또 하나의 개혁 방식은 행동과 언론을 통한 것이었다. 선거에서 당선된 군 관계자들은 선거나 입법, 그리고 정책입안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군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개혁성향의 정치그룹을 지지하고, 군인들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군 개혁을 위한 자신들의 징병안을 작성하여 군 상급자들의 사고방식에 반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군 개혁가들은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상급자들의 지도권 남용과 이러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주의 성향의 군 개혁가들은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상급자들의 월권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정리하면, 군 개혁가들은 소련군의 부패 현상을 스탈린 시대의 유산이자 장기 경제침체의 산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패란 군 조직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마저도 부정하므로 용납되

I
II
III
IV
V
VI

어서는 안되는 대상이었다.

나. 중국의 사례: 장쩌민(姜澤民) 시기¹⁸

(1) 중국군의 부패 및 기강문란 실태:

구조적 특권과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군의 부패 실상에 관해 공개된 자료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이고, 중국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군부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지도자들은 군이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력이자 사회주의 건설과 수호의 주축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중국군의 부패 및 일탈행위 사례를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9년 위안화(遠華) 사건은 중국군의 최대 부패스캔들이었다. 위안화그룹은 군 고위층들의 비호와 협조 하에 6년이 넘도록 원유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밀수해 왔다. 1999년 8월 주룽지(朱容基) 총리는 100억 달러 규모의 밀수사건의 핵심으로 위안화그룹의 라이창싱(賴昌星) 회장을 지목하고 300여 명의 반부패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 결과, 300명 이상이 체포되고, 그 중 14명이 2002년 7

¹⁸. 이 부분은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James Mulvenon, "Dream of Red Mansions: Cause and Consequence of Chinese Military Corruption," *The IRIS Discussion Papers on Institution and Development*, Paper No. 0206 (February 2004)을 주로 참고하였다.

월 밀수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인민해방군 부패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군의 구조적 특권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군은 국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접근에서 특권을 누려왔다. 실제로 군은 운송, 산업기반, 천연자원, 면책, 국경사무와 같은 부문에서 특권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1998년까지 군은 국가안보의 장막에 숨어서 불법 행동을 자행해 왔으며, 심지어 자체의 부패에 대한 조사권마저 스스로 가지기도 하였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민해방군은 국가운송망, 특히 국가철도시스템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오랫동안 누려왔다. 군은 철도 이외에도 엄청난 수의 트럭, 선박, 항공운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 군은 많은 부패스캔들에 휘말렸다. 그 중에서도 1985년 외국자동차, 텔레비전, 모터사이클 등을 해군선박에 실어 하이난(海南) 면세항으로 들여오던 밀수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1991년 해군 트럭운송부대 부대장 헤운완은 통행 허가증을 불법 임대하도록 지시한 대가로 370,000 위안의 뇌물을 받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군 증명서를 가진 차량은 국경검사와 세관을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통행료 등의 기타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군대의 특권을 이용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운송 인프라에 대한 군의 특권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핵심적이지 않은 운송시설의 통제를 민간으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주요 인프라 허브는 군 관리 하에 놓여 있다.

둘째, 인민해방군은 값싼 천연자원과 원료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향유해 왔다. 군은 석유나 희귀금속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권은 많은 원료들을 시장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핵심 자원을 채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부대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환경의 최대 수혜자였으며, 군

I
II
III
IV
V
VI

지도부는 이것을 ‘개혁의 사각지대’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푸젠(福建)성에서는 군인 93명이 858톤의 원유를 군 할인가로 구입해서 시장가격으로 다시 파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이윤추구 행위는 일반 소비재로까지 확산되었다. 한 고위 장교는 599갑의 최고급 담배를 국정가격으로 구매한 다음, 시장가격으로 개인가정에 팔아 4,000위안의 이윤을 챙겼다. 또한 어떤 장교는 다량의 콩을 국영상점으로부터 0.12위안에 구매하여, 부대 식당에 5위안의 시장가격으로 다시 파는 사건도 있었다.

셋째, 인민해방군은 기소에 대한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군에 대한 모든 조사, 체포, 구류,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한 예심은 군 총정치국 안전부가 관할하게 되어 있었다. 모든 재판은 군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가장 엄격한 비밀주의가 적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보호와 제한은 민간의 세밀한 조사나 정치캠페인으로부터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결과, 부패사건으로 외부에 노출된 부패당사자들조차 처벌받기보다는 당으로부터 경고만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인민해방군은 국경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갖는다. 이로 인해 군은 직간접적으로 밀수에 가담해 왔다. 직접적으로는 해적 행위,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예컨대, 북해함대 병참부는 군대 시설을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밀수하였다. 그리고 중국-베트남 국경선을 따라 중국군과 베트남 사이에 불법 수입된 차량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또한 인민해방군 27사단 출신 장교 10명이 중국 국경마을에서 높은 이윤을 남기고 베트남에 고급 소비재를 밀수한 혐의로 조사받고 구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군에 의한 마약 밀매, 특히 중국 남서부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에 위치한 인민무장경찰이 가담한 마약 밀매는 극심하였다. 인민무장경찰은 국경 관할 업무

때문에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 셴전(深圳) 공안부는 1998년 9월 무장경찰과 공안으로 구성된 밀수단체를 체포하였다. 10명 이상의 피체포인 중에는 인민무장경찰의 3성 장군, 해양경찰소속 어뢰정장, 국경출입국 검사원 등이 있었다. 그들은 1천 8백 5십만 위안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밀수품을 싣고 있는 40대의 컨테이너 트럭을 통과시켜 주었다.

사례 2 :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등에서 반 밀수 지도그룹이 밀수자를 체포한 다음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례 3 : 톈진(天津) 인민무장경찰의 한 장교는 군자금 200,000 위안 이상을 횡령하여 구속되었다.

사례 4 :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 출신의 인민무장경찰, 리 웨장은 석유밀수업자 등인슈로부터 36,144달러의 뇌물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민해방군의 경제참여 허용은 부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군은 상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는 군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촉진시켰다. 군은 1980년대 초반 상업활동 참여를 통해 군사장비에서 약품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기업 제국이 되었다. 결국, 경제 참여는 군으로 하여금 개혁에 대해 소극적 경향을 보이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 활동과 기업 활동 간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여 부패 참여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 더욱이 군은 군사적 상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 이에 참여하는 많은 부대들로 하여금 불법과 합법의 경계지점에 있도록 하였다.

I
II
III
IV
V
VI

(2) 당 지도부의 대응

1990년대 들어 중국군은 공산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내부에서의 반부패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주로 군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6년 12월 장쩌민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군을 ‘정신문명’ 건설에서의 ‘선도 집단’이라고 추켜세웠다. 1997년 장쩌민과 군 지도부는 군 내부에서 또 다른 반부패운동을 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1997년 10월, 15기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부패와의 싸움은 당과 국가의 존립에 중요한 정치투쟁”이라고 하면서 “인민군대의 본성, 본색, 업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긴박한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장완니안(張万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1998년 1월, 군사규율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중·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감독을 배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경제범죄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범죄를 막는 유일한 길은 부패의 징후와 원인 모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나친 낭비’ 부대를 질책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가 허술한 부대들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은 군대와 국가의 안정과 단결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그는 반부패운동을 군의 투쟁임무와 연계시켜 “깨끗한 군대만이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방침을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1998년 2월 후방총국 규율감독회의에서, 왕기(王基) 장군은 권력, 돈, 미인을 거부하고 불필요한 사회활동을 줄일 것을 간부들에게 촉구하면서 앞으로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98년 3월 장쩌민도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 중 군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부패척결 문제를 계속 강조하였다.

1998년 7월 22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 내의 기업제국으로 불리는 군산복합체의 해산을 촉구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어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고자 당 확대선전기구를 통해 공개하였다. 당일 저녁 장쩌민의 연설은 CCTV 저녁뉴스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보도되었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다음 날, 공식 당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장쩌민 주석이 일탈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함”이라는 부제가 달린 “인민해방군 4대 총국이 반밀수회의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회합”이라는 머릿 기사를 실었다. 반밀수회의의 결정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군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겨냥하여 민간지도부가 중국 군부를 상업 활동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군을 상업 활동에서 축출하려는 조치는 경제로부터 전적으로 군대를 배제하기 위한 구상은 아니었다. 군의 경제활동에는 생산 활동과 상업 활동이 있는데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생산 활동은 병사들의 생활수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농업과 여타의 형태로 1920년대 후반부터 인민해방군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는 박탈되지 않고 허용되었다. 그러나 병사들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긴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이 일반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호텔, 통신, 무역 등 상업 활동은 금지되었다. 군대의 생산 활동은 허용하되 상업 활동은 금지한다는 것이 조치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조치의 결과,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 소속 총 2,937개의 기업들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3,928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일부 기업들은 군인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나머지 8,000~10,000여 개의 지방 단위 소기업과 생계지향적 기업들은 군 내부에 잔류하였다.

1998년 군에 대한 박탈 조치 이후 1999년에 들어서자, 부패 및 이윤

I
II
III
IV
V
VI

과 관련한 규율문제를 둘러싸고 관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일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박탈과정의 초기,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는 군 소유 기업의 재정을 모두 몰수하고, 국내외 은행에 개설된 군 보유 계좌들을 모두 조사할 것을 특별조사팀에 지시하였다. 우이(吳儀) 국무위원이 군대 내의 반부패 노력을 주도하였고, 고위 장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돈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군 고위 장교들이 밀수를 조직·계획하였고 밀수업자들과 결탁하였으며 밀수업자를 체포하였으나 뇌물을 받고 풀어 준 사례들을 적발하였다.

당과 군 지도부가 군대 내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송망에 대한 군의 특권적 접근권한 등과 같은 특권이 유지되고, 또 그것을 비호하려는 일부 군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에 군 내의 부패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당은 2008년 10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군 내 반부패운동을 다시 전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서한에서 군 고위층의 7대 죄악으로 ‘부패향락, 개인주의, 학습소홀, 무책임, 명령 불이행, 직무이행 소홀, 비원칙주의’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중국공산당 군대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의 제정은 공산당 17차 전국대회와 17기 3중 전회, 4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군대 내 당 건설을 강화하며 군대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동시에 군 부패에 대한 징계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겨냥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군 내 부패가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 북한군 연구에의 함의

지금까지 소련과 중국 군대에서의 부패 및 일탈행위 사례와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방식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밝힌 바대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 일탈행위를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또 군 간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후술할 북한군의 기강 해이 현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두 국가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북한 사례 연구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첫째, 군대의 특권은 소련군과 중국군의 부패 실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패의 원인이다. 우선 군의 특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타 조직이 갖고 있지 못한 군대만의 특별한 권한과 권리를 의미하는 조직 차원의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 내의 하급자들에 비해 상급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한과 권리를 의미하는 계급 차원의 특권이다. 전자가 중국군에서 독특하게 나타났던 특권이라면, 후자는 소련군에서 흔히 보인 특권이다.

북한군은 조직 차원의 특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계급 차원의 특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지난 10여 년간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군사선행의 선군정치를 실시하면서 당과 국가기구들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을 강화해 왔다. 식량난의 상황에서도 군에 대한 우선 배급을 실시하였고, 군 장성과 장령급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여러 차례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고위층들의 당내 상위서열 진입이 뚜렷하였다. 또한 ‘원군’이라는 구호 하에 인민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애국미 헌납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조직적 특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이 군대의 충성심을 도

I
II
III
IV
V
VI

모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 대한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대 내에 외화별이 회사와 무역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제활동 참여, 특히 상업활동 참여로 인해 그 내부에서 나타났던 폐단, 각종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북한군이 답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북한군이 중국군처럼 상업활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북한군의 부패와 군기문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과 근거를 확보하는 셈이다. 북한군이 무역활동과 외화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는 명백히 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소련군에서 나타난 계급적 특권의 문제를 북한군에서도 밝히는 문제는 이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다. 소련군의 계급적 특권은 우선 장기 경제침체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침체 속에서 군 지도자들은 공식적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거나 군대의 자원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경제의 장기 침체현상은 군수물자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군 고위층들이 자신의 공식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자를 착복하고 유용하며 인사를 둘러싼 뇌물 수수와 같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련군의 계급적 특권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절대명령과 절대복종의 관계로 구성된 조직체계에서 연유하였다. 이러한 조직체계 속에서 상급자들의 하급자들에 대한 사적 명령과 가혹행위와 같은 일탈행위들이 기생할 수 있었다. 소련군에서는 상급자의 음주, 근무태만, 가혹행위에 따른 탈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계급’이라는 용어 대신 ‘군사칭호’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계급적 차이를 탈색하기를 원하

고 ‘인민군’이라고 부르는 북한군이 절대명령과 절대복종에 기초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에 기초한다면, 소련군에서 나타난 여러 일탈 행위의 전철을 밟기 쉬울 것이다. 노동당은 군대 사업에서도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적극적 도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의 실현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둘째, 중국의 경험을 통해 군대의 경제활동 참여는 군대의 부패와 일탈행위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노동자에 의한 노력동원이 막히자 북한군이 경제회생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군은 도로·터널·양어장과 같은 소규모 건설공사부터 발전소·관개수로(물길공사)·토지정리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은 중국에서 문제된 상업활동이라기 보다는 생산활동에 가깝다. 하지만, 이것이 소련군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된 인력 동원의 강제노동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고, 경제현장에서의 투입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민접촉이 늘어나면서 민간에 피해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셋째, 군대의 부패 및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소련과 중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군의 부패를 척결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소련군의 경우는 군 개혁에 대한 군 내의 반발이 커서 군대 밖의 조직을 동원하여 군의 부패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결국,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소련 공산당 지도부가 민주주의와 개방을 중시하면서 군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중국군의 경우는 군의 우월의식과 오랜 경제활동 참여로 부패의 관행이 구조화됨에 따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I
II
III
IV
V
VI

북한군의 경우도 군의 부패 및 군기문란 행위를 단속하고 척결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북한군에서 군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그 보장의 합법적 이행은 북한 체제의 민주적 전환과정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군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북한군이 경제적 기득권을 확보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북한군이 개혁에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선군정치와 북한군의 기강 해이

가. 북한군의 역할 증대와 기강 해이

선군정치와 관련한 북한의 문헌들과 국내의 연구물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란 군민일치를 사회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삼는 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군민일치란 군대의 모범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체 사회가 따라 배우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으로 강조한다. 북한은 “온 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어 인민군대의 위력이 강화되는 것”을 선군정치의 바탕으로 인식한다.¹⁹ 그러면서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으로 세분한다.

선군정치의 원칙에는 ‘군사선행’의 원칙과 ‘선군후로’의 원칙이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으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¹⁹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로동신문』, 2011년 7월 5일.

I
II
III
IV
V
VI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혁명의 현실적 조건을 정확히 반영한 선군혁명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현실적 조건이란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을 가리키며 이런 조건 하에서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혁명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한 ‘국방공업우선’ 노선을 추진한 결과, 경제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군사선행의 원칙은 “무적의 총대우에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가 있으며 민족 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인식의 산물이다.²⁰

한편, 선군후로의 원칙은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한 혁명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삼은 것은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였음을 내세운다. 즉, 현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는 군대를 주력군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원칙들은 북한군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북한은 1998년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영도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²² 북한은 당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국가체계 속에서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 군부인사의 당내 서열이 크게 신장되었고, 당내에서 군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북한 군부는 단지 군사·국방부문에서만 아니

20. “선군혁명원칙,” 『로동신문』, 2011년 7월 5일.

21. 위의 글.

22. 북한 스스로도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여 김일성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제도적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선전하였다. “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방송』, 2011년 2월 15일.

라, 외화벌이 사업이나 대남부문에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09년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노동당 작전부를 흡수한 것이었고 개성공단관리사업에까지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및 그 산하 인민무력부에 활발히 활동하는 굴지의 외화벌이 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위상 강화와 더불어,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를 정치, 군사, 경제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선군혁명령도는 위대한 자주강국건설의 기치,” 군사적으로는 “불패의 군사강국건설의 보검,” 경제적으로는 “천지개벽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창조적 보검”이라고 내세우고 있다.²³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군은 본연의 역할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체제 유지의 보루이자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개최된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오르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후계자 유일관리체 확립의 중추 기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앞으로 후계체제 확립 및 공고화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큼 군부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군대의 참여 빈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물론 북한군은 선군정치 등장 이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해 왔다. 주로 주체

²³.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무적필승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1년 8월 25일.

사상탑, 개선문 등 기념비적 대건축물 건설과 같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주민노력동원사업을 책임적으로 맡고 있는 당과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군대가 경제회생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군이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식량 증산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 대상건설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예컨대, 안변청년발전소와 태천수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발전소 건설, 토지 정리사업, 물길공사 및 터널·도로공사와 같은 국토건설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사회적 ‘모범’으로서의 역할과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은 전체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산실이다.²⁴ 동시에 북한군은 사회통제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군 보위사령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인민보안성을 군대 내 조직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국경경비 업무를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이관 받았다.²⁵ 여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조치의 실패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각 총리의 사과와 같은 이례적 태도와 더불어 주민생활 통제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최근 중동사태의 발생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배가시켰다. 그리고 2008년 김정일의 와병과 그 이후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가 조직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장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어려워지자 시장 자체에 대한 통제 보다는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로 전환하였다.

24.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집 제1호 (2004), pp. 126~128.

25. 나중에 인민보안성은 인민보안부로 개칭되었다.

I
II
III
IV
V
VI

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확실히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군대의 조직적 부패와 일탈행위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도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헌신(원군 풍조)과 군의 정치사회적 위상 강화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등장하였다. 이는 결국 군이 사회를 결박하고 착취하며 군에 대한 견제기구의 약화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나. 선군정치와 북한군의 규율

군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적 통합과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즉, 군대를 내세워 약화된 당의 사회적 통제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체제의 균열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가 “결코 우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단순히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하여 내적 요인을 강조했는데,²⁶ 내적 요인이란 사상적 해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항상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 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촉구한다.²⁷

정치사상적 강화에 있어 우선적인 대상은 물론 군이다. 군의 사상교

2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p. 26.

27.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

양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제국주의들과의 사상적 대결에서 승리하자면 사회주의사상의 전위부대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적으로 가장 투철한 것이 군대이고, 둘째, 사회주의사회에서 군대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되면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⁸

군의 정치사상적 강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대상은 인민으로 확대된다. 노동신문은 군대가 “사상정신과 도덕,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 모든 면에서 혁명대오의 귀감”이고 “노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²⁹ 이는 군대가 사회를 정신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떠맡은 것을 말하는 것이자, 식량난 이래 헤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군대의 정치사업이 기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³⁰

선군정치가 의도하는 바대로 군이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군의 사상적 무장과 규율의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대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월부터 3개월간 전군에 ‘군사규정대강습’을 하도록 한데 이어 해마다 1기와 2기 훈련의 첫 달에 군사규정을 학습하도록 지시했다.³¹ 그 이후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정일은 군인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매우 좋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높다고 칭찬하였으니³² 군대 내에서는 군사규율을 위반하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

28.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248~249.
 29.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11년 4월 25일.
 30. 이교덕, “북한군의 군사규율 문란 실태 분석,” 『정책연구』, 통권 145호 (2005년 여름), p. 316.
 31.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p. 1.

었다. 한 『학습제강』은 “아직까지도 집단싸움과 폭행, 살인, 강도, 소도 살 행위들과 모지도굴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인민군대 군사규율이 이처럼 문란해지고 있는데는 우리 일군들과 군인들의 머릿속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겠다는 사상적 각오, 언제나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자각이 부족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민군대를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인민군대의 규율상태가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있었다.³³ 즉,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북한군의 사상적 무장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³⁴

그렇다면 북한군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군사활동을 규율하는 규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나라는 병사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정확한 사격술과 엄격한 군기 확립 등을 요구한다. 북한군은 이 중에서 강한 정신력과 군기를 각별히 중시하며, 북한군의 정신력은 ‘수령 결사옹위 정신’과 ‘총폭탄 정신’으로 귀결된다. 북한군은 병사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준수를 요구한다.

첫째, 병사들에게 신병교육 수료 후 ‘군인선서’를 하도록 한다. ‘군인선서’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로 ① 정부와 인민에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 ② 사회주의제도와 전취물을 헌신적으로 보위하고 혁명투쟁에서 모든 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것, ③ 고상

32.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p. 306~317.

33.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p. 1.

34. 이교덕, 앞의 논문, pp. 317~318.

한 전우애와 일치단결의 정신을 백방으로 발산할 것, ④ 자기 무기와 군대 재산을 수호하고 비밀엄수 및 명령을 절대적으로 집행할 것, ⑤ 선거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당과 혁명동지들 앞에 굳게 맹세한다는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병사들에게 ‘전투력 강화 5대 방침’을 암기할 것으로 요구한다. 5대 방침은 김일성이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① 강인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 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 같은 규율이다.³⁵ ‘전투력 강화 5대 방침’은 강인한 혁명정신을 바탕으로 필승의 전술·전기 연마, 체력과 사격술의 단련, 엄격한 군기확립만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 병사들에게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을 실천할 것을 독려한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당 조직비밀 엄격히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 금지, ⑨ 국가 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노력,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이다. 10대 준수사항은 김일성이 ‘전군 주체사상화 강화방침’을 주장하면서 제시했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규정과 명령·지시사항의 철저한 이행, 단결강화 등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대개 석식 후 분대 단위로 ‘일과총화’를 실시한다. 이 자리

³⁵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1), p. 704.

에서 병사들은 ‘전투력 강화 5대 방침’과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등 군사규정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암송한다. 군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그리고 과도한 군사훈련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기강 해이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장기복무제에 따른 계급과 복무기간 간의 마찰 등을 비롯한 병영생활의 폐단과 열악한 병영환경은 군기문란 행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군은 경미한 군기위반자들에 대해 무릎을 꿇고 다리를 올리는 경보행진이나 소대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군장 행군·구보를 실시한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불복종할 경우 구타 등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소련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군 역시 1980년대까지 구타사건으로 탈영 및 총기사고가 빈발하자 구타사고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타사고는 고참병들의 강제 입막음과 제보 병사에 대한 집단따돌림으로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경징계로는 주의, 경고, 당 및 청년동맹회의에서 비판, 순번 외 취사근무, 권한 정지 등이 있다. 그리고 중징계로는 동지심판, 군사칭호(계급) 박탈, 직위 철직, 출당, 노동연대 편입 등이 있다. 동지심판이란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혹독한 집중 비판을 받는 것이다. 노동연대 편입은 통상 6개월~1년 동안 사상단련과 규율교육을 받으면서 중노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군기문란 또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군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제대조치가 있다. ‘군인선서’ 이후 물의를 일으키면 생활(불명예)제대를 시키고, 생활제대를 하면

³⁶. 탈북자 ○○○의 증언, 2009년 9월 28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고의로 군사규정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과실 또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강제전역 대상이 되는데 처벌제대와 면적제대가 있다. 처벌제대는 군사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하였거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오를 범했을 때 적용되며, 면적제대는 의도적으로 복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 기피를 목적으로 자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된다. 면적제대를 당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일반 형법에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두고 있는데, 총 16개조 이루어져 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방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유형으로는 명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과실적 파손죄,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 약취 및 비법휴대·양도죄, 군수품 잃어버린 죄,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불합격품 생산죄, 군수품 생산용 자재·군수품 유용죄,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기피자·탈영자 은닉죄, 군사임무수행방해죄,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국방비밀누설죄가 있다. 형법은 각 유형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노동교화형으로 삼고 있다.³⁷

I
II
III
IV
V
VI

37.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10).

Ⅲ. 기강 해이 유형: 문헌분석



1.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북한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인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혁명적 수령관’에 따라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들도록 강요해 왔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셔놓고 ‘수령’ 대신 ‘혁명의 수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정립한 이후 “혁명의 수뇌부는 혁명의 최고뇌수, 심장이고, 당은 중추이며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고 인민은 혁명의 담당자”라는 논리체계가 수립되었다. 물론 유일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기본 원리에 따라 여기서 ‘혁명의 수뇌부’는 ‘곧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김정일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에 대해 혁명위업의 실현에서 절대적 존재인 혁명의 수뇌부에게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가질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 내에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약화되고, 김정일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벌써 오래전 1999년에 작성되어 군관, 장령에게 배포된 『학습제강』에 따르면, “지금 일부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군들이 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지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인 행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³⁸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거나 반신반의하면서 남을 넘겨다 보는 현상

³⁸. “혁명이 간고할수록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 1999), p. 3.

I
II
III
IV
V
VI

-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
- 권력에 눌리워 맹종맹동하면서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일하는 현상
- 개별적 간부들을 이상화하거나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들에게 빌붙어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부아첨하며 비굴하게 행동하는 현상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풍모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1년의 군관, 장령용 『학습제강』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이것이 순간도 변치말아야할 우리 지휘성원들의 신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간부들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투철한 자세와 립장이 부족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³⁹

- 당의 믿음을 놓고 저울질하거나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 당에 거짓보고를 하거나 무슨 일이 제기되면 책임이 두려워 요술을 피우고 발뺌을 하는 것
- 경제문제, 생활문제가 언제 풀이겠는가 생각하면서 혁명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제 살 궁리만 하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군들을 어떻게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핵심이고 지휘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

³⁹.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빛내이는데서 지휘성원들이 앞장설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23.

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민군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고 결의는 잘다지는데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⁰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 당의 방침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추궁을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현상
- 당의 방침이 내려오면 오직 <알았습니다>는 대답밖에 몰라야 하겠으나 조건타발을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현상
- 명령지시를 받으면 비판이나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직사업을 해놓고는 그 결과여부에 대해 무관심한 현상

이러한 사례는 2003년에 작성된 문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일군들과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관철에 한 몸을 내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⁴¹ 이는 업무수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주의나 형식주의, 복지부동 현상을 지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은 문건에서 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방침에 대해 “정당성을 의문시하거나 반신반의”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정일 지시의 절대성이나 무오류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맞는 부대에

⁴⁰. 위의 자료, p. 26.

⁴¹.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구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5.

I
II
III
IV
V
VI

서 장교들이 복장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김정일이 심하게 질책하고 “인민군대에서 복장착용을 비롯한 규률문제를 풀기 위한 일대 선풍을 일으킬데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⁴² 김정일의 현 지지도가 결정되면 지도대상이 되는 단위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해당 단위의 철저한 준비가 상례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는 불시의 현지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⁴³ 필자가 면접한 한 탈북군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저도 뭐 북한 있을 때 실제 김정일 군부대시찰 두 차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하게 되면 어느 군단이면 군단, 어느 사단이면 사단, 현지도도 단위가 딱 찍어집니다. 몇 년 전부터, 한 2년 내지 3년을 준비하거든요.

현지도도 단위는, 그러니까 전연군단들 후방군단들 다 지적 돼요. 지적되어 가지고 2~3년 동안 다 준비시킵니다. 준비 시키고 최종적으로 하기 아마 한 두달 직전에 알립니다. 두달 직전에는 보위사령관이 그 단위를 3번 갑니다. 3번을 돌고 그 다음엔 하루 그저 이를 전에 또 내려와요. 그 사령관이.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돌고,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는데, 초소다 하면 한 개의 소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소대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그런데 김정일이 성격이 좀. 여기 식으로 말하면 좀 더럽죠. 북한식으로 괴벽해요. 성격 자체가. 제 기분 좋은 때는 아주 기분 좋은대로, 기분 나쁠 땐 마구잡이로 나오니까. 가다가도 순간 뼈뜩할 때 있어요. 야 저거 좀 세워라. 좀 보자.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지나다가 현지도 단위가 아니니까 그 단위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우리도 그래서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단에서. 지나가

4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p. 7~8.

43. 이교덕, 앞의 논문, p. 321.

다 길옆에 다른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초소거든요 현지도 단위 찍힌 데는. 그건 전혀 준비 안 시키고 군인들 병실에 다 가둬놓고 자물쇠를 밖으로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저건 뭐야 저거 한 번 보자.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신변상 못들어 간다니까 야 그거 잠깐이라도 보자. 이런 식으로 봤는데 나와서 보니까 거기 뭐 한심하죠. 병영건물도 한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군인들 복장도 김정일이 지적할 수 있고.⁴⁴

이러한 사례는 우연한 일이지만 그만큼 군사규율이 해이해진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군에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혁명적 군풍’이란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에 모든 군인들이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기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군풍의 핵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바로 지휘관의 명령지시를 통해 조직되고 집행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인민군대에서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에만 전군에 혁명적 군풍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⁵ 이 내용에서 북한 당국이 김정일의 지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매우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수뇌부에 대한 신념,’ ‘수령결사옹위’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

44.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6일.

45.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2003년 6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현시기 인민군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습재강(병사, 사관용) 1』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 6.

I
II
III
IV
V
VI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결속도가 이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완 현상은 군의 경우에도 최고사령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2007년의 한 『학습제강』은 “력사적 교훈은 특히 총대를 틀어쥐 군인들이 자기 수뇌부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면 당과 수뇌부를 보위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최고사령관동지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⁶

또한 2009년의 『학습제강』도 김정일이 2009년 1월 2일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이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이 없으면 일심단결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당·전군·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수뇌부 옹호보위, 수령의 사상과 영도업적 옹호고수 등을 지시하였다.⁴⁷ 2011년 4월 창군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영춘은 “모든 장병들이 수령결사옹위를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것은 조선인민군대만이 지니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 품모이며,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군이 하나의 선군혁명동지가 된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군이 백전백승하는 근본 요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⁸

46. “우리 3세, 4세 군인들을 변질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실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조선인민군출판사, 2007)」。 이 문건은 NKchosun.com (2007.9.1)에 전문이 실려 있다. 전문은 <http://218.145.28.29/news/news.html?ACT=detail&res_id=99357>.

4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에 대한 학습제강(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9), p. 2.

48. 『조선중앙통신』, 2011년 4월 24일.

그러나 군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일탈행위들은 물론이고 군인들이 후계자 김정은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다는 증언은 최고지도자의 지시 자체가 군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⁴⁹

2.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북한군의 기강 해이 유형 가운데 하나는 군 내부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장교와 사병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수물자의 유용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군량미의 전용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의 상황에서도 군대에 군량미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부식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년간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군인들을 잘 먹이기 위해 마음쓰시며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신다”라는 언급에서 명백히 나타난다.⁵⁰ 따라서 군인들의 식생활은 인민들에 비해 풍족해야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17년을 복무한 한 탈북군관은 이렇게 증언한다.

49. “강원도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은 김정은이 대장이라는 소식은 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군인이 태반이다. 이 지역 군인들은 정치지도원을 통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임명됐고 또 대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지만 전혀 무관심하며 또 알리고조차 하지 않는다.” 『북한인민해방전선』(<http://www.nkplf.com>)의 최근북한소식, 2011년 5월 20일.

50.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군관강연자료(요강)』(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3. 군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과 배려의 구체적인 예로 든 것은 ① 군량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 ② 많은 고기와 기름을 사다가 군인들에게 보내주도록 한 것, ③ 군인들을 위한 기초식품공장, 닭공장, 메기공장을 전국도처에 세운 것 등이다.

I
II
III
IV
V
VI

북한군에는 양식, 식량다루는 사관장이 군관들 속에서는 제일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사관장을 어떻게 잘 구슬리고 하는가에 따라서 사관장이 쌀 한번이라도 자기네 집에 갖다주게끔 조정이 되니까. 그 사관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을 해요. 쌀 창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없이 많이 노력을 해요. 누구나 없이 군인들 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직급 높은 연대장이나 사단장쯤 뭐 이런 고급군관들 되게 되면 사단후방부나 연대후방부에서 쌀을 내다 팔아서 휘발유 사 써야 되거든요. 휘발유가 전혀 안 나오니까. 공급이 안돼요. 차는 굴러야 되겠지. 그러니까니 팔 거라는 게 쌀밖에 없어요. 콩기름 나오는 것도 다 안 나오지. 쌀은 그런대로 먹이라고 나오니까 그 쌀을 내다 시장에 다 팔고 돈을 받아서 다시 휘발유 사서 차에다 넣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나오는 쌀 자체가 고급군관들 차 휘발유로 대체되는 이게 상당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 양이라는 게 800g이지 만 실지 하루 먹는 양은 아마 한 500g이나 560g 정도. 밥 보게 되면 이게 그릇이다 하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항상 수평. 군인들이 말하는 폭탄밥, 폭탄밥 하는 게 밥그릇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이만큼 올라와야 하는데 폭탄 맞으면 이렇게 폭 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탄밥 먹는다는 게 밥이 움푹 들어간 밥이라고 폭탄밥이라고. 오를 수가 없어요. 밥량이. 그런 식으로 군관들이 많이 하니까.⁵¹

2001년 11월 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자료는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에서 공급하는 물자들만 군인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어도 식생활 해결에 큰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하고, “량식물자탐오랑비현상을 없애고 공급되는 물자들을 전량 그대로 군인들에게 급식”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량미 유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⁵²

⁵¹.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6일.

⁵².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pp. 3~4.

-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량식물자를 다른 용도에 망탕 소비하는 것(연유, 건설자재, 석탄과 바꿈질하는 현상)
- 군인들의 량식물자를 사취하는 것(량식물자를 가지고 출장려비나 술, 담배를 마련하는 현상, 잡곡을 내고 1:1로 흰쌀과 바꾸어 먹는 현상, 식권을 내지 않고 공짜 식사를 하는 현상)

이러한 지적은 군관들에 의해 군량미가 다양한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또한 군수물자의 유용 및 착복현상과 관련하여 2001년의 군관, 장령용 『학습제강』에서는 군대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물욕과 딸라푼에 물젖어 장사질을 하거나 국가, 군수물자를 탐오랑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수물자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⁵³

- 부대, 구분대들에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물자를 가지고 바꿈질하는 현상, 각종 판정, 회의, 강습때 손님접대와 사업용으로 군인생활물자들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
- 송별회, 생일놀이, 들놀이를 비롯한 먹자판을 벌려놓고 집단적으로 술놀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 군품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는 것

이어서 이 『학습제강』에서는 김정일이 2000년 9월 12일 군 지휘관들에게 “인민군대에서는 줌도적을 없애는 문제, 군인들을 무질서하게 동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문제를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두가지 과업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과 법적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줌도적의 표출형태로 다음을 들고 있다.

5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막을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p. 9~10.

I
II
III
IV
V
VI

- 중대군관들이 때없이 주패, 장기놀이를 하면서 후방물자를 퍼내어 술판, 먹자판을 벌리는 것
- 판정검열이나 회의, 강습때 손님접대와 사업용으로 군인생활 물자를 탕진하는 것
- 일군들이 제 리속을 위해 후방물자들을 탐오랑비하는 것
- 일부일군들이 후방물자를 비법적으로 꺼내어 술을 바꾸어 가지고 휴양을 가는 것
- 일부 지방군부대 일군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대된 다음 살 집을 지으면서 후방물자들을 적지 않게 소비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통해 북한군 내에서 주로 장교들에 의해 군수물자가 유흥, 접대,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의 발생에 대해 북한 당국은 국가형편이 어려워져 난관에 부딪치게 되자 일부 간부들이 제 살공리를 하는 등 ‘혁명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⁵⁴ 따라서 장교를 대상으로 한 2002년의 『강연자료』는 적극적인 혁명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혁명화의 ‘투쟁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에 열거되고 있는 이것들이 곧 군대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들이다.⁵⁵

첫째,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즉, 일부 관계자들이 각종 지도사업이나 판정, 검열 등을 계기로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치레라는 명목 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과장 혹은 묵인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공급해 주게 되어 있는 물자도 대가를 받고서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출장, 강습, 휴양 및 사

54. 북한은 ‘혁명화’란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 빼고 사람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군들속에서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나가자,” 『군관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2.

55. 위의 자료, pp. 2~5.

생활 관련 문제의 처리까지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출장이나 강습, 휴양 등을 가게 되면 으레 물자들을 요란하게 준비해야 자기 체면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담을 부하나 예하 부대가 지도록 강제하고, 가정생활 문제 해결까지도 부하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발전문제, 즉 승진이나 영전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맡겨진 업무수행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태만하거나 요령을 부리는 것이다. 이 강연자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 전에 또다시 일부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 때처럼 동면을 하고 허풍을 치거나 날림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였다”고 언급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 해 어느 한 부대를 료해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해안포를 2년반동안이나 수리하지않고 있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물론 이 사실은 해당 기관을 통해 웃단위에까지 보고되었고 일군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도 했었다. 그런데 우에서는 부속이 없소, 자재가 없소 하면서 속수무책이었고 아래에서는 그들대로 우에서 해결해 주리라고만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다나니 결국은 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던 것이다.

이와 함께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달풍’의 예로 앞에서 말한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제 살궁리를 하는 현상, 어려운 나라형편을 탓하고 조건만 내세우면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현상, 남의 입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을 처리하거나 남에 의지하는 현상, 책임이나 여파가 두려워 나타난 결함도 덮어두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현상, 작은 성과를 요란하게 과장해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현상, 공명심에 일만 잔뜩 벌려놓아 부대사업에 혼란을 주고 구성원들에게 고통

I
II
III
IV
V
VI

을 주는 현상 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군간부들이 점점 관료화되고 귀족화되는 현상이다. 이 강연자료는 군간부들이 귀족화되면 관병일치가 못되고, 이렇게 되면 군대가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김정일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군간부의 관료화, 귀족화 현상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특전특혜를 누리는 것(아래 단위에 내려가 대접받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 지어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정잡사를 돌보게 하는 현상)
-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것(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놓고 저울질하고 위협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직권람용, 월권행위, 저만 제일인체하면서 대중을 깔보고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며 부당한 요구를 내려먹이는 등 독단과 전횡)
- 때없이 술판, 먹자판을 벌려놓고 풍청대는 것(사업토의요 문제해결이요 하면서 술판, 먹자판을 벌리는 것, 강습, 회의, 사업총회를 계기로 먹자판을 벌려놓고 물자를 끌어올려다 나누어 가지는 것, 여러 가지 명목으로 턱내기를 하면서 먹자판을 벌리는 것)
- 도덕적으로 부화한 행동을 하는 것(사회의 불건전한 여성들과 쓸데없이 접촉하면서 부당한 현상을 가지는 현상, 여성군인들에게 입당이요, 전망문제해결이요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현상)

넷째, 군간부 가족들의 비행이다.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간부들이 승용차를 타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식들을 찾아 다니거나 자식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간부 아내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내들이 남편을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는 현상, 조직생활과 가두인민반생활에도 잘 참가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는 현상, 장사행위를 하는 것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VI

이 강연자료는 국가의 곤궁한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만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부 군간부들이 낭비하고 횡령·착복하여 자기의 잇속을 채우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혁명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군간부들에 의한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의 사례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병사, 사관들도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예로 병사, 사관용 『학습참고자료』에서는 군사규율 위반 현상 가운데 불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서부터 ‘군품을 훔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⁶ 한 『해설담화자료』는 사관들과 구대원들이 생일, 송별회 등을 빙자하여 ‘때없이 먹자판’을 벌리고, “술심부름을 맡은 군인들은 술을 얻기 위해 군품을 훔쳐 내어 팔아먹거나 인민들의 재산을 털어 내는 등 망탕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⁵⁷ 사관용의 한 『학습제강』도 “일부 사관들은 경제생활이 깨끗하지 못하여 병사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분대물자를 빼내어 술과 바꾸어 먹거나 제 리속을 채우는 것,” “군품을 훔쳐 제대 보따리를 꾸리거나 사회사람들과 거래를 가지는 것”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⁵⁸ 이에 대해 이 『학습제강』은 사관들의 혁명화를 촉구하면서 ① 생활에서 사치를 없애고, ② 군품을 훔쳐내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③ 자신보다 대원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군품을 훔쳐내기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⁹

56. “군사규율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데 대하여,”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34.

57.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자,” 『해설담화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4.

58. “사관들이 군무생활의 모든 면에서 병사들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될데 대하여(사관),”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5』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18.

병사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구분대물자를 빼내다 자기의 리속을 채우는 현상을 비롯하여 군품을 훔쳐내다 팔아 제대준비를 하는 등의 현상은 부대와 구분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해독행위이다.

사관들은 절대로 사회사람들과 물자거래를 가지거나 농민시장에 출입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사복무기간 녀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거나 약혼, 결혼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군사복무기간은 물론 앞으로 자신의 발전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관들은 구분대 물자는 쌀 한알, 실 한오라기도 절대로 빼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병사들의 배낭을 뒤지고 그들의 돈과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드는 비량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에서 사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수물자를 유용하고, 상거래에도 관여하며, 이성문제를 야기하는 등 비행을 일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도 이런 군대 내 비행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 『학습제강』은 김정일이 “개인리키주의에 물 젖어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군품을 훔쳐 제 리속을 채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옮겨 적고 있다.⁶⁰

지금 일부 군일들속에서는 군수물자를 망탕 다루거나 량식과 피복물자를 사회에 가지고 나가 바꿈질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군대에서 이런 현상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군인생활문제를 풀 수 없으며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⁵⁹. 위의 자료, p. 19.

⁶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일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39.

군인들속에서 군수물자를 애호절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국가에서 공급받은 모포나 백포를 가지고 바꿈질하거나 농민시장에 내다 파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김정일의 언급은 군인들이 식량, 피복, 모포 등 군수물자를 유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학습제강』이 토론의제로 올리고 있는 것은 “① 량식물자와 부업생산물을 가지고 술판, 먹자판을 벌려 놓는 것, ② 군품을 훔쳐내어 바꿈질, 장사질 하거나 사기협잡행위를 하며 사회사람들에게 내다주고 음주대접을 받는 것, ③ 나라와 군대재산을 가지고 제 낮대기를 하고 퇴물행위를 하는 것”이다.⁶¹ 이 토론의제가 곧 북한군 내 사관, 병사들 사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의 사례인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군수물자 유용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돈 맛을 들인 군인들과 술풍에 만연된 군인들, 군무생활에 몸을 담그지 않는 군인들을 비롯하여 도덕생활이 견실치 못하고 군무생활이 불건전한 군인들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² 북한 당국은 군수물자 유용을 막기 위해 개인보다는 집단과 동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교양과 함께 특히 사회와의 접촉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면 그들의 <신세>를 지게 될 수 있고 그것을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수물자를 내가게 된다”는 논리이다.⁶³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술판, 먹자판이 모든 비행의 시초로 되고 있다. 국가재산 및 군수물자 침해, 구타, 탈영, 강인범죄 등 온

61. 위의 자료, p. 40.

62. “피복, 화식기재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주인답게 애호관리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29.

63. 위의 자료.

I
II
III
IV
V
VI

갓 형태의 비행과 범죄는 술을 얻어 먹기 위함으로부터 혹은 술을 마신 후과로 저질러지는 행위들”⁶⁴이라고 간주하여 음주의 성행을 방지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4년 대대이하 단위의 식량유용과 관련하여 “대대이하 단위들에서는 군관들과 사관들이 <소왕> 노릇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량식물자들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대대이하 단위의 군관들과 사관들이 군인들의 량식물자에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합니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⁶⁵ 이는 소규모 부대의 군관, 사관들이 자행하는 군량미 유용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북한군 내에서는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군수물자를 착복하고 유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군간부들에게는 ‘혁명화’사업을 실시하고, 병사·사관들에게는 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와의 접촉 배제, 금주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연대는 연대적으로 떼먹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에서는 중요한 것을 다 떼먹으면 소대에는 소소한 것만 차례지니 분대원들은 분해도 참아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⁶⁶ 한 탈북 군관은 “사단은 사이사이 조절해 먹는다. 연대는 연이어 떼먹는다. 대대

6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2003년 6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현시기 인민군대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6.

6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93(2004)년 2월 24일 조선인민군 제131군부대지휘부와 직속공병중대, 땅크종합훈련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p. 11.

66. 『자유북한방송』, 2010년 1월 8일.

는 대대적으로 떼먹는다. 중대는 중간 중간 잘라먹는다. 소대는 소소하게 잘라먹는다. 분대는 분할있게 조절해 먹는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군관생활 17년 동안 쌀을 많이 팔아먹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⁷

다른 예로 군관들이 병사들에게 염장 무를 자기 집으로 날라 가라는 지시를 하루 일과처럼 시키고, 신병군인들이 입고 온 새 군복과 신발을 훔쳐서 시장에 내다 팔고 바꾸어 먹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⁶⁸ 또한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군수물자 착복으로 의류나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도 일상화된 것 같다.⁶⁹ 이러한 예가 각급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 반적인 현상이라면, 간부들에 의한 대대적인 군수물자 유용이 심각하게 문제화된 사례도 있다. 2010년 12월 초부터 2011년 2월까지 보위사령부가 전국의 군부대와 주요 건설장에 검열단을 파견·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군 간부 및 건설장 간부들의 빼돌림 현상 때문에 식량 및 군수창고가 텅비었다고 한다.⁷⁰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의 주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인데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이 군대에도 영향을 미쳐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군대 내 식량난과 군수물자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대민피해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시행하면서 군이 민간에 대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북한 당국은 군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67.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6일.

68. 『자유북한방송』, 2011년 1월 21일; 2011년 2월 14일.

69. 『자유북한방송』, 2010년 8월 24일.

70. 『열린북한방송』, 2011년 2월 9일.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은 군에서 1996년부터 전개한 ‘오중흡7련대칭호 쟁취운동’의 판정 조항에 처음에는 군민관계 개선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1998년 6월 25일 김정일의 지시로 ‘군민관계 개선’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⁷¹ 이는 선군정치 시행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군의 대민피해가 야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0년에 탈북하여 국내 입국한 한 탈북군인은 “인민군대 안에서 제일 시기별로, 한 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총정치국에서 발행하는 강연자료 그게 나오면 거기 방침도 떨어지고 최고사령관 명령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첫째로 하는 게 인민군대 안에서 군민관계 개선하는 것, 둘째로는 술풍 없애는 것, 세 번째로는 탈영, 자유주의 없애는 것, 그 세 가지가 한 주일에 한 번 떨어지다시피 한다”고 증언했다.⁷²

군의 대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정일은 2000년 6월 19일과 7월 7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의 담화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를 통해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고 지적하였다. 이 담화에 대한 해설자료에 의하면, 군민일치를 높이 발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군민일치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제1차적인 과업이기 때문이고, ② 일부 군인들 속에서 인민들을 깔보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는 현 실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³ 이 해설자료는 군의 대민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7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p. 5.

72.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26일.

7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의 기본사상에 대한 해설,”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16.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대를 중시하시고 인민들이 군대, 군대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워준다고 하여 우쭐해서 인민들을 깔보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⁷⁴ 군민관계가 계속 악화되자 북한 당국은 2002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군민관계 개선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군에 의한 대민피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01년 군관, 장령에 대한 『학습제강』은 군의 대민피해 사례로 농작물 침해와 특권을 내세우는 두 사례를 지적하고, 이는 곧 군 지휘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⁵

만일 군인들속에서 인민들의 밭에 들어가 강냉이 한 이삭을 따오는 현상이 나타났을때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래일은 그들이 어떤 망탕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지금 일부 군관들과 군인들이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는 안중에도 없이 사회봉사기관이나 도로상에서 군대 <특세>를 쓰면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지휘성원들이 무규률적 현상과의 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벌리지 않는데 있다.

이어서 군의 대민피해가 발생하면 지휘관은 “수백리 밤길을 걸어 가더라도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2년의 한 『해설답화자료』도 대민피해 사례로 농작물 침해와 교통질서 위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군관들이 여러 가지 구실

74. 위의 자료.

75. “혁명적 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세워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20.

I
II
III
IV
V
VI

로 군인들에게 농작물을 훔쳐오도록 조직하는 비당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일부 군인들이 교통질서를 별치않게 생각하며 망탕 어기여 인민군대망신을 시키고 군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⁶ 2002년에 발간된 선동일군용 『강습제강』 역시 “군인들속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⁷⁷

- 야외훈련을 할 때
- 농촌지원전투를 하거나 인민들과 접촉할 때
- 제기된 군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 때
- 딸나무하기, 부업, 염소방목을 비롯하여 개별임무를 수행할 때
- 물질생활에서 부족감을 느낄 때
- 사관들이 병사들에게 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놓으라고 임무를 주거나 인민들의 재산을 훔쳐 오라고 시킬 때

이러한 예시에서 군인들이 야외훈련을 나가 식량이 부족해 인근 민가의 농작물을 절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대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02년의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하여”라는 병사, 사관용 『학습제강』은 군의 대민피해 문제를 체계적

76. “농작물을 침해하고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자” 『해설담화자료(요강)』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p. 3, 6.

77.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02), p. 37.

으로 다루고 있다.⁷⁸ 이 자료는 “군인들속에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나갈 수 있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선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의 엄중성과 후과는” “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데 있다, ②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는데 저해를 준다는 데 있다, ③ 앞으로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① 인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한다, ② 선군정치라 하여 군대특세를 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③ 인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아야 한다, ④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인민들이 바로 자기의 친부모형제이며, 인민들은 일단 유사시에 한 전호 속에서 생사를 같이 할 혁명전우들이고 동지이며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군대 특세’ 근절과 관련해서는 선군정치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우선권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민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권 요구와 관련된 ‘편향’의 예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고 있다.

- 식당이나 극장, 공원과 유원지 등에서 무조건 우선봉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패질하는 현상
- 려객렬차나 시내빠스를 먼저 타겠다고 사람들을 마구 밀치거

78.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p. 18~32.

I
II
III
IV
V
VI

나 창문으로 오르내리는 것

- 달리는 자동차를 가로 막아 세우거나 안 세운다고 돌을 마구 던져 피해를 주는 현상

또한 인민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
음의 ‘편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멋없이 우쭐거리면서 인민들에게 야비한 반말질을 하는 것
-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상스러운 욕질과 호통을 치며 조폭하
게 행동하는 것

인민에 대한 사랑과 관련하여 인민들 앞에서 불손하게 행동하며 그
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편향’이 나타
나고 있다고 한다.

- 기분에 거슬리거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인
민들을 위협하고 때리는 것
- 흥기를 가지고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강인범죄를 저지르
는 것

마지막으로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얼어 죽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인민의 재산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로
는 다음과 같은 짓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생활조건이 어렵다는 구실로 인민들의 량곡이나 집짐승을 도
적질 하는 것
- 임무수행을 코에 걸고 여러 가지 자재나 도구들을 훔쳐오는
것
- 돈과 물욕에 눈이 어두워 강인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

이러한 군의 대민피해에 대해 이 자료는 만성적으로 대하는 그릇된 현상부터 철저히 뿌리 뽑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의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말데 대하여”라는 병사, 사관용 『학습제강』은 2002년 11월 개최된 ‘전국원군 미풍열성자대회’를 통해 ‘용군사상, 원군기풍’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 군민관계를 개선하는데서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리 군인들속에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군인들은 선군시대의 군인이라는 자각이 부족한데로부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군민일치실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⁷⁹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은 첫째, 인민들을 깔보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 예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자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인민들을 위협하며 지어 손찌검을 하는 것
- 뺄스나 러객렬차를 리용하면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란폭하여 위반하는데 대하여 인민들이 말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행패질하는 것
- 인민들이 기분에 거슬리게 행동한다고 하여 욕설추궁하며 지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

둘째, 국가 및 협동단체재산과 인민들의 개인재산에 손을 대는 현

⁷⁹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5』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35~36.

I
II
III
IV
V
VI

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예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 훈련준비와 겨울나이준비, 병영꾸리기와 부업 등 <집단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들에서 목재와 공구, 비닐박막과 비료 등을 훔쳐오는 것
- 인민들의 개인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
- 인민들의 작업도구와 공구를 빌려쓰고는 돌려주지 않거나 못 쓰게 만들고도 꿈난해 하는 것

종합적으로 볼 때, 군의 대민피해는 군인이라고 우쭐해서 인민들을 깔보는 것, 군대라고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 인민들에게 불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⁸⁰

김정일은 2003년 6월 28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연설 “현시기 인민군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인민군대에서는 군민관계문제를 군대의 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고 지적하였다.⁸¹ 김정일이 군민관계를 ‘군대의 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군민일치가 많은 장애에 봉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²

80. “인민들을 친부모형제처럼 사랑하며 존경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19.

8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2003년 6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현시기 인민군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7.

82. 이 자료에서 “군민일치가 왜 우리 사회의 밑뿌리로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통일단결된 일심단결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당과 군대와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핵무기보

북한 당국은 2004년 “인민들을 친부모,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목숨바쳐 지킬데 대하여”라는 『학습제강』을 통해서도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바쳐 지키는 것은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인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하고, ② 인민들을 겸손하고 예절바르게 대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하며, ③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어야 하고, ④ 인민의 이익과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⁸³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군민일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식량난이 가중되자 군의 대민피해는 더욱 심해져 군의 ‘약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08년 2월 북한을 떠난 청진출신의 한 탈북자는 “낮에 마을에 군대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재빨리 집짐승을 집안에 가둔 후 대문을 닫고 창고 자물쇠를 잠그며, 심지어 밖에 널어놨던 빨래와 신발까지 몽땅 거둬들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수십 명의 군인이 30개 이상의 콩마대, 옥수수 1톤과 가축 등을 약탈해 갔다는 것이다.⁸⁴

북한 당국이 군민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2009년의 『학습제강』에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이 2008년 12월 18일 “부대에서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군들과 군인들이 원민사업에 한 사람

다 더 위력한 무기이다. 여기서 기본은 우리 혁명의 2대력량인 군대와 인민이 한 덩어리로 굳게 통일단결되는 것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사상과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위의 자료.

83. “인민들을 친부모,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목숨바쳐 지킬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p. 14~23.

84. 『자유북한방송』, 2008년 12월 12일.

같이 펼쳐나서도록 하니 인민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시 안의 일군들과 인민들도 부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김정일이 “앞으로도 주둔지역 인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⁸⁵ 또한 2009년의 『선동자료』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인민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원민사업과 배치되는 사소한 행동으로 하여 미치게 되는 후과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원민사업과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도 절대로 나타내지 말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군민단결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행동으로 보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⁶

그러나 군대 내 식량난으로 북한군의 대민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황해북도 은파군에 주둔한 8.15훈련소의 한 대대에서 지휘관들이 군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도둑질을 시켜 식량을 확보하였다가 주민들의 신소로 적발되었다는 것이다.⁸⁷ 북한군의 약탈이 심해지자 주민들 속에서 “군인들을 마주치면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목숨만 보전하자, 길다닐때 좋은 옷 입지 말자”라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장사꾼들과 공장기업소·농장들의 운송차량도 주변 군부대 군인들을 싣고 다니며 군인들의 보호로 군인들의 약탈행위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⁸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가 요원한 상황에서

85.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에 대한 학습제강(3),” p. 7.

86.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원민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 『선동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9), p. 4.

87. 『자유북한방송』, 2011년 1월 24일.

88. 『자유북한방송』, 2011년 1월 24일; 2011년 2월 8일.

는 군의 대민피해 현상이 계속 진행중이거나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군민대단결,’ ‘군민일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⁸⁹

4. 부대 내 음주

북한군에 만연되어 있는 음주행위는 군의 기강이 해이된 현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북한 당국은 군인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폭행, 살인, 탈영 등 각종 비행의 주요 근원이 음주행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98년 6월 7일에 “지금 소대, 중대, 대대의 군관들과 사관들속에서 술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위급군관과 사관들이 문제”이며, “술풍을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지시하였다.⁹⁰ 사관들의 빈번한 음주에 관해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게 양식 뽑는 게 병사들은 못 뽑거든요. 쌀 찢 놈이 뽑지. 사관장이 뽑는 거죠. 부서장이 뽑는 거죠. 쌀 찢 놈들이 뽑지. 쥐지 않으면 못 뽑지요. 사관장도 병사 아니야 사관장도. 자기 또래 있거든요 친구들. 사관장은 못해도 2~3일에 한 번은 술을 먹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어떤 때는 몇 소대 부소대장하고. 어떤 때

⁸⁹.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2011년 4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은 “군민대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의 위력한 보검이다. 인민군장병은 선군조선의 밀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인민들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껏 원호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⁹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pp. 5~8.

I
II
III
IV
V
VI

는 친구들과하고 이런 식으로 사관장은 술을 계속 먹다시피 해요. 사관장자체가. 그럼 그 술이 어디서 나와서. 그건 자기 양식창고 쌀이지, 제 쌀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먹을 쌀이지. 이걸 내다 팔아서 술 바꿔 먹는 거죠.⁹¹

2001년 군사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참고자료』는 “자유주의와 술풍을 결정적으로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⁹² 이 자료는 “자유주의와 술풍은 그 자체가 규률위반으로 되는 것은 물론 강인범죄를 비롯한 엄중한 불량행위를 낳게 하는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순간도 자유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술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혁명성과 전투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으며 온갖 범죄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과의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군대인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있어서 술은 최대의 금물”이라고 하면서 술이 군인의 전투적 긴장성을 마비시키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⁹³

어느 한 나라 군대에서 읽은 일:

이 나라 군대에는 술중독자 얼마나 성행하는지 술중독에 의한 사망자수를 줄이고 술에 미친 정신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곳곳에 <술중독치료소>라는 것까지 차려놓고 있다.

어느 날 이 나라 총참모부에서는 어느 한 기계화부대에 내려가 비상경보신호를 하달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난후에 그것도 런대장만 겨우 나타났다. 알아 보니 운전수들이 거의다 폭주가 들이어서 <술중독치료소>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비상경보신호가

91.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6일.

92.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데 대하여,” p. 42.

93. 위의 자료, p. 44.

내렸어도 동원될 형편이 못되었다.

이 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허구적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군의 전투태세 확립을 위해 음주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데 매우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2001년 10월 “2002년 1/4분기에 전군적으로 술풍을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친필지시”를 내렸다.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음주행위는 근절되지 못하였다.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자”라는 『해설담화자료』는 술을 마시기 않기 위해서는 “① 술을 마시고 망탕짓을 하는 것은 곧 인민군대를 변질시키는 해독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② 애초에 술 마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사회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④ 사관들과 구대원들이 먹자판, 술판을 조장시키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⑤ 술을 마시는 현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⁵

2002년 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자료』는 북한군의 음주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이 33년 전 인민군 당 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일부 일군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하여 가슴 아파 하시면서 그런 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는 것이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대 안의 음주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북한군 음주행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⁹⁷

94.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자,” 『해설담화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1.

95. 위의 자료, pp. 2~4.

96. “일군들속에서 술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군관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5.

97. 위의 자료, p. 2.

I
II
III
IV
V
VI

- 명절과 대사, 생일, 조동, 승급 등을 먹자판을 벌여놓고 술놀이를 하고 있는 것
- 훈련과 공사를 하거나, 각종 학습과 지도사업, 판정검열때마다 술판을 벌려 놓는 것
- <손님접대>를 한다고 하면서 술판을 벌려 놓는 것
- 사회사람들과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술놀이를 자주하는 것
- 특히 중대군관들속에서 저녁마다 술놀이를 하는 것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예로 한 부대를 점검해 보니 2001년 1~8월 동안 군관들이 생일, 송별회 등을 명목으로 음주회식을 한 것이 130여 차례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장교들 사이에서도 음주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자료는 “현실은 우리 인민군대안의 지휘성원들속에 자본주의적 생활풍토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규정하고, 음주행위의 ‘해독적 후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부대, 구분대의 단합과 군풍확립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 싸움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 군인들의 물질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범죄와 비행, 사고와 규률위반을 낳게 한다.
-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자신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① 술을 마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하고, ② 음주현상과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자료는 어느 한 부대에서 2001년도에 군관들이 술놀이를 하면서 군인들의 식량 수백kg을 탕진했다는 것과 일부 군인 가정들에서 밀주제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음주를 위한 군수물자 유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특히 음주행위를 한 자는 무조건 인민군당위원회 비서처 결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 장령, 군관들이 술을 한번 먹었을 때는 당 및 청년동맹조직에서 사상투쟁을 벌릴 것
- 술을 두번 먹었을 때는 동지심판 또는 명예심판을 할 것
- 세번 먹었을 때는 강직, 강급시킬 것
- 네번 먹었을 때는 무조건 로동련대로 보내거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과외제대시킬 것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음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7년의 한 『학습제강』이 “주색금은 사상과 신념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은 군인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범죄를 낳게 하는 근원”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⁸

5. 구타

한편, 음주행위와 더불어 구타문제 역시 북한군에 만연해 있는 기강 해이 현상의 하나이다. 구타행위는 탈영과 무단외출, 대민피해 등 군의 비행 가운데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2002년의 군의 예의도덕기풍 확립에 대한 한 『강연자료』는 “부하군인들을 진정한 혁명동지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레절있게 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손찌검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⁹⁹

이와 함께 앞서 인용한 2002년의 선동일군용 『학습제강』은 군사규

⁹⁸. “우리 3세, 4세 군인들을 변질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실데 대하여,” <http://218.145.28.29/news/news.html?ACT=detail&res_id=99357>.

⁹⁹. “전군에 고상하고 문명한 레의도덕기풍을 세우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3.

I
II
III
IV
V
VI

을을 강화하기 위해 탈영, 무단외출, 구타행위, 대민피해, 음주, 법·질서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타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¹⁰⁰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구분대의 한 초급병사가 분대장에게 매를 맞고 자기 동무에게 쓴 편지 내용:**

분대장에게 매를 맞은 그날 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네. 분대장이 빨리 제대되든가 아니면 병이라도 콧 걸려 없어 지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구만. 물론 나도 잘못이 있지만 찍하면 눈을 부릅뜨고 욕설하는 그런 분대장과는 하루도 같이 있을 생각이 없네.

***어느 한 포병중대에서 포실탄사격을 앞두고 훈련할 때 있는 일:**

중대의 한 포장은 대원인 장탄수가 화력복무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그에게 손을 댔다. 그러자 매를 맞은 장탄수는 포장에게 반감을 가지고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대신 더 엷서 나갔다. 그리하여 화력복무훈련에서 포성원들의 마음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분대는 포실탄사격에서 락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 자료는 인민군대의 우월성은 군인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것에 있는데 상하 간, 동지 간 구타를 하면 이 우월성이 상실되고, 동지적 단합을 약화시키며 전투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치적 사고도 야기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군의 구타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관의 역할에 있다고 보고 사관들의 구타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¹⁰¹

¹⁰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pp. 34~35.

¹⁰¹ “사관들이 군무생활의 모든 면에서 병사들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될데 대하여,” p. 17.

지금 사관들에게서 가장 걸린 문제이며 절박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대원들을 구박하고 고통을 주며 구타하는 것이다. 사관들은 언제나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잘 이끌어 주며 그들을 해설과 설복, 긍정감화의 방법으로 교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병사, 사관들에게 ‘동지애의 미풍’을 강조함으로써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¹⁰²

그러나 북한군 내 구타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08년 구타금지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모든 군인이 서명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했다.

부대, 계속 강연 자료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떨어지는 게 관병관계, 상하일치 그건데. 관병관계는 군관하고 병사하고 관계, 상하관계는 신대원과 구대원의 관계 이렇게 하는데. 인민군대 안에서 어쨌든 슬픔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구타현상이니까. 구타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작년 2010년 2월달에도, 2009년 11월달에도 그 부대산하 인계리 회령시 거기에서 어린병사가 너무 구박받고 그러니까 무기 들고 가서 소대에 몽땅 싸 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한 3명 정도 죽고, 자기도 또 자충하고 이런 정치사고가 국경사령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민무력부쪽으로 한 달에 한 건씩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¹⁰³

6. 탈영

북한군의 기강 해이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는 병사들의 탈영이다. 북한군 당국에서는 탈영문제를 무단외출, 구타와 대민피해 등과 같은

¹⁰² “서로 믿고 사랑하며 이끌어 주는 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18~29.

¹⁰³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25일.

I
II
III
IV
V
VI

범주에서 비행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1년 군관, 장령에 대한 『학습제강』에 의하면, 2000년에 문란해진 군사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지시와 그 집행을 위한 시행대책을 하달하였으나, 당이 바라는 정도만큼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의 하나로 “탈영, 무단외출자가 계속 나타나고 각종 비행과 군중규를 위반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⁴

2001년 병사, 사관에 대한 『학습참고자료』는 군사규율 위반현상을 ① 강인범죄, 절도, 구타와 집단구타 등 불량행위, ② 탈영과 무단외출 등 자유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복장과 예절 등 정규군대다운 면모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¹⁰⁵ 탈영과 무단외출이 한 항목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무단외출이 탈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불량행위의 거의 모두가 무단외출과 탈영을 하여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신 군인들속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인들은 “순간도 자유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단외출과 탈영의 문제점과 처벌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⁰⁶

만약 이렇게 무단외출과 탈영을 하여 돌아 다닐 때 전투발령신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에는 병사의 임무를 제때에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조국

104- “혁명적 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세워 군사규율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p. 11.

105- “군사규율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데 대하여,” p. 34.

106- 위의 자료, pp. 42~43.

과 인민들앞에 전투기피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된다.

하기에 무단외출과 탈영을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형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게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형법 제1조에는 부대 또는 복무장소에서 허가없이 외출하였거나 군인의 품모를 훼손시켜 군사규율을 심히 문란시킨 자는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전시 또는 근무중 무기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제2조에는 부대 또는 복무장소에서 탈영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근무중 혹은 무기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어서 “군인들은 소소한 자유주의가 하루이틀의 무단외출로 이어지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탈영하여 돌아다니면서 불량행위도 거리낌없이 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인들은 한발자국을 움직여도 철저히 보고하고 움직이는 기풍을 세우며 애당초 무단외출을 할 생각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북한군의 탈영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무단외출과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 군 당국이 매우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선동일군을 위한 『강습제강』은 탈영, 무단외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동일군들이 “우선 군인들에게 탈영, 무단외출을 없앨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와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 군사형법내용을 잘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행위는 군사적 행동에 지장을 주며, 군민관계를 훼손하고, 선군정치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⁰⁷

2002년의 병사, 사관용 『학습제강』에서는 탈영, 무단외출을 ‘자유주

¹⁰⁷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p. 34.

I
II
III
IV
V
VI

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엄중성과 결과, 대책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¹⁰⁸

- 탈영이나 무단외출은 상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복무장소(부대, 구분대)를 리탈하는 행위이다.
- 탈영, 무단외출은 그 경위가 어떻든 군사복무를 기피하는 반역행위로 된다.
- 전시로 말하면 싸움이 두려워 비겁하게 전투장을 떠나는 도주행위나 다름 없다.
- 또한 탈영, 무단외출은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범죄를 낳는 근원이다.
- 탈영, 무단외출한 군인은 레외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되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사회의 불순이색분자들에게 끌려 들어 범죄의 길, 일생을 망치는 길에 굴러 떨어진다.
- 상관들이 병사들에게 무엇을 얻어 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멋대로 병영밖에 내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한군에서 병사의 탈영문제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식량난과 장기복무에 따른 염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도 이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대 내 식량난이 악화됨으로써 2000년대 후반 이후 군인들의 탈영이 급증하고 있는 듯하다. 2010년 5월 강원도 주둔 5군단 81연대 산하 110명 규모의 중대에 13명이 탈영했다는 증언과 함께 신병교육을 시작할 때 65명이었던 것이 교육이 끝났을 때는 18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군인들의 탈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⁹ 또 다른 예로 “보병사단 120명 정도의 중대에서 보통 10

¹⁰⁸-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p. 43.

¹⁰⁹- 『자유북한방송』, 2010년 6월 18일; 2011년 3월 8일.

명 정도가 탈영한다,” “기계화 부대 대대병력 600명 정도인데 중대 규모의 30명정도가 탈영한다”는 증언도 있다.¹¹⁰ 북한군의 5~10%가 현재 탈영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 전역에서 꽃제비 보다 탈영병이 더 많기 때문에 군 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¹¹¹

7. 기밀누설

한편, 북한군 내부에서 기밀이 누설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비밀이란 필요한 사람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또 알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7월 14일 “일부 군인들과 가족, 종업원들이 편지를 통하여 당과 국가의 비밀을 루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행사비밀까지 루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8월 10일에는 “인민군대에서 비밀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당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도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¹¹² 김정일의 의도는 “전군에 엄격한 비밀준수기풍을 세워 인민군대가 안개속에 잠긴 물체처럼 누구도 그 내막을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김정일은 군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다 군사비밀이라고 했다.¹¹³ 이에 따라 부대, 구분대의 위치와 편제인원, 무장장비와 전투임무, 훈련방법

110. 『데일리NK』, 2011년 4월 25일.

111. 『자유북한방송』, 2011년 2월 25일.

11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p. 11.

113. “편지를 통하여 군사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자,” 『선동자료』, 제16호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7.

I
II
III
IV
V
VI

과 내용, 일상생활 과정이나 군인들의 이름과 나이, 성격과 취미 같은 것까지도 다 군사비밀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¹⁴

이러한 일반적인 군사비밀보다 북한 당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김정일 관련 행사의 비밀 유출과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군관, 장령들에 대한 『학습제강』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는 행사를 무책임하게 조직하거나 행사비밀을 루설하고 무기, 탄약, 폭발물 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신변안전보장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결함의 하나로 지적하고, 김정일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주체위업 완성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¹⁵ 북한 당국은 비밀누설현상을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행사 관련 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2004년의 『학습제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의 신변안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행사비밀과 행사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⁶

- 행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행사비밀은 곧 혁명의 수뇌부의 운명과 직접연관되어 있다. 미제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은 오늘 행사비밀탐지에 촉수를 뻗치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 지난 시기 북부국경지대로 들어오는 사사려행자들 속에서 불

¹¹⁴- 위의 자료, p. 8.

¹¹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9.

¹¹⁶-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 26.

순적대분자들을 적지 않게 색출하였다. 그런데 그놈들의 대부분이 우리 내부 특히 평양에 기여들어 수뇌부 위치와 그 주변의 생김새, 그곳으로 통하는 도로망들, 지어 행사에 리용되는 승용차의 형과 내부구조, 발동기소리까지 내탐해올데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받은 자들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우리 군인들이 행사비밀을 루설하게 되면 수뇌부결사옹위에서 천추만대에도 씻을 수 없는 엄중한 죄를 범하게 된다. 모든 군인들은 이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행사비밀을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말며 알고 있는 행사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행사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 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행사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과 함께 “행사규율을 잘 지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행사에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참가하며 행사시간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군사비밀 유지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을 목도하고 그 강도를 높였다. 2003년 7월의 “군사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는 『강연자료』는 “현대전에서 군사비밀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전투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기전에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라크 전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¹⁷

이라크전쟁때 바그다드격전을 앞두고 이라크군은 800여대의 땅크를 동원하여 미영침략자들을 쳐물리칠 구체적인 작전계획

¹¹⁷ “군사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2.

I
II
III
IV
V
VI

을 세웠다. 그런데 그 비밀이 통째로 미영침략군에 넘어가고 현지에 잠입한 간첩들이 제놈들의 비행대에 기동하는 땅크들을 목표로 제시해 줌으로써 포탄 한발 쏘보지도 못하고 모두 전멸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도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우리의 군사비밀을 노리는 적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미제의 공중정탐행위 차수와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이 협동하여 우리나라의 지질 구조를 확정하고 산, 강, 해안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침략전쟁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일군과 군인들의 비밀관념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난 1월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는 우리 나라의 수많은 중요기관 및 단체의 사명과 임무, 거기에서 근무하는 성원들에 대한 인물자료가 실렸다고 한다. 인민군대안에서도 부대, 구분대들의 조직과 이동, 수행하는 임무, 전투훈련방식문제 등 중요한 군사비밀이 누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기밀누설 현상은 ①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행위, ② 적을 돕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하는 반역행위, ③ 혁명무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업적을 말아먹는 해독행위이므로 사회전보, 편지, 전화를 통해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⁸ 특히 전화를 통한 비밀누설

¹¹⁸- 위의 자료, pp. 3~5.

방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군사비밀을 노리는 적들의 책동”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상공에 적들의 정찰위성이 여러개 떠 있는데 그중에 전화도청을 전문으로하는 위성도 있다.
- 일본 오키나와에 동지를 틀고 있는 미군정찰기들은 지난 5월부터 오후 4시에 출격하여 우리나라 가까운 공해상에서 8시간동안 감시, 촬영, 도청을 하다가 제 소굴로 돌아가곤 한다.
-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8군소속 어느 한 정보련대는 우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의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라는 『학습제강』은 군사비밀 누설 방지를 위해 ① 말을 통해서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② 각종 문건들과 증명서, 군사문제가 기록된 학습장과 군사출판물 보관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말로써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⁹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곳에서나 비밀에 속하는 말을 망탕하는 현상
- 친한 사람이나 부모형제들앞이라고 하여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현상. 특히 군인들은 출장도중이나 휴가를 받고 집에 가서 자기 가족과 친척, 동창들에게 부대의 임무나 무장장비상태와 같은 중요한 비밀까지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문건, 학습장 등의 보관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

¹¹⁹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6)』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30~32.

I
II
III
IV
V
VI

례로는 다음의 사항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 문서보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분실하는 것
- 각종 증명서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
-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아무데나 적는 것
- 군사문제가 기록된 학습장과 군사출판물을 휴지로 리용하는 것

2004년 5월의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비밀을 더욱 엄격히 지키자”는 『강연자료』는 비밀 유지문제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당 및 국가,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당과 수령,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¹²⁰ 따라서 비밀유지를 위해 “① 철저한 비밀관념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② 한 장의 편지나 휴지, 한건의 문건, 군대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도 절대로 대외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통신수단으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결국 북한군 당국은 군사기밀 유지에 매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기밀누설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탈북자는 기밀누설과 관련한 한 예로 병사들이 모르는 것을 사회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것을 들었다.¹²¹ 군 출신 탈북자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군의 기밀누설 현상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인

¹²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비밀을 더욱 엄격히 지키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 5.

¹²¹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25일.

들이 돈벌이를 위해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가 면접한 한 탈북 군인은 기밀누설의 원인이 돈벌이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드문히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때 많이 떠들었는데. 군부대 기요자료 있잖습니까. 기요자료. 우리로 말하면 극비문건, 기밀 문건 기통수가 가져가다 얻어맞아 쓰러지고 기밀문건 없어졌거든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북한기밀문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북한에서 판단하기에는 분명 이걸 한국에서 필요해서 이걸 한 거라는 거죠. 한국이 직접 나서서 했겠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한국에서 이런 거 가져오면 이게 돈이 된다 이런 거 한번 해 보라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나니까 저 기통수 까게 되면 저 뭐 있겠다 해서 까고 뽑아서.¹²²

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만연

북한 당국은 종교와 미신행위, 도박, 장사 등을 자본주의 생활풍조, 즉 비사회주의로 간주하여 철저히 단속해 왔으나, 경제난 심화, 외부정보 유입 등의 요인에 따라 북한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확산이 군대에도 나타남으로써 군 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의 지시를 학습하기 위해 작성된 한 문건은 김정일이 도박과 미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한다.¹²³

사회적으로 점치기와 관상보기를 비롯한 미신행위와 도박행위가 성행되는데 대하여서도 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도박과

¹²²-탈북자 ○○○의 증언, 2011년 4월 6일.

¹²³-“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p. 6.

미신행위는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쪼먹는 매우 유해로운 사상독소이
며, 부로쵸아 생활풍조입니다.··· 도박과 미신행위는 맹아기에
된타격을 주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 문건은 김정일이 1998년 8월 15일 이 문제에 대해 “옛날부
터 도박에 미치게 되면 땅과 집을 팔고 나중에는 녀편네까지 팔아먹
는다고 하였고 하시면서 도박과 미신행위가 조장되고 그것이 사회
적으로 만연되게 되면 당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반당반혁명적 요소들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강조한다.¹²⁴
이러한 김정일의 언급은 1990년대 이전부터 도박과 미신행위가 사회
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군대 내에 비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강
조한 것은 2001년 군관, 장령용 『학습제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
다. 이 자료는 “오늘 당에서 것처럼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일군들속에서 비사회주의에 물젖어 돌아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
고 있는 것은 다 정치성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그 사례를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¹²⁵

일부 일군들은 이색적인 출판물과 록음록화물을 계속 보고 들으
며 금주색에 빠져 팔라라면 그 어느 짓도 서슴지 않고 술과 여
자라면 오금을 못쓰고 있다.
어느 한 부대의 군관은 출장기간 역전에서 관상쟁이에게 손금을
보였다. 관상쟁이는 그에게 남쪽으로 가야 발전할 수 있다는 허

¹²⁴- 위의 자료.

¹²⁵- “모든 일군들이 정치성을 높일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2)』 (조선인민군
출판사, 2001), p. 41.

황된 소리를 했다. 그후 군관은 부대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구분대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자기 <운수>에 맞게 되었으니 앞으로 일이 잘될 것 같다고 좋아하며 여기저기 자랑까지 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예를 들고 이를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것이 더 우심해지면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적으로 와해되어 혁명의 군대, 계급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본분마저 순간에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소련과 루마니아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들고 있다.¹²⁶ 이와 함께 이 자료는 ‘이색적인 사상’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체사상과 미신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¹²⁷

주체사상원리에는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미신은 그 어떤 <신>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인간의 운명문제가 좌우되는 것으로 본다. 결국 미신은 주체사상과 완전히 대치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이것은 미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의 또 다른 『학습제강』은 “최근 제국주의자들은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더욱 알랄하게 벌리면서 우리나라에도 퇴폐적인 부르주아 사상을 퍼뜨리려 하고 있다”는 김정일의 언급을 제시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허용하면 사회주의가 내부로부터 변질되어 중

¹²⁶- 위의 자료, pp. 41~42.

¹²⁷- 위의 자료, p. 47.

당에는 망하고 만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인민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 비사회주의적 사상요소의 예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떤 서구문화가 북한군 내부에 유입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¹²⁸

- 퇴폐적인 록음테프,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보고 듣거나 류포 시키는 행위가 극복되지 않는 것
-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활하거나 직책상 임무수행에 마력을 내지 않는 것
- 물욕과 딸라퐁에 물젓어 장사질을 하거나 국가, 군수물자를 탐오랑비하며 퇴물행위, 상적행위, 미신행위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넓게 보면, 서구문화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미신행위도 군대 내에 유입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이 자료는 종교와 미신행위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¹²⁹

한마디로 종교와 미신행위는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로서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허무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결한 충성심, 수령에 대한 숭배심을 허문다.
- 사람들 호상간에 불신을 조성하고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킨다.
-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하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맡겨진 혁명고업 수행에서 주인공실을 다할 수 없게 한다.
- 종교와 미신행위가 조장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

¹²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막을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p. 6.

¹²⁹- 위의 자료, pp. 7~8.

면 당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반당반혁명적 요소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군대 내에 비사회주의적 풍조가 만연해 있고, 당국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대 내에 비사회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사회 내에 이미 서구 및 남한문화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2002년의 선동일군을 위한 『강습제강』은 군대에 자본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선전공세를 적극 전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군인들이 적방송과 텔레비전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¹³⁰

- 구분대들에서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녹음기와 텔레비존의 주 파수나 통로를 군인들이 제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신병과 운전수들을 비롯한 개별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적방송과 텔레비존을 듣거나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이색적인 녹음록화물’을 듣거나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¹³¹

- 녹음기와 녹화기가 달린 천연색텔레비존 관리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적인 군인들이 사회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과 이색적인 녹음록화물을 듣거나 보며 그것을 복사하여 류포시키는 현

¹³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p. 24.

¹³¹- 위의 자료, p. 25.

I
II
III
IV
V
VI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용차운전수, 문화기재수리원, 텔레비존중계수 등 녹음기나 녹화기, 방송설비들을 직접 다루는 군인들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셋째는 “출처 없는 시와 노래를 망탕 읊거나 부르며 류포시키는 현상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³²

- 군인들속에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보급되지 않은 시와 노래를 읊거나 부르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군인들이 혁명적인 시의 내용과 노래의 가사를 제멋대로 고쳐서 읊거나 부르는 현상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인들이 비혁명적이며 상스러운 내용으로 된 자작시를 대중앞에서 망탕 읊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새로 입대한 군인들속에서 출처없는 시와 노래를 수첩에 써가지고 다니며 읊고 부르거나 그것을 류포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는 미신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동 일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¹³³

- 군인들에게 종교와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허황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군인들이 사회사람들과 무질서하게 접촉하면서 그들이 하는 미신행위를 보고 <액막이>나 <살풀이>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군대안에 퍼진 미신행위들은 거의나 군인들이 사회사람들과의 쓸데없는 접촉과

¹³²- 위의 자료, p. 25.

¹³³- 위의 자료, pp. 25~26.

정에서 류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동일군들은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과 무질서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새로 입대한 군인들속에서 미신행위를 류포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별교양을 짜고 들어야 한다.

북한군 당국이 이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울
이는 노력은 2002년 “제국주의의 사상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
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버릴데 대하여”라는 『학습제강』에도 잘 드러
난다. 이 자료는 특이하게 ‘남조선노래를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군 내에 이미 남한 풍조가 상당히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마약을 하거나 밀매하는 자들과 도박, 미신행위를 하
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반역행위로 보고…”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로써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종교·
미신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⁴

북한 당국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부사조의 유입을 ‘적들의 심리
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당원 및 근로자에 대한 2004년의 한 『학습
제강』은 이 심리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 방법으
로 첫째, 소형라디오와 같은 방송청취수단을 수많이 들여보낸다는 것
이다. 둘째, 국경지대에서 ‘전문적으로 틀고 앉아서’ 여행객 및 밀수 등
의 경로로 녹화물, 카세트, 출판물들을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인
도주의적 지원을 이용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며, 인적 내왕과 물
자교류의 공간을 ‘비열하게 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허위와
기만선전, ‘<위력>의 과장’ 그리고 “미신을 비롯한 잡사상들과 여러
가지 류언비어들을 류포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¹³⁴ “제국주의의 사상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버릴데
대하여,” pp. 35, 44.

I
II
III
IV
V
VI

다.¹³⁵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형라디오와 불순록화물을 밀수, 밀매 하거나 내돌리고 보고 듣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들을 도와주는 극히 엄중한 행위로 보고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도 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물젖거나 말려들지 않게 가정교양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⁶

2007년의 한 『학습제강』도 ‘적’들이 인민군대의 3세, 4세 군인들에게 ‘심리모략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 방송과 이색적인 출판선전물, 록음록화물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하며,” “종교, 미신행위와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⁷ 또한 2008년의 『선동자료』에 의하면, “지금 적들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소리방송과 티 브이 방송 그리고 불순록음록화물들에 실지 있는 사실, 사건들에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거나 반대로 해석이 되게하여 혼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¹³⁸ 이 역시 북한군 내 서구 및 남한풍조가 상당히 침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 당국은 군대 내에 외부사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학습제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건은 김정일이 2009년 1월 2일 “적들에 대하여서는 털끝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

¹³⁵- “높은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심리전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 『학습제강 (당원 및 근로자)』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pp. 2~3.

¹³⁶- 위의 자료, pp. 7~8.

¹³⁷- “우리 3세, 4세 군인들을 변질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실데 대하여,” <http://218.145.28.29/news/news.html?ACT=detail&res_id=99357>.

¹³⁸- “류언비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자,” 『선동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8), p. 2.

하였고,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교양과 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이 그 어떤 잡사상과 불건전한 생활양식에 절대로 물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⁹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사회 내 청년들과 신병에 대한 사상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들을 면담한 결과, 대다수가 CD 또는 USB를 통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군에 남한문화가 상당히 퍼져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대남 심리전 방송부대에 복무하다 2010년에 입국한 사람마저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 나이 때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DVD 한 알 탁 있으면 이게 내용이 뭐냐, 한국영화인데 보겠냐. 호기심이 나서라도 갖고 와요. 우리는 부대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이랬으니까, 컴퓨터실 따로 방을 만들어 놔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고. 봐도 괜찮은 거다 하게 되면, 애들 불러다 놓고 보여요. 봐 너네도 보이구.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산항에서 어떻게 해서, 창고장 하는 애가 나한테 CD알을 쥐서 갖고 들어와서 봤는데, 한국영화 색즉시공을 제일 처음에 봤어요 내가. 2005년도인가 그때, 제일 처음에 한국 영화 본 게. 내가 사회 있을 때는 못 보고, 군에 있을 때 원산항 들어오는 영화다 해서 봤는데. 애들이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면 되니까요. 봐, 우리가 뭐 못 볼 거 보냐, 봐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디 가서 가져와요. 사관장님 이거 가져왔는데, 저녁에 조용할 때 한 번 봅시다. 그거 또 불만한 거면 보고. 통제는 해요. 장교들이. 불순녹화물이나 이런 거 보지마라. 그런데 호기심 많은 애들이 그걸 안 보고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몰래 갖고 와서 보고 보고.¹⁴⁰

¹³⁹-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에 대한 학습제강(3),” p. 4.

¹⁴⁰- 탈북자 ○○○의 증언, 2011년 7월 26일.

I
II
III
IV
V
VI

IV. 유형별 정도와 특징: 계량분석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밀자료와 탈북자의 증언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기강 해이 현상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발생할까?

발생하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제대하여 국내 입국한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5점 척도로서 그 정도를 평가했다. 예를 들면,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 대해 “매우 많았다”를 5, “대체로 많았다” 4, “보통이었다” 3, “대체로 적었다” 2, “거의 없었다”를 1로 보고 응답자의 대답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대답을 주로 계급, 병과, 복무지역 등의 배경변수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했는데, 이는 특정 유형에서 배경변수별 차이를 이해하게 해준다.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조사대상 200명의 배경변수에 관한 소개가 필요한데, 이는 후술하는 내용의 이해에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200명을 몇 가지 변수별로 보면 <표 IV-1>과 같다. 절측치는 응답자 가운데 잘못 표기하거나 응답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며 군종은 육·해·공군을 뜻한다.

표 IV-1 변수별 통계량

		학력	군종	계급	성별	복무부대(주둔지)
N	유효	188	200	191	197	190
	결측	12	0	9	3	10

200명을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이 60명, 고등중학교 졸업 75명, 대학 졸업 52명, 대학 중퇴가 1명이다.

I
II
III
IV
V
VI

표Ⅳ-2 학력별 통계량

학력		빈도(명)	비율(%)
유효	중학교졸	60	30.0
	고등학교졸	75	37.5
	대학졸	52	26.0
	대학 중퇴	1	0.5
	합계	188	94.0
결측	결측값	12	6.0
합계		200	100.0

군종별로는 육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0명 가운데 186명이고 해군 출신이 9명, 공군 출신이 5명이다. 해·공군 출신이 이처럼 적기 때문에 이하에서 논의되는 북한군 내부의 기강 해이 현상은 북한군 가운데 육군에 해당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표Ⅳ-3 군종별 통계량

군종		빈도(명)	비율(%)
유효	육군	186	93.0
	해군	9	4.5
	공군	5	2.5
합계		200	100.0

제대시 계급을 보면, 병사가 25명으로 전체의 12.5%이며 부사관이 137명으로서 200명 가운데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복

무기간이 길어 10년 가까이 장기복무할 경우 대부분 우리의 부사관으로 승진하기 때문이다. 장교 출신은 29명으로서 14.5%이다.

표Ⅳ-4 계급별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효	병사	25	12.5
	부사관	137	68.5
	장교	29	14.5
	합계	191	95.5
결측	결측값	9	4.5
합계		200	100.0

성별로 보면, 여군 출신인 13명을 제외한 184명이 남성으로서 전체의 92.0%를 차지한다.

표Ⅳ-5 성별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효	여성	13	6.5
	남성	184	92.0
	합계	197	98.5
결측	결측값	3	1.5
합계		200	100.0

복무한 부대의 주둔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명이 복무한 부대의 주둔지를 시·도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시·도별

I
II
III
IV
V
VI

주둔지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는 <IV-6>과 같다.

표 IV-6 부대주둔지(시·도)별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효	평양시	30	15.0
	평안남도	15	7.5
	평안북도	6	3.0
	자강도	2	1.0
	황해남도	20	10.0
	황해북도	25	12.5
	강원도	64	32.0
	함경남도	14	7.0
	함경북도	10	5.0
	양강도	4	2.0
	합계	190	95.0
결측	결측값	10	5.0
합계		200	100.0

위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이 적다. 따라서 이들의 응답을 부대 주둔지 별 응답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중 국경지역과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와 내부 사정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출신을 조사해 보았다. 북·중 국경지역으로는 평안북도 용천군, 신의주시, 의주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자강도 우시군, 초산군, 위원군, 시중군, 만포시, 자성군, 중

강군, 양강도 김형직군, 김정숙군, 산수군, 혜산시, 보천군, 삼지연군, 대흥단군, 함경북도 연사군, 무산군, 회령군, 회령시, 온성군, 은덕군, 새별군, 선봉군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출신을 조사했다. 특히 압록강변 지역은 용천군에서 대흥단군까지, 두만강변은 함북 연사군에서 선봉군까지로 확정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경우 서부전선은 황해남도 용진군, 강령군, 벽성군, 신원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용연군, 태탄군, 판문군, 개성시, 장풍군까지, 동부전선은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까지로 보고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복무한 부대의 주둔지 그룹별로 200명의 조사대상자를 분류하면 아래의 표 <IV-7>, <IV-8>과 같다.

표 IV-7 부대주둔지 그룹별(북중국경과 군사분계선)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효	북중국경 전체	9	4.5
	군사분계선 전체	60	30.0
	합계	69	34.5
결측	결측값	131	65.5
합계		200	100.0

I
II
III
IV
V
VI

표Ⅳ-8 부대 주둔지 그룹별(압록강변, 두만강변, 서부전선, 동부전선)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호	압록강변	3	1.5
	두만강변	6	3.0
	서부전선(군사분계선)	25	12.5
	동부전선(군사분계선)	35	17.5
	합계	69	34.5
결측	결측값	131	65.5
합계		200	100.0

마지막으로 병과별로도 살펴 보았는데 아래의 표 가운데 특수로 분류된 사람들은 우리의 경우 특전부대, 해병대 출신 등이고 기타로 분류된 사람은 통신병, 운송병, 간호병, 화생방병, 저격병 등이다.¹⁴¹

¹⁴¹-조사 당시, 병과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병과로 분류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북한군의 병과가 우리 군의 병과와 다소 달라 응답자가 자신의 병과를 자유롭게 기재하게 한 뒤 필자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 분류했다.

표Ⅳ-9 병과별 통계량

		빈도(명)	비율(%)
유효	보병	40	20.0
	포병	44	22.0
	기갑	9	4.5
	경비	33	16.5
	공병	6	3.0
	민경	2	1.0
	특수	23	11.5
	기타	33	16.5
	합계	190	95.0
결측	결측값	10	5.0
합계		200	100.0

이상과 같은 여러 배경변수 가운데 표본수가 너무 적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군종과 성별이다. 그리고 학력은 본 연구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배경변수를 제외하고 기강 해이 유형에 대한 200명 응답의 변수별 차이와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자.

1.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4.00)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라고 한다. 따라서 군에게는 혁명위업의 실현에서 절대적 존재인 수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학습제강』에서 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방침에 대해 “정당성을 의문시하거나 반신반의”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

I
II
III
IV
V
VI

적이 있다. 김정일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태만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과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하여 조사대상 200명에게 “복무한 부대 내 하급장교와 병사가 김정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성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빈도(명)	비율(%)
매우높다	55	27.5
대체로 높다	94	47.0
보통이다	47	23.5
대체로 낮다	4	2.0
매우 낮다	0	0.0
합계	200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체로 낮다”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반면 “매우 높다”라는 대답과 “대체로 높다”는 대답을 합칠 경우 74.5%에 이른다.

5가지 대답을 5점 척도로 설정하여 “매우 높다”를 5, “대체로 높다”를 4, “보통이다”를 3, “대체로 낮다”를 2, “매우 낮다”를 1로 볼 경우 5점 척도에 의한 위 대답의 평균값은 4.00이다. 즉, “대체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태만하다고 『학습제강』 등이 질타하고 있지만 이 수치로 미루어 김정일에 대한 북한군 장병들의 충성심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답을 우선 계급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매우 높다”와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병사의 경우 32.0%, 부사관의 경우 80.2%, 장교의 경우 82.8%이다. 계급이 높고 장기복무한 군인일 경우 자기가 복무한 부대 내 장병들이 김정일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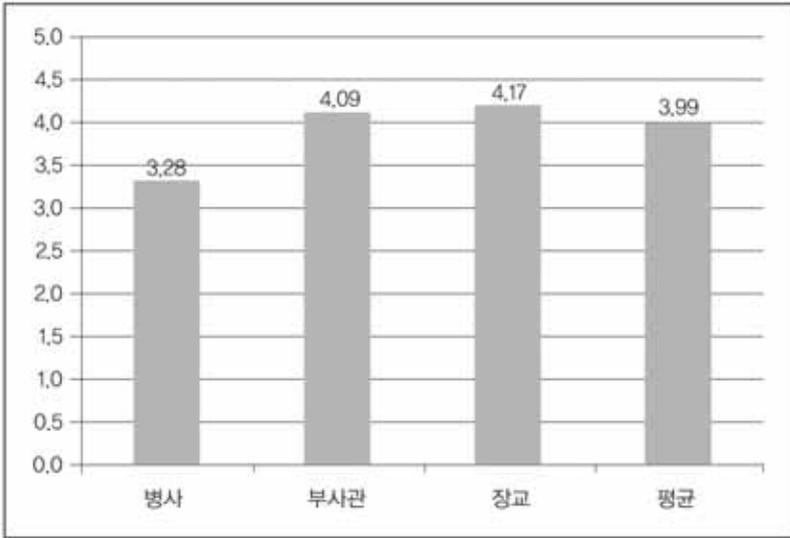
표 IV-11 계급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매우높다	대체로 높다	보통이다	대체로 낮다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1	7	15	2	25
		전체(%)	0.5%	3.7%	7.9%	1.0%	13.1%
	부사관	빈도(명)	41	69	25	2	137
		전체(%)	21.5%	36.1%	13.1%	1.0%	71.7%
	장교	빈도(명)	10	14	5	0	29
		전체(%)	5.2%	7.3%	2.6%	0.0%	15.2%
전체	빈도(명)	52	90	45	4	191	
	전체(%)	27.2%	47.1%	23.6%	2.1%	100.0%	

계급에 따른 충성도의 차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5점 척도로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IV-1> 막대그래프이다. 결측치를 뺀 전체 평균값이 3.99인데 병사들은 이보다 낮고, 부사관과 장교들은 이보다 약간 높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보유는 높은 쪽부터 장교, 부사관, 병사 순임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VI

그림 IV -1 계급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대답에서는 병과별로도 차이가 발견된다. 응답자들의 병과를 보병, 포병, 기갑, 경비, 공병, 민경, 특수,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병과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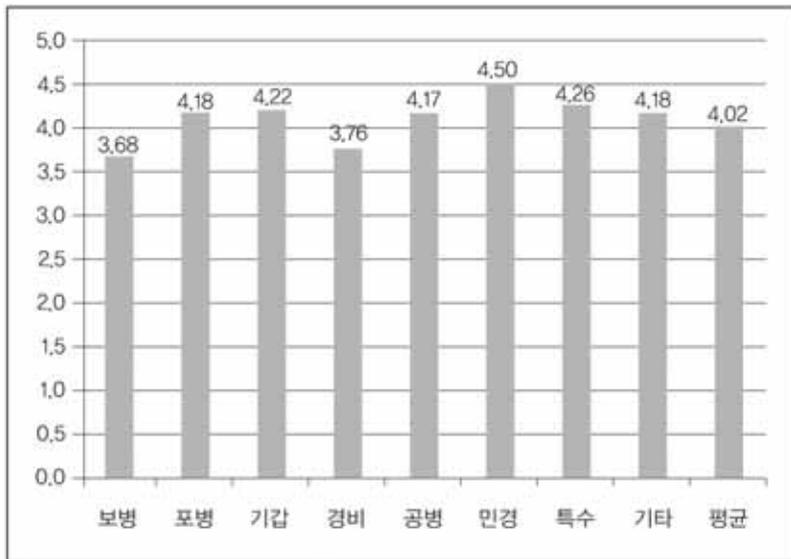
			매우높다	대체로 높다	보통이다	대체로 낮다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5	18	16	1	40
		전체(%)	2.6%	9.5%	8.4%	0.5%	21.1%
	포병	빈도(명)	14	24	6	0	44
		전체(%)	7.4%	12.6%	3.2%	0.0%	23.2%
	기갑	빈도(명)	3	5	1	0	9
		전체(%)	1.6%	2.6%	0.5%	0.0%	4.7%
	경비	빈도(명)	8	10	14	1	33
		전체(%)	4.2%	5.3%	7.4%	0.5%	17.4%
	공병	빈도(명)	1	5	0	0	6
		전체(%)	0.5%	2.6%	0.0%	0.0%	3.2%
	민경	빈도(명)	1	1	0	0	2
		전체(%)	0.5%	0.5%	0.0%	0.0%	1.1%
	특수	빈도(명)	10	9	4	0	23
		전체(%)	5.3%	4.7%	2.1%	0.0%	12.1%
	기타	빈도(명)	11	17	5	0	33
		전체(%)	5.8%	8.9%	2.6%	0.0%	17.4%
전체	빈도(명)	53	89	46	2	190	
	전체(%)	27.9%	46.8%	24.2%	1.1%	100.0%	

“매우 높다”거나 “대체로 높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보병이 57.5%, 포병이 86.4%, 기갑이 88.9%, 경비가 54.5%, 공병과 민경이 각각 100.0%, 특수가 82.6%, 기타가 84.8%이다. 이처럼 병과별로 차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병과가 국경경비를 책임지는 경비와 함께 민간인이나 사회와 접촉이 많은 보병인 것이 이채롭다.

I
II
III
IV
V
VI

이 결과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막대그래프인데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4.02임에 비해 보병은 3.68, 경비가 3.76으로 두 병과만이 평균을 밑돌고 있고 민경과 특수병과가 높다.

● 그림 IV-2 병과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전체적으로 74.5%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이는 북무부대의 주둔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주둔 지역별로 응답의 차이를 분석했다.

표 IV-13 부대주단지(시·도)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매우높다	대체로 높다	보통이다	대체로 낮다	전체
시·도별 복무부대 (주단지)	평양시	빈도(명)	12	11	6	1	30
		전체(%)	6.3%	5.8%	3.2%	0.5%	15.8%
	평안남도	빈도(명)	4	8	3	0	15
		전체(%)	2.1%	4.2%	1.6%	0.0%	7.9%
	평안북도	빈도(명)	3	1	1	1	6
		전체(%)	1.6%	0.5%	0.5%	0.5%	3.2%
	자강도	빈도(명)	0	1	1	0	2
		전체(%)	0.0%	0.5%	0.5%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6	13	1	0	20
		전체(%)	3.2%	6.8%	0.5%	0.0%	10.5%
	황해북도	빈도(명)	6	9	10	0	25
		전체(%)	3.2%	4.7%	5.3%	0.0%	13.2%
	강원도	빈도(명)	9	41	13	1	64
		전체(%)	4.7%	21.6%	6.8%	0.5%	33.7%
	함경남도	빈도(명)	7	3	4	0	14
		전체(%)	3.7%	1.6%	2.1%	0.0%	7.4%
	함경북도	빈도(명)	0	4	6	0	10
		전체(%)	0.0%	2.1%	3.2%	0.0%	5.3%
양강도	빈도(명)	1	2	0	1	4	
	전체(%)	0.5%	1.1%	0.0%	0.5%	2.1%	
전체	빈도(명)	48	93	45	4	190	
	전체(%)	25.3%	48.9%	23.7%	2.1%	100.0%	

I
II
III
IV
V
VI

표본수가 적은 자강도와 양강도, 평안북도를 제외하면 평양시 주둔 부대 출신의 응답자 가운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대답한 비율이 76.7%, 평안남도 80.0%, 황해남도 95.0%, 황해북도 60.0%, 강원도 78.1%, 함경남도 71.4%, 함경북도 40.0%이다. 평양에서 제일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와 관련한 응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주둔지를 북·중 국경지대, 남북 군사분계선, 기타 지역으로 나누고 북·중 국경지대는 다시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군사분계선 지역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었다.

표 IV-1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매우높다	대체로 높다	보통이다	대체로 낮다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0	2	0	1	3
		전체(%)	0.0%	1.0%	0.0%	0.5%	1.5%
	두만강변	빈도(명)	0	1	5	0	6
		전체(%)	0.0%	0.5%	2.5%	0.0%	3.0%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5	14	6	0	25
		전체(%)	2.5%	7.0%	3.0%	0.0%	12.5%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5	26	4	0	35
		전체(%)	2.5%	13.0%	2.0%	0.0%	17.5%
	기타	빈도(명)	45	51	32	3	131
		전체(%)	22.5%	25.5%	16.0%	1.5%	65.5%
전체	빈도(명)	55	94	47	4	200	
	전체(%)	27.5%	47.0%	23.5%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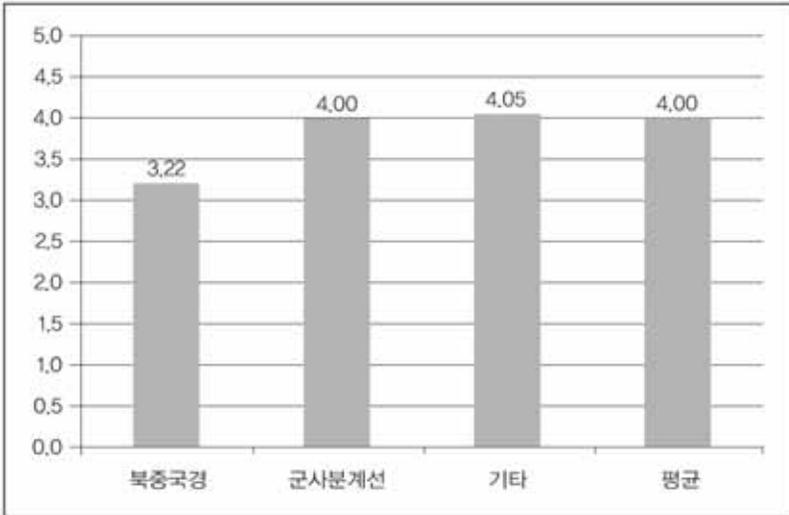
이 <표 IV-14>에서도 압록강변 주둔부대 출신 3명 가운데 2명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두만강변 주둔부대 출신의 경우는 6명 가운데 1명만이 높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함경북도 주둔 부대가 타 지역 주둔 부대보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앞의 결과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분계선 주둔부대의 경우 서부전선이나 동부전선 부대 출신 가운데 각각 76.0%, 88.6%가 높다고 응답한 것과는 비교된다. 이 표에서 북·중 국경지대와 군사분계선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응답한 평균비율은 73.3%인데 북·중 국경지대 주

I
II
III
IV
V
VI

둔 부대는 이보다 낮고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는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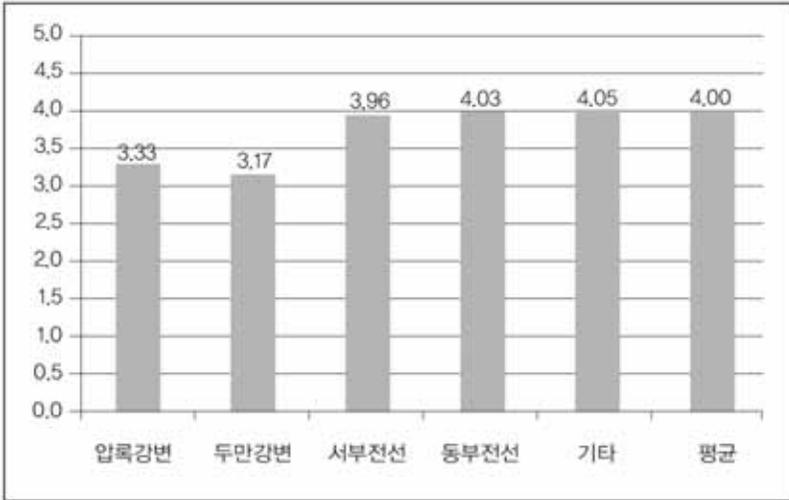
5점 척도로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와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 부대를 비교한 것은 아래의 <그림 IV-3>이다.

● **그림 IV-3**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평균 4.00에 비해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가 3.22로 낮고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다음의 <그림 IV-4>와 같이 나타난다. 두만강변 주둔부대보다 압록강변 주둔부대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IV-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2.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3.30

북한은 선군정치 하에서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군에 필요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부 군인들이 낭비하고 횡령·착복하여 자기의 잇속을 채우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경제가 낙후된 후진국가의 군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부대운용에 필요한 경비마저도 자체 조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군수물자를 착복하고 유용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 200명에게 물어보았다.

I
II
III
IV
V
VI

표 IV-15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많았다	35	17.5	17.5
	대체로 많았다	65	32.5	50.0
	보통이었다	46	23.0	73.0
	대체로 적었다	32	16.0	89.0
	거의 없었다	22	11.0	100.0
합계		200	100.0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많았다”와 “대체로 많았다”는 응답이 정확히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체로 적었다”거나 “거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치면 27.0%이다. 북한 내 부정·부패의 만연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음에 비해 설문조사 결과 나온 수치는 이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이 문항 역시 5점 척도로 “매우 많았다”를 5, “대체로 많았다”를 4, “보통이었다”를 3, “대체로 적었다”를 2, “거의 없었다”를 1로 보면 응답의 전체 평균은 3.30이다. 3.30이란 ‘보통’보다 약간 많다는 의미이다.

이 문항에 대한 대답은 계급이나 병과, 부대의 주둔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즉, 계급이 높을수록, 물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병과일수록, 평양 등 중앙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에 주둔하여 감시의 눈이 삼엄하지 않을수록 착복하고 유용하는 일이 많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런 변수별로 응답을 분석했는데 먼저 계급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 IV-16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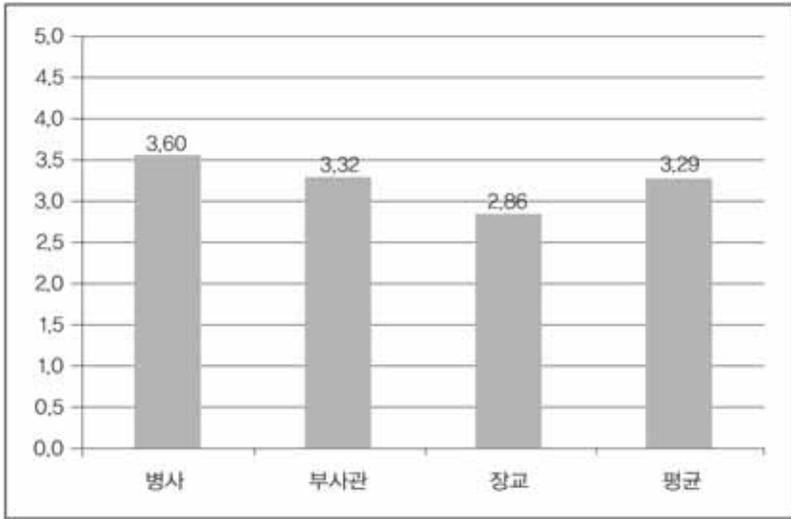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4	9	10	2	0	25
		전체(%)	2.1%	4.7%	5.2%	1.0%	0.0%	13.1%
	부사관	빈도(명)	26	47	25	23	16	137
		전체(%)	13.6%	24.6%	13.1%	12.0%	8.4%	71.7%
	장교	빈도(명)	3	6	9	6	5	29
		전체(%)	1.6%	3.1%	4.7%	3.1%	2.6%	15.2%
전체	빈도(명)	33	62	44	31	21	191	
	전체(%)	17.3%	32.5%	23.0%	16.2%	11.0%	100.0%	

병사의 경우, 많았다는 응답을 한 병사는 25명 가운데 13명으로 52.0%이다. 부사관의 경우는 53.3%, 장교의 경우는 31.0%이다. 장교의 비율이 낮은 것은 북한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대운영비를 조달한 다거나 부대운영과 관련된 물자의 배급과 처분은 사관장 등의 부사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장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적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이를 좀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계급별 5점 척도로 산출된 수치인데 다음의 <그림 IV-5>이다.

I
II
III
IV
V
VI

● 그림 IV-5 군사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이 3.29인데 병사는 3.60, 부사관 3.32, 장교 2.86이다. 장교의 경우 2.86은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보통’보다는 약간 적다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계급에 이어 병과별로 보면, 다음의 <표 IV-17>과 같이 “많았다”는 대답이 표본수가 적은 공병과 민경을 제외하면 보병의 경우 50.0%, 포병은 61.4%, 기갑이 66.7%, 경비가 51.5%, 특수가 43.5%, 기타가 30.3%이다. 포병과 기갑병과가 보병이나 경비보다 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다고 응답한 것에서 두 병과가 처분할 수 있는 물자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연료 부족 등 부대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IV-17 병과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8	12	8	9	3	40
		전체(%)	4.2%	6.3%	4.2%	4.7%	1.6%	21.1%
	포병	빈도(명)	8	19	9	6	2	44
		전체(%)	4.2%	10.0%	4.7%	3.2%	1.1%	23.2%
	기갑	빈도(명)	1	5	1	2	0	9
		전체(%)	0.5%	2.6%	0.5%	1.1%	0.0%	4.7%
	경비	빈도(명)	5	12	8	4	4	33
		전체(%)	2.6%	6.3%	4.2%	2.1%	2.1%	17.4%
	공병	빈도(명)	1	2	2	1	0	6
		전체(%)	0.5%	1.1%	1.1%	0.5%	0.0%	3.2%
	민경	빈도(명)	0	1	1	0	0	2
		전체(%)	0.0%	0.5%	0.5%	0.0%	0.0%	1.1%
	특수	빈도(명)	5	5	5	2	6	23
		전체(%)	2.6%	2.6%	2.6%	1.1%	3.2%	12.1%
기타	빈도(명)	3	7	9	7	7	33	
	전체(%)	1.6%	3.7%	4.7%	3.7%	3.7%	17.4%	
전체	빈도(명)	31	63	43	31	22	190	
	전체(%)	16.3%	33.2%	22.6%	16.3%	11.6%	100.0%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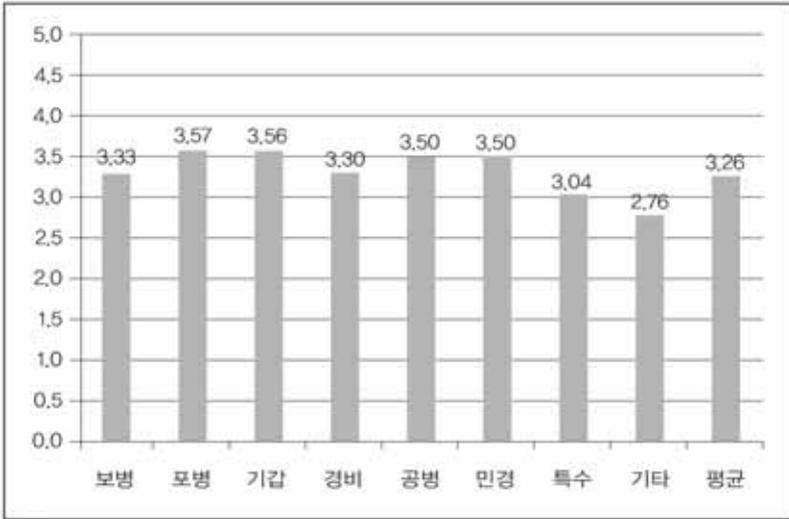
IV

V

VI

이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IV-6>의 막대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평균 3.26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포병과 기갑병과라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그림 IV-6 병과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한편, 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전방부대와 후방부대가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부대의 주둔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V-18 부대주둔지(시·도)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 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평양시	빈도(명)	3	8	5	7	7	30
		전체(%)	1.6%	4.2%	2.6%	3.7%	3.7%	15.8%
	평안남도	빈도(명)	1	6	6	1	1	15
		전체(%)	0.5%	3.2%	3.2%	0.5%	0.5%	7.9%
	평안북도	빈도(명)	2	1	1	2	0	6
		전체(%)	1.1%	0.5%	0.5%	1.1%	0.0%	3.2%
	자강도	빈도(명)	1	0	0	1	0	2
		전체(%)	0.5%	0.0%	0.0%	0.5%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1	1	9	6	3	20
		전체(%)	0.5%	0.5%	4.7%	3.2%	1.6%	10.5%
	황해북도	빈도(명)	4	11	6	4	0	25
		전체(%)	2.1%	5.8%	3.2%	2.1%	0.0%	13.2%
	강원도	빈도(명)	17	26	9	7	5	64
		전체(%)	8.9%	13.7%	4.7%	3.7%	2.6%	33.7%
	함경남도	빈도(명)	1	7	3	2	1	14
		전체(%)	0.5%	3.7%	1.6%	1.1%	0.5%	7.4%
	함경북도	빈도(명)	3	2	5	0	0	10
		전체(%)	1.6%	1.1%	2.6%	0.0%	0.0%	5.3%
양강도	빈도(명)	1	1	1	0	1	4	
	전체(%)	0.5%	0.5%	0.5%	0.0%	0.5%	2.1%	
전체	빈도(명)	34	63	45	30	18	190	
	전체(%)	17.9%	33.2%	23.7%	15.8%	9.5%	100.0%	

I
II
III
IV
V
VI

표본수가 적은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하고 평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 30명 가운데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으로 36.7%, 평안남도 46.7%, 평안북도는 50.0%, 황해남도는 10.0%, 황해북도 60.0%, 강원도 67.2%, 함경남도 57.1%, 함경북도 50.0%이다. 평양시 주둔부대의 부대 내 비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나 황해남도 주둔부대에서 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낮은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황해남도가 부대 군기가 셀 수 밖에 없는 군사분계선과 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시 북·중 국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표 IV-19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4	2	3	0	0	9
		전체(%)	2.0%	1.0%	1.5%	0.0%	0.0%	4.5%
	군사분계선	빈도(명)	12	23	12	9	4	60
		전체(%)	6.0%	11.5%	6.0%	4.5%	2.0%	30.0%
	기타	빈도(명)	19	40	31	23	18	131
		전체(%)	9.5%	20.0%	15.5%	11.5%	9.0%	65.5%
전체		빈도(명)	35	65	46	32	22	200
		전체(%)	17.5%	32.5%	23.0%	16.0%	11.0%	100.0%

위의 <표 IV-19>에서 보듯이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의 경우는 “많았다”(“매우 많았다”와 “대체로 많았다”)는 응답이 66.7%, 군사분

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는 58.3%이다. 전체적으로 “많았다”고 응답한 평균 비율이 50.0%임을 감안하면 양 지역 모두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양 지역을 좀 더 세분하여 4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표 IV-20>과 같다.

표 IV-20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 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2	1	0	0	0	3
		전체(%)	1.0%	0.5%	0.0%	0.0%	0.0%	1.5%
	두만강변	빈도(명)	2	1	3	0	0	6
		전체(%)	1.0%	0.5%	1.5%	0.0%	0.0%	3.0%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3	7	9	5	1	25
		전체(%)	1.5%	3.5%	4.5%	2.5%	0.5%	12.5%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9	16	3	4	3	35
		전체(%)	4.5%	8.0%	1.5%	2.0%	1.5%	17.5%
기타	빈도(명)	19	40	31	23	18	131	
	전체(%)	9.5%	20.0%	15.5%	11.5%	9.0%	65.5%	
전체	빈도(명)	35	65	46	32	22	200	
	전체(%)	17.5%	32.5%	23.0%	16.0%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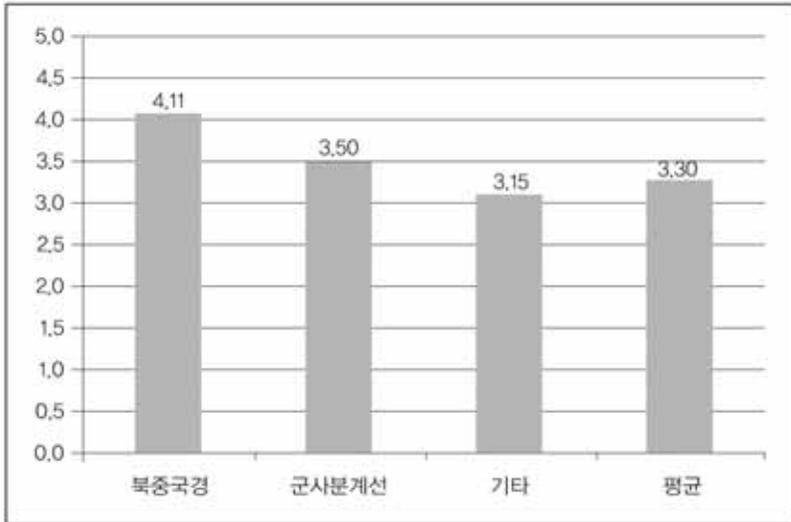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 3명 모두 “많았다”고 응답했고, 두만강변 부대 출신은 6명 가운데 3명이, 군사분계선 서부전선의 경우는 25명 가운데 10명이, 동부전선은 35명 가운데 25명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압록강변 부대는 100%, 두만강변은 절반, 서부전선 부대

I
II
III
IV
V
VI

는 40.0%, 동부전선 부대는 71.4%이다. 지역적으로 강원도, 특히 군사 분계선 동부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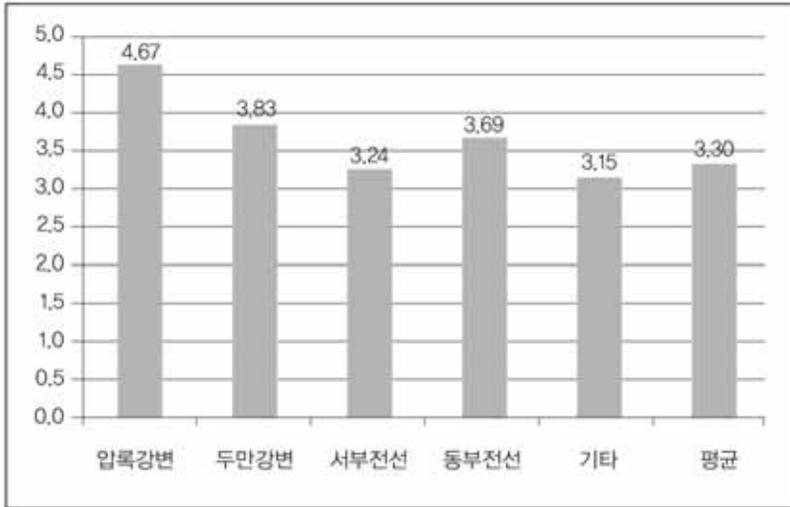
이 차이를 5점 척도로 보면 좀 더 선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음의 <그림 IV-7>, <그림 IV-8>의 두 그래프이다.

● **그림 IV-7**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평균 3.30보다 약간 높게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 3.50,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4.11로 나타났다.

● 그림 IV-8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두만강변보다는 압록강변 주둔부대에서, 군사 분계선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가운데에서는 동부전선 부대가 서부전선 부대보다 약간 높다. 그만큼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다는 의미이다.

3. 대민피해: 3.28

‘선군정치’ 하의 군대는 “사회주의 수호자로서만 아니라 행복의 창조자”로서¹⁴² 그동안 각종 건설에 투입되어 왔고 부진한 농업생산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농장에도 파견되어 왔다.

¹⁴² 김철우, 앞의 책, p. 39.

I
II
III
IV
V
VI

군의 대민접촉이 늘어나고 식량난이 군대에까지 파급되면서 ‘인민의 군대’를 자처하는 북한군이 민간인에 각종 횡포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민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민’(援民)과 ‘원군’(援軍)을 강조하고 ‘군민일치’를 부르짖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대민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복무한 부대에서 민가를 약탈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등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대답의 선택지로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를 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1 대민피해 정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많았다	50	25.0	25.0
	대체로 많았다	51	25.5	50.5
	보통이었다	39	19.5	70.0
	대체로 적었다	24	12.0	82.0
	거의 없었다	36	18.0	100.0
합계		200	100.0	

위의 <표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많았다”는 대답과 “대체로 많았다”는 대답이 각각 25.0%와 25.5%로 둘을 합치면 50.5%이다. 앞의 항목인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을 인정한 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5점 척도로 보아도 비슷한데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3.30이고 대

민피해의 수치는 3.28이다. ‘보통’보다 약간 많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 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군 관련 정보 가운데에는 북한군의 대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데 이 수치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계급별로 비교해 보면, 병사의 경우 25명 가운데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 부사관의 경우 54.0%, 장교의 경우 31.0%로서 이 역시 앞의 항목인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서 나타난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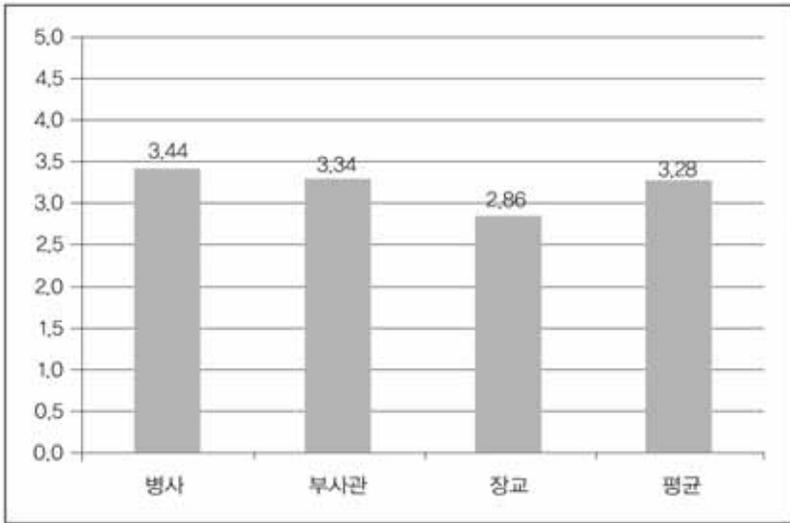
표 IV-22 대민피해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 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2	12	8	1	2	25
		전체(%)	1.0%	6.3%	4.2%	0.5%	1.0%	13.1%
	부사관	빈도(명)	41	33	21	15	27	137
		전체(%)	21.5%	17.3%	11.0%	7.9%	14.1%	71.7%
	장교	빈도(명)	5	4	7	8	5	29
		전체(%)	2.6%	2.1%	3.7%	4.2%	2.6%	15.2%
전체		빈도(명)	48	49	36	24	34	191
		전체(%)	25.1%	25.7%	18.8%	12.6%	17.8%	100.0%

계급별로 보인 응답의 차이를 5점 척도로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IV-9>의 그래프이다. 평균 3.28보다 북한군의 대민피해에 대해 병사 출신은 약간 많다고, 장교 출신은 약간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I
II
III
IV
V
VI

● 그림 IV-9 대민피해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한편,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병과별로 보면, <표 IV-23>에서와 같이 표본수가 적은 공병과 민경을 제외하고 보병이 60.0%, 포병 61.4%, 기갑 88.9%, 경비 45.5%, 특수 52.2%, 기타가 21.2%이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 비교하면 구체적 수치는 약간 다르나 병과별 응답의 전반적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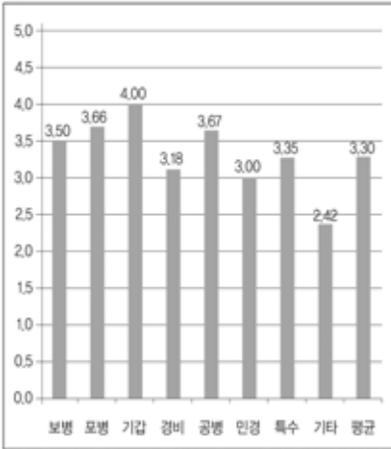
표 IV-23 병과별 대민피해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 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10	14	7	4	5	40
		전체(%)	5.3%	7.4%	3.7%	2.1%	2.6%	21.1%
	포병	빈도(명)	16	11	8	4	5	44
		전체(%)	8.4%	5.8%	4.2%	2.1%	2.6%	23.2%
	기갑	빈도(명)	3	5	0	0	1	9
		전체(%)	1.6%	2.6%	0.0%	0.0%	0.5%	4.7%
	경비	빈도(명)	7	8	8	4	6	33
		전체(%)	3.7%	4.2%	4.2%	2.1%	3.2%	17.4%
	공병	빈도(명)	1	2	3	0	0	6
		전체(%)	0.5%	1.1%	1.6%	0.0%	0.0%	3.2%
	민경	빈도(명)	0	0	2	0	0	2
		전체(%)	0.0%	0.0%	1.1%	0.0%	0.0%	1.1%
	특수	빈도(명)	7	5	4	3	4	23
		전체(%)	3.7%	2.6%	2.1%	1.6%	2.1%	12.1%
	기타	빈도(명)	4	3	7	8	11	33
		전체(%)	2.1%	1.6%	3.7%	4.2%	5.8%	17.4%
전체	빈도(명)	48	48	39	23	32	190	
	전체(%)	25.3%	25.3%	20.5%	12.1%	1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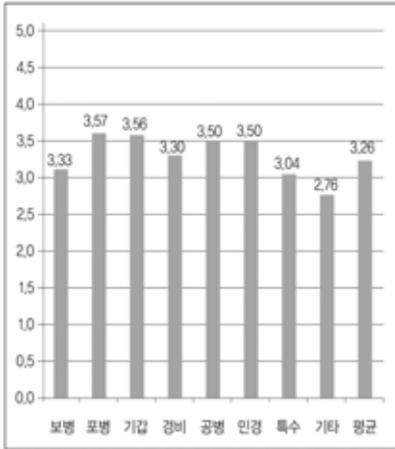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병과별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 아래 왼쪽 <그림 IV-10>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앞서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서 보여준 것(<그림 IV-6>)인데 양쪽을 함께 보면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그림 IV-10** 병과별 대민피해 정도



● **그림 IV-6** 병과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 정도



이러한 경향은 주둔지역별로 나타난 수치에서도 발견된다. 표본수가 적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제외하면 평양시 주둔부대의 경우 “많았다”는 응답이 26.7%, 평안남도 60.0%, 평안북도 50.0%, 황해남도 20.0%, 황해북도 56.0%, 강원도 70.3%, 함경남도 42.9%, 함경북도 50.0%이다. 황해남도 주둔부대가 제일 낮고 그 다음 낮은 순위가 평양시 주둔부대이며 강원도 주둔부대에서 제일 많이 자행되고 있는 점이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서 나타난 순위와 동일한 것이다.

표 IV-24 부대주둔지(시·도)별 대민피해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 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평양시	빈도(명)	3	5	4	6	12	30
		전체(%)	1.6%	2.6%	2.1%	3.2%	6.3%	15.8%
	평안남도	빈도(명)	6	3	1	1	4	15
		전체(%)	3.2%	1.6%	0.5%	0.5%	2.1%	7.9%
	평안북도	빈도(명)	1	2	2	1	0	6
		전체(%)	0.5%	1.1%	1.1%	0.5%	0.0%	3.2%
	자강도	빈도(명)	1	0	1	0	0	2
		전체(%)	0.5%	0.0%	0.5%	0.0%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1	3	8	5	3	20
		전체(%)	0.5%	1.6%	4.2%	2.6%	1.6%	10.5%
	황해북도	빈도(명)	3	11	7	1	3	25
		전체(%)	1.6%	5.8%	3.7%	0.5%	1.6%	13.2%
	강원도	빈도(명)	30	15	12	2	5	64
		전체(%)	15.8%	7.9%	6.3%	1.1%	2.6%	33.7%
	함경남도	빈도(명)	1	5	1	6	1	14
		전체(%)	0.5%	2.6%	0.5%	3.2%	0.5%	7.4%
	함경북도	빈도(명)	3	2	2	2	1	10
		전체(%)	1.6%	1.1%	1.1%	1.1%	0.5%	5.3%
양강도	빈도(명)	1	2	0	0	1	4	
	전체(%)	0.5%	1.1%	0.0%	0.0%	0.5%	2.1%	
전체	빈도(명)	50	48	38	24	30	190	
	전체(%)	26.3%	25.3%	20.0%	12.6%	15.8%	100.0%	

I
II
III
IV
V
VI

앞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대민피해 사례가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와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IV-25>와 같다.

표 IV-25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대민피해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 이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4	2	2	1	0	9
		전체(%)	2.0%	1.0%	1.0%	0.5%	0.0%	4.5%
	군사분계선	빈도(명)	18	17	16	4	5	60
		전체(%)	9.0%	8.5%	8.0%	2.0%	2.5%	30.0%
	기타	빈도(명)	28	32	21	19	31	131
		전체(%)	14.0%	16.0%	10.5%	9.5%	15.5%	65.5%
전체	빈도(명)	50	51	39	24	36	200	
	전체(%)	25.0%	25.5%	19.5%	12.0%	18.0%	100.0%	

북중국경 주둔부대 출신의 경우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 출신의 경우 58.3%로서 앞의 항목, 즉 군수 물자의 착복과 유용에서 보인 반응과 동일하다.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으로 나누고, 군사분계선 일대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다시 나누어 조사한 결과도 앞의 항목과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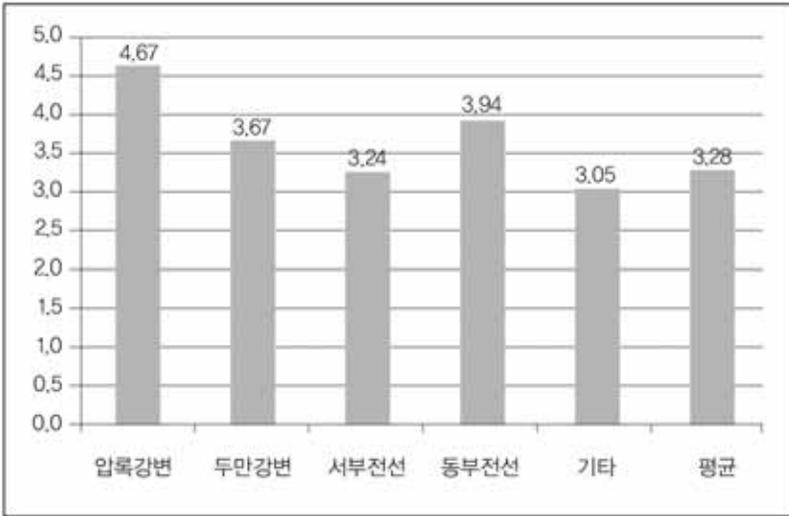
표 IV-26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대민피해 정도

			매우 많았다	대체로 많았다	보통이 었다	대체로 적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2	1	0	0	0	3
		전체(%)	1.0%	0.5%	0.0%	0.0%	0.0%	1.5%
	두만강변	빈도(명)	2	1	2	1	0	6
		전체(%)	1.0%	0.5%	1.0%	0.5%	0.0%	3.0%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2	9	9	3	2	25
		전체(%)	1.0%	4.5%	4.5%	1.5%	1.0%	12.5%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16	8	7	1	3	35
		전체(%)	8.0%	4.0%	3.5%	0.5%	1.5%	17.5%
	기타	빈도(명)	28	32	21	19	31	131
		전체(%)	14.0%	16.0%	10.5%	9.5%	15.5%	65.5%
전체	빈도(명)	50	51	39	24	36	200	
	전체(%)	25.0%	25.5%	19.5%	12.0%	18.0%	100.0%	

5점 척도로 계산된 수치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IV-11>인데
평균 3.28에 비해 압록강변 주둔부대가 가장 높은 4.67이다. 압록강변
주둔부대가 그만큼 대민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I
II
III
IV
V
VI

● 그림 IV -11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대민피해 정도



그리고 이와 같이 각기 여러 변수별로 나누어 분석해도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이라는 항목과 대민피해 항목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변수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군수물자를 착복하고 유용하는 부대가 외부적으로는 민가를 약탈하거나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부대 내 음주: 3.16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군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비행과 범죄 행위의 많은 원인이 음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인지 군 내부 문건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의 하나가 음주행위이다.

음주는 사병 뿐 아니라 장교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고 선군정치로 인해 군대와 사회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더욱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원이나 대외작업 등 사회에 대한 군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군인들이 민간인의 집에 드나들고 접촉하는 회수가 많아진 것이 군대 안에 술을 끌어들이고 군인들이 술을 입에 대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 내 음주가 행해지는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매주 행해지거나 한 달에 2~3회 꼴로 행해져 비교적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에 이른다.

표 IV-27 부대 내 음주 정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많음(거의 매주)	29	14.5	14.6
	많음(한 달 2-3회)	73	36.5	51.5
	보통(한 달 1회)	37	18.5	70.2
	적음(1년중 가끔)	19	9.5	79.8
	없음	40	20.0	100.0
	합계	198	99.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1.0	
합계		200	100.0	

이 역시 “매우 많다”를 5, “많다”를 4, “보통”을 3, “적다”를 2, “없다”를 1로 설정하고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산출하면 3.16이 된다. ‘보통’ 정도에 가깝다는 뜻이다. 필자가 직접 면접한 11명의 탈북군인 대부분은 음주 행위의 만연을 인정했는데 이에 비추어 설문조사 결과 나온

I
II
III
IV
V
VI

이 수치는 다소 의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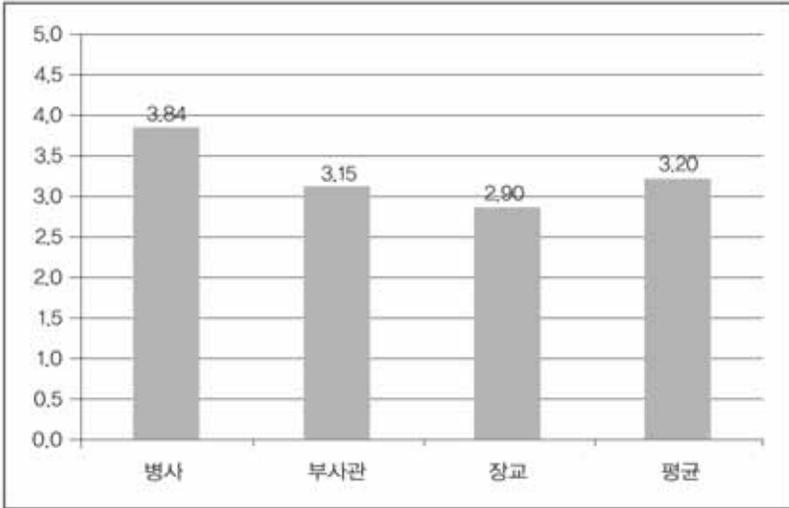
이 결과를 계급별로 보면, 병사의 경우 음주행위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 부사관의 경우는 51.5%, 장교의 경우는 34.5%이다. 병사들이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훨씬 더 많이 부대 내 음주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장교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몰래 숨어하는 병사들의 음주행위를 모르거나 애써 자신들이 지휘한 부대 내 치부를 외면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대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8 음주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2	18	4	1	0	25
		전체(%)	1.1%	9.5%	2.1%	0.5%	0.0%	13.2%
	부사관	빈도(명)	21	49	25	11	30	136
		전체(%)	11.1%	25.8%	13.2%	5.8%	15.8%	71.6%
	장교	빈도(명)	6	4	6	7	6	29
		전체(%)	3.2%	2.1%	3.2%	3.7%	3.2%	15.3%
전체	빈도(명)	29	71	35	19	36	190	
	전체(%)	15.3%	37.4%	18.4%	10.0%	18.9%	100.0%	

음주성행 여부에 관한 응답의 계급별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V-12>의 그래프가 된다.

●그림 IV-12 음주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평균 3.20에 비해 병사는 약간 높은 3.84, 부사관과 장교는 평균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여기서 병사 출신들조차도 음주행위가 “많다”(4.00)고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병과별로는 다음의 <표 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수가 적은 공병과 민경을 제외하고 보병의 경우 61.5%, 포병 53.5%, 기갑 77.8%, 경비 60.6%, 특수 30.4%, 기타 39.4%가 부대 내 음주행위가 많다고 응답했다. 앞의 문항에서의 응답과 같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갑과 보병병과에서 기강 해이 현상이 다른 병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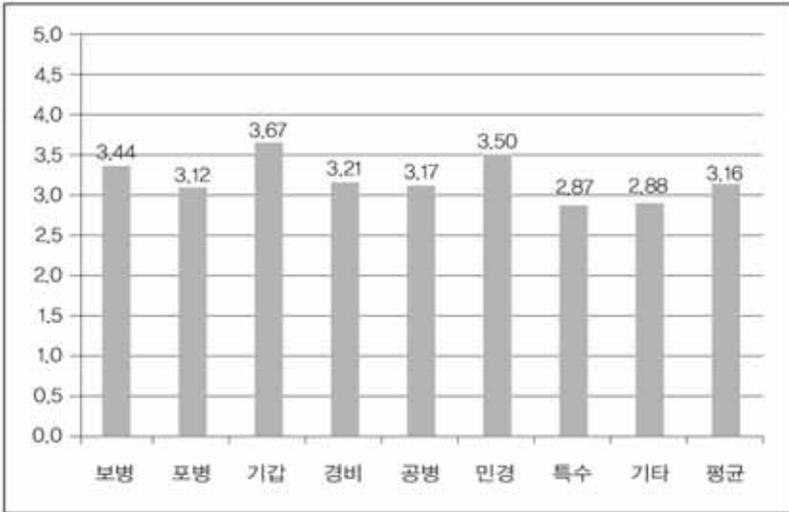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표 IV-29 병과별 음주 정도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7	17	7	2	6	39
		전체(%)	3.7%	9.0%	3.7%	1.1%	3.2%	20.7%
	포병	빈도(명)	10	13	4	4	12	43
		전체(%)	5.3%	6.9%	2.1%	2.1%	6.4%	22.9%
	기갑	빈도(명)	1	6	1	0	1	9
		전체(%)	0.5%	3.2%	0.5%	0.0%	0.5%	4.8%
	경비	빈도(명)	3	17	4	2	7	33
		전체(%)	1.6%	9.0%	2.1%	1.1%	3.7%	17.6%
	공병	빈도(명)	0	2	3	1	0	6
		전체(%)	0.0%	1.1%	1.6%	0.5%	0.0%	3.2%
	민경	빈도(명)	0	1	1	0	0	2
		전체(%)	0.0%	0.5%	0.5%	0.0%	0.0%	1.1%
	특수	빈도(명)	4	3	8	2	6	23
		전체(%)	2.1%	1.6%	4.3%	1.1%	3.2%	12.2%
	기타	빈도(명)	2	11	8	5	7	33
		전체(%)	1.1%	5.9%	4.3%	2.7%	3.7%	17.6%
전체	빈도(명)	27	70	36	16	39	188	
	전체(%)	14.4%	37.2%	19.1%	8.5%	20.7%	100.0%	

병과별로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IV-13>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보병과 기갑병과에서 다른 병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행위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IV-13 병과별 음주 정도



부대의 주둔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주둔지역을 시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본수가 적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제외하고 평양시 주둔부대 출신 경우 33.3%, 평안남도 주둔부대 출신의 46.7%, 평안북도 주둔부대 출신의 50.0%, 황해남도 주둔부대 출신의 30.0%, 황해북도 주둔부대 출신의 52.0%, 강원도 주둔부대 출신의 66.1%, 함경남도 주둔부대 출신의 42.9%, 함경북도 주둔부대 출신의 90.0%가 부대 내 음주행위가 많이 벌어진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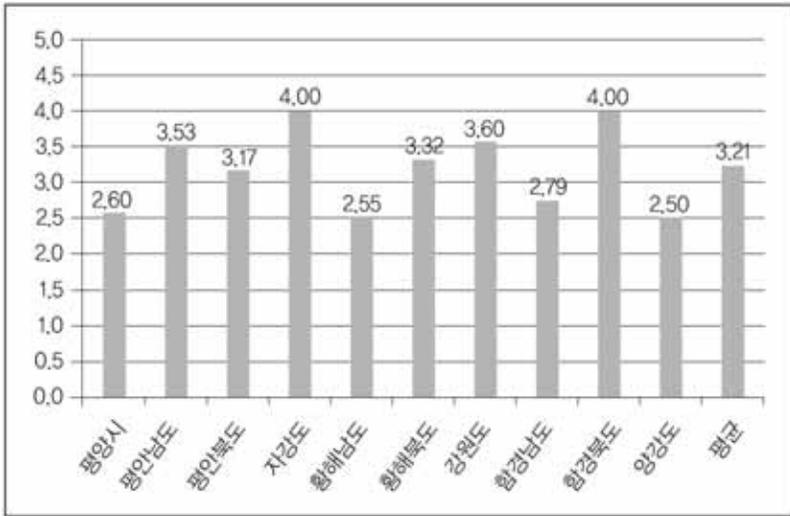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표 IV-30 부대주둔지(시·도)별 음주 정도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전체
주둔지	평양시	빈도(명)	2	8	6	4	10	30
		전체(%)	1.1%	4.3%	3.2%	2.1%	5.3%	16.0%
	평안남도	빈도(명)	4	3	5	3	0	15
		전체(%)	2.1%	1.6%	2.7%	1.6%	0.0%	8.0%
	평안북도	빈도(명)	1	2	1	1	1	6
		전체(%)	0.5%	1.1%	0.5%	0.5%	0.5%	3.2%
	자강도	빈도(명)	0	2	0	0	0	2
		전체(%)	0.0%	1.1%	0.0%	0.0%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0	6	5	3	6	20
		전체(%)	0.0%	3.2%	2.7%	1.6%	3.2%	10.6%
	황해북도	빈도(명)	4	9	7	1	4	25
		전체(%)	2.1%	4.8%	3.7%	0.5%	2.1%	13.3%
	강원도	빈도(명)	14	27	10	4	7	62
		전체(%)	7.4%	14.4%	5.3%	2.1%	3.7%	33.0%
	함경남도	빈도(명)	1	5	2	2	4	14
		전체(%)	0.5%	2.7%	1.1%	1.1%	2.1%	7.4%
	함경북도	빈도(명)	3	6	0	0	1	10
		전체(%)	1.6%	3.2%	0.0%	0.0%	0.5%	5.3%
양강도	빈도(명)	0	2	0	0	2	4	
	전체(%)	0.0%	1.1%	0.0%	0.0%	1.1%	2.1%	
전체	빈도(명)	29	70	36	18	35	188	
	전체(%)	15.4%	37.2%	19.1%	9.6%	18.6%	100.0%	

시·도별 차이를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 5점 척도로 표시한 다음 <그림 IV-14>의 막대그래프이다.

●그림 IV -14 부대주둔지(시·도)별 음주 정도



시·도의 평균(3.21)에 비추어 평양시와 황해남도가 훨씬 낮고 함경북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음주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의 문항에 대한 응답과 종합해서 보면, 대체로 황해남도와 평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군 기강 해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강원도와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기강 해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행위는 전방부대보다는 후방부대에서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검증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의 응답을 비교해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의 <표 IV-31>과 같다.

- I
- II
- III
- IV
- V
- VI

표 IV-31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음주 정도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1	7	0	0	1	9
		전체(%)	1.5%	10.4%	0.0%	0.0%	1.5%	13.4%
	군사분계선	빈도(명)	14	23	10	4	7	58
		전체(%)	20.9%	34.3%	14.9%	6.0%	10.4%	86.6%
전체		빈도(명)	15	30	10	4	8	67
		전체(%)	22.4%	44.8%	14.9%	6.0%	11.9%	100.0%

위의 <표 IV-31>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의 88.9%가 부대 내 음주행위가 많다고 대답한 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의 경우는 그보다 상당히 적은 63.8%가 부대 내 음주행위가 많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방부대 출신의 경우도 63.8%가 부대 내 음주행위가 많다고 응답해 북한군 전체에서 음주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V-32>는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으로, 군사분계선 일대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의 응답을 비교한 것인데 압록강변보다는 두만강변, 서부전선보다는 동부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음주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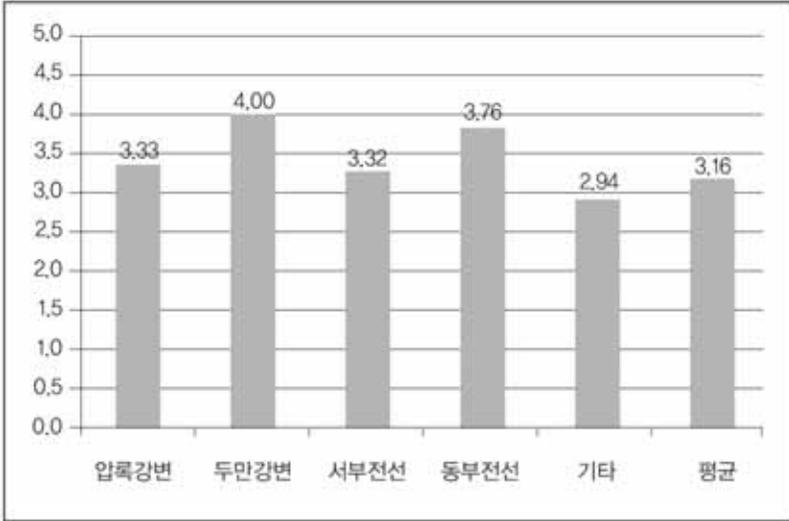
표 IV-32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음주 정도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없음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1	1	0	0	1	3
		전체(%)	0.5%	0.5%	0.0%	0.0%	0.5%	1.5%
	두만강변	빈도(명)	0	6	0	0	0	6
		전체(%)	0.0%	3.0%	0.0%	0.0%	0.0%	3.0%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3	11	5	3	3	25
		전체(%)	1.5%	5.6%	2.5%	1.5%	1.5%	12.6%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11	12	5	1	4	33
		전체(%)	5.6%	6.1%	2.5%	0.5%	2.0%	16.7%
	기타	빈도(명)	14	43	27	15	32	131
		전체(%)	7.1%	21.7%	13.6%	7.6%	16.2%	66.2%
전체	빈도(명)	29	73	37	19	40	198	
	전체(%)	14.6%	36.9%	18.7%	9.6%	20.2%	100.0%	

이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그래프로 보면 다음 <그림 IV-15>와 같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 그림 IV -15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음주 정도



평균이 3.16인 것에 비해 두만강변 주둔부대의 경우 4.00으로 가장 높다. 4.00은 부대 내 음주행위가 한 달에 2~3회로 많이 벌어지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을 나타낸다.

5. 구타: 2.80

『학습제강』 등 북한군 내부 문건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타 등 가혹행위의 근절이다. 가혹행위로 인해 장교와 병사 간, 그리고 병사 상호 간 관계에서 증오가 쌓인다면 군의 단합과 조직력에 치명적이다.

조사대상 200명에게 “부대 내 구타행위는 어느 정도 었습니까?”고 묻고 다음의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대답 선택지를

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3 구타 정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많음	15	7.5	7.5
	많은 편임	55	27.5	35.0
	보통	43	21.5	56.5
	적은 편임	49	24.5	81.0
	거의 없음	38	19.0	100.0
합계		200	100.0	

“매우 많다”거나 “많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구타행위의 만연을 인정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35.0%이고 “적은 편”이거나 “거의 없다”고 부정한 비율이 43.5%로서 부정한 쪽이 더 많다.

이를 5점 척도로 설정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2.80인데 이는 “적은 편”이 2, ‘보통’을 3으로 설정했을 때 적은 편에서 보통에 가깝게 이동한 수치이다. 즉, 구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수준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구타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대에서는 으레 있는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그것이 병사들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구타행위가 병사들의 상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군대에서는 으레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와 “구타 당하는 병사들의 불만이 커서 상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의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다음의 <표 IV-34>는 그 결과를 작성한 것이다.

I
II
III
IV
V
VI

표Ⅳ-34 구타행위가 병사 상호 간에 주는 영향 정도

		빈도(명)	비율(%)
유효	별 영향 없음	77	38.5
	큰 영향을 미침	54	27.0
	합계	131	65.5
결측	결측값	69	34.5
합계		200	100.0

유효한 대답을 한 131명 가운데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7명으로서 38.5%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54명으로서 27.0%이다.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소 많은 편이지만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한편, 군대 사기와 전투력은 병사들 간 상호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병사들이 전우애로 뭉쳐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면 여러 일탈행위와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없게 된다.

최근 우리 해병대에서 일어난 참사의 원인이 ‘기수열외’라고 한다. 병사들 간 관계가 상호 신뢰가 아니라 증오로 가득차고 서로를 원망한다면 그 부대의 전투력이나 사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군에서도 병사 상호 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고참 병사는 신참 병사를 사랑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임 병사는 선임 병사에 대해 존경과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 가늠자로서 우리 군대에서처럼 병사 간의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설문조사 대상 200명에게 “고참과 신참 병사 간 관계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고 묻고, “매우 좋았다”, “좋은 편이었다”, “보

통이었다”, “좋지 않은 편이었다”, “매우 좋지 않았다”는 대답 가운데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이 다음의 <표 IV-35>이다.

표 IV-35 병사 간 관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좋음	17	8.5	8.5
	좋은 편임	76	38.0	46.5
	보통	81	40.5	87.0
	좋지 않음	25	12.5	99.5
	매우 좋지 않음	1	0.5	100.0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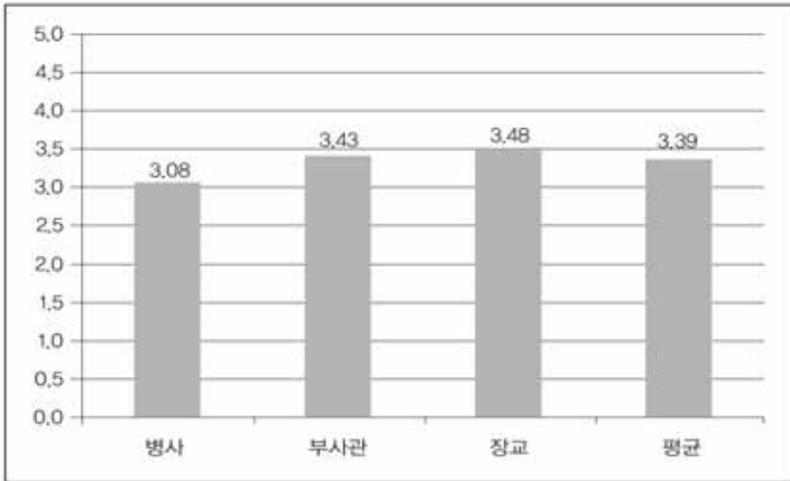
위의 <표 IV-35>에서 나타나듯 “매우 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8.5%, “좋은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8.0%로서 양자를 더하면 46.5%가 된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40.5%이고,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0%에 불과하다.

이를 다른 항목에서처럼 5점 척도로 나타내기 위해 “매우 좋았다”를 5, “좋은 편이었다”를 4, “보통이었다”를 3, “좋지 않은 편이었다”를 2, “매우 좋지 않았다”를 1로 설정하면 전체 평균값은 3.42가 된다. “보통이었다”와 “좋은 편이었다”의 중간 정도인 수치이다.

계급별로 보면, 다른 항목에서 나타난 응답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그래프 <그림 IV-16>은 계급별로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병사보다는 부사관이, 부사관보다는 장교 출신들이 약간씩 병사간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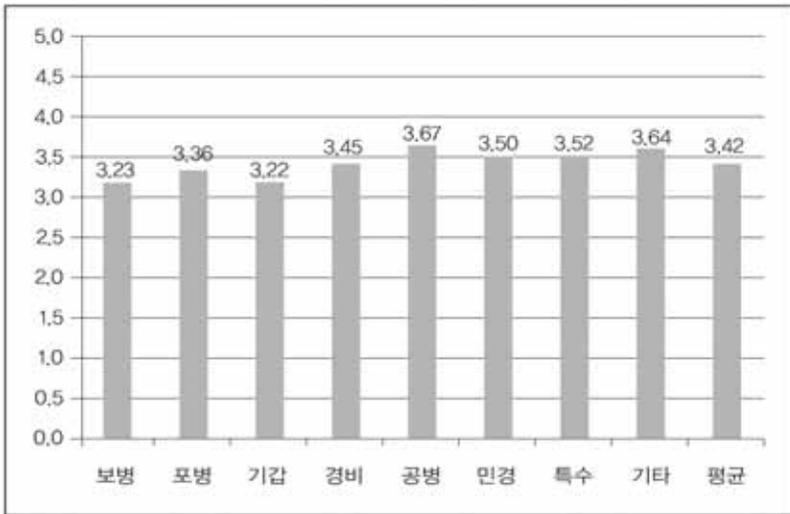
● 그림 IV -16 계급별 병사 간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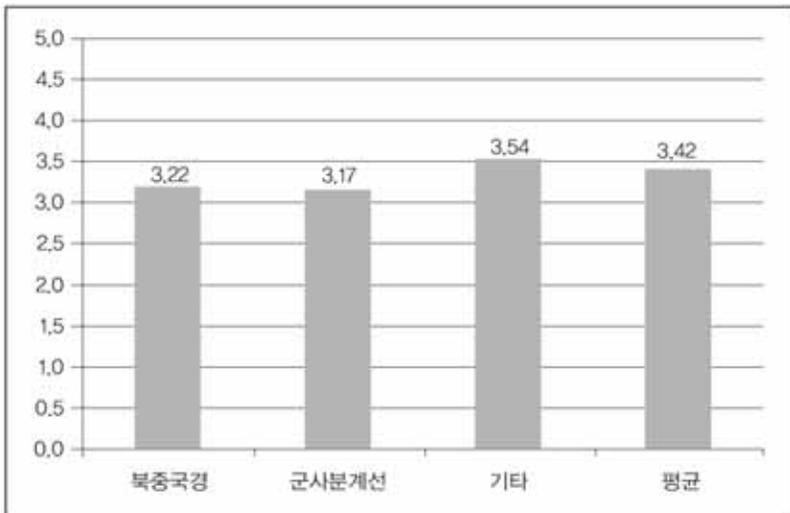
이 응답은 계급이 높을수록 부대지휘와 병사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병사들 간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이 다소 투영된 결과인 듯하다.

병과별로 보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다음의 3가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고 주둔지역별 차이도 미세하다.

●그림 IV -17 병과별 병사 간 관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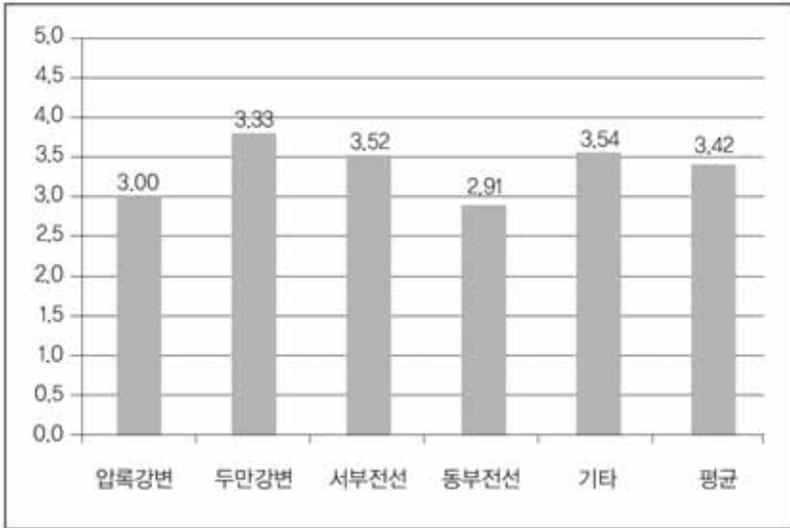


●그림 IV -18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병사 간 관계 정도



- I
- II
- III
- IV**
- V
- VI

●그림 IV -19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병사 간 관계 정도



다만, 북·중 국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출신보다 병사 간 관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대담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의 병사관계가 평균 3.42보다 다소 낮은 2.91로서 제일 낮은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

6. 탈영: 2.73

최근 북한군에서 탈영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10년이라는 장기복무에 따른 염증과 부대 내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이라고 한다.

설문조사 대상 200명에게 복무할 당시 부대 내 탈영 사고가 있었는

지를 묻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답의 선택지를 주었는데 그 결과 “매우 많았다”가 11.5%, “많은 편이었다”가 23.5%로서 두 응답을 합칠 경우 35.0%가 된다. 그러나 “매우 많았다”는 응답을 제외한 4가지의 대답이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여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IV-36 탈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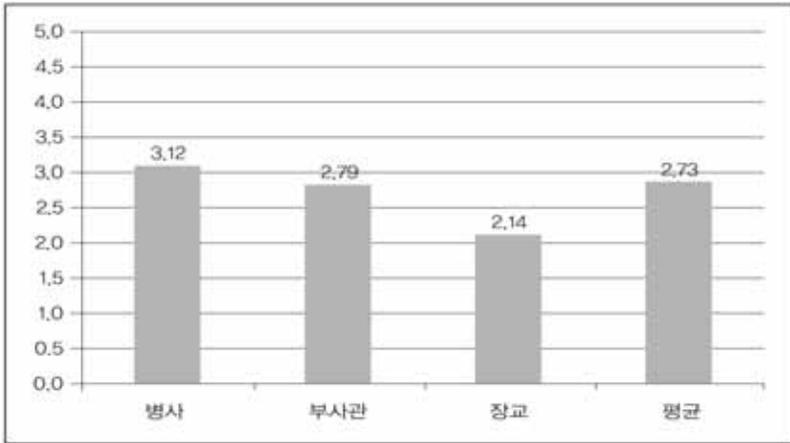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많았다	23	11.5	11.5
	많은 편이었다	47	23.5	35.0
	보통이었다	34	17.0	52.0
	적은 편이었다	45	22.5	74.5
	거의 없었다	51	25.5	100.0
합계		200	100.0	

대답의 선택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여 “매우 많았다”를 5, “많은 편이었다”를 4, “보통이었다”를 3, “적은 편이었다”를 2, “거의 없었다”를 1로 볼 경우 응답의 평균값은 2.73이다. 북한군에서 탈영이 많다고 보도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한 200명 탈북군인들은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응답에서 계급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경향성은 다른 항목에서 보인 대답과 동일하다. 5점 척도로 계급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IV-20>인데 병사들이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부대 내 탈영이 많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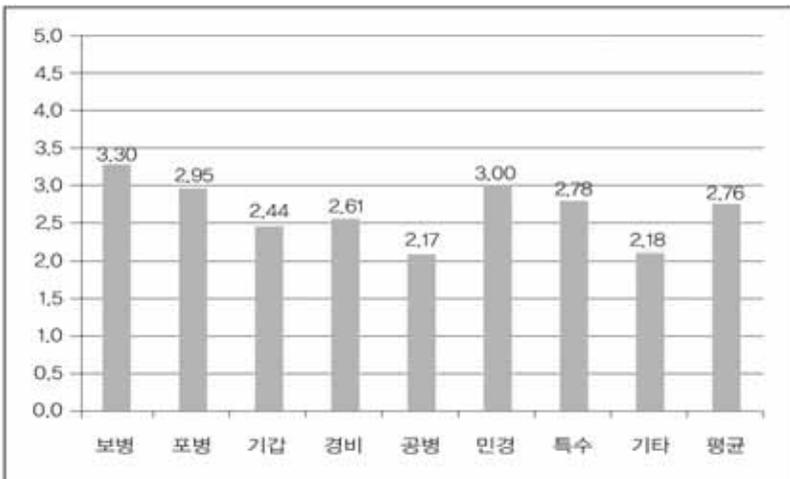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그림 IV -20 계급별 탈영 정도 인식



병과별로 보면, 보병이나 포병병과에서 다른 병과보다 탈영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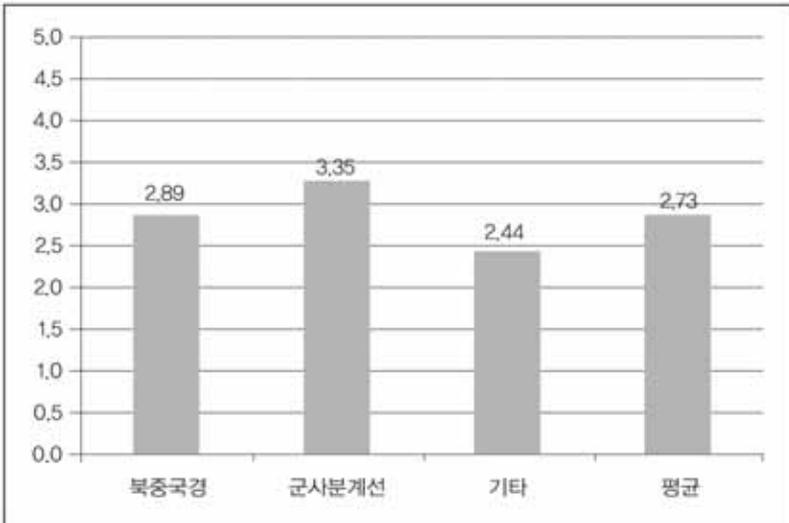
●그림 IV -21 병과별 탈영 정도



병과별 차이를 제V장에서 후술하는 식량사정에서의 병과별 차이와 비교해 보면, 보병과 포병병과는 식량사정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탈영도 다른 병과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기갑병과는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나 탈영은 적게 발생하며, 경비병과는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탈영도 적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경이나 특수병과는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탈영은 많이 발생하는 병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영과 식량사정 사이에 특별한 함수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탈영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 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중 국경지역보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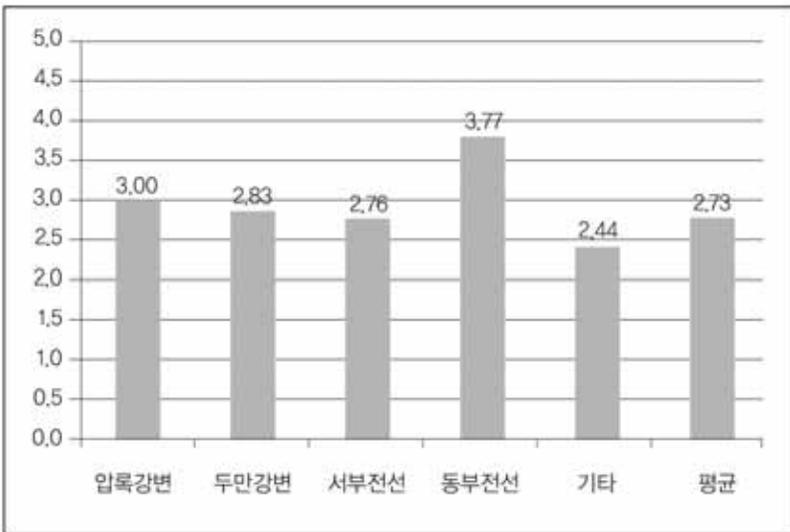
●그림 IV-22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탈영 정도



- I
- II
- III
- IV**
- V
- VI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군사분계선 일대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나눌 경우,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주둔부대에서는 탈영이 비슷하게 발생하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보다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 **그림 IV -23**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탈영 정도



이 역시 식량사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가 북중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탈영사고는 더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면서 탈영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탈영은 식량부족과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 기밀누설: 2.17

『학습제강』 등에서는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군과 관련한 일들은 거의 기밀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밀이 어떤 수준의 기밀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1998년 7월 14일 “당과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행사비밀까지 누설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밀누설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200명의 조사대상에게 복무할 동안 “부대기밀이 누설되는 일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 대답은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답의 분포는 다음의 <표 IV-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37 기밀누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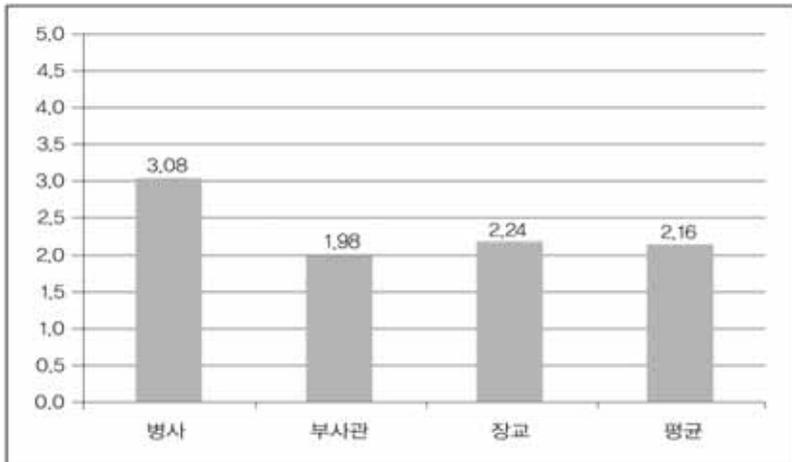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심했다	0	0.0	0.0
	어느 정도 있었다	28	14.0	14.0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43	21.5	35.5
	적은 편이었다	64	32.0	67.5
	거의 없었다	65	32.5	100.0
합계		200	100.0	

기밀누설의 경우 “적은 편”이라는 대답과 “거의 없었다”라는 대답이 각각 32.0%, 32.5%로서 양자를 합할 경우 64.5%이다.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서 “매우 심했다”를 5, “어느 정도 있었다”를 4,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를 3, “적은 편이었다”를 2, “거의 없었다”를 1로 할 경우 전체 평균값은 2.17이다. 2.17은 적은 편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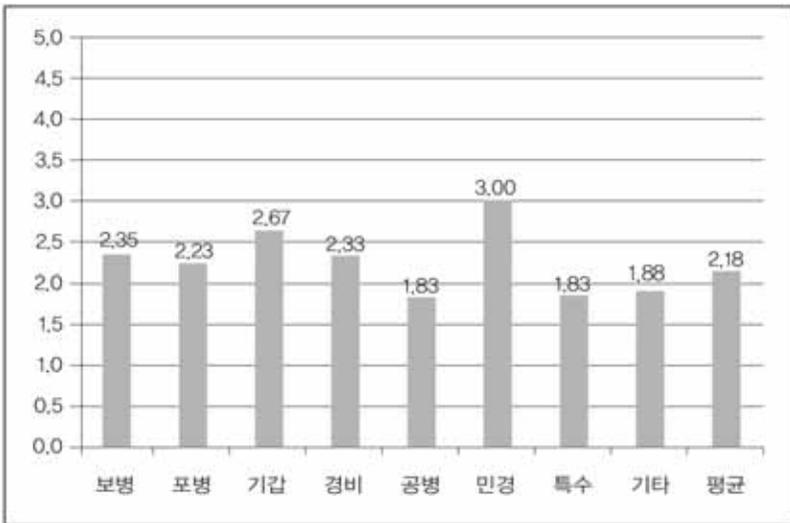
계급별로나 병과별, 주둔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계급별로는 아래의 <그림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사 출신이 기밀누설이 많다고 대답했다.

●그림 IV-24 계급별 기밀누설 정도 인식



병과별로는 보병과 기갑, 경비에서 기밀누설이 상대적으로 많다. 3.00으로 나타난 민경의 경우 우리의 수색부대에 해당하는데 표본수가 2명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민경부대 출신 2명 가운데 1명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대답했고, 또 1명은 “적은 편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림 IV -25 병과별 기밀누설 정도



기밀누설에 대한 응답에서 부대 주둔지별 차이도 있으나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어서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만연: 2.31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과 사회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TV, DVD 재생기 등의 보급으로 남한 및 외국 영화, 비디오 영상물 등, 외부문화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풍조가 군대로 유입되는 원인의 하나는 청년이 신병으로 입대하는 것인데,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군인 200명에게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들어와 있는

I

II

III

IV

V

VI

정도를 물어보았다. 들어와 있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19.5%였고, “거의 없었다”고 유입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31.0%이다.

표 IV-38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심했다	8	4.0	4.0
	어느 정도 있었다	31	15.5	19.5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38	19.0	38.5
	적은 편이었다	61	30.5	69.0
	거의 없었다	62	31.0	100.0
합계		200	100.0	

이 응답에서 “매우 심했다”를 5, “어느 정도 있었다”를 4,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를 3, “적은 편이었다”를 2, “거의 없었다”를 1로 설정하면, 5점 척도로 나타난 값은 2.16이다. 북한 사회 내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북한군 내부에는 아직 “적은 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이 응답을 계급별로 보면, 다음의 <표 IV-39>에서 보듯이 장교나 부사관보다 병사들이 훨씬 부대 내 유입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¹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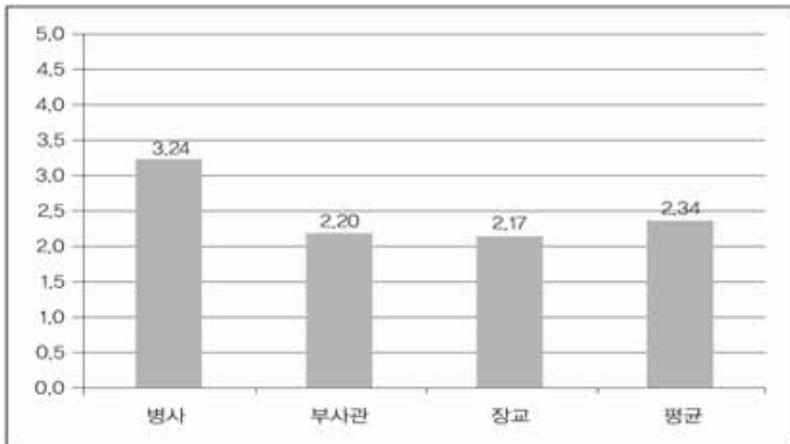
¹⁴³-전체 분포를 보여주는 표와 계급별 차이를 나타낸 표의 인원 숫자가 다른 이유는 이 물음에 대답은 했으나 제대 당시 자신의 계급을 표기하지 않은 사람이 9명이기 때문이다.

표 IV-39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1	9	11	3	1	25
		전체(%)	0.5%	4.7%	5.8%	1.6%	0.5%	13.1%
	부서관	빈도(명)	5	18	23	45	46	137
		전체(%)	2.6%	9.4%	12.0%	23.6%	24.1%	71.7%
	장교	빈도(명)	2	3	3	11	10	29
		전체(%)	1.0%	1.6%	1.6%	5.8%	5.2%	15.2%
전체	빈도(명)	8	30	37	59	57	191	
	전체(%)	4.2%	15.7%	19.4%	30.9%	29.8%	100.0%	

이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다음의 <그림 IV-26> 속의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분명히 간취할 수 있다.

그림 IV-26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I
II
III
IV
V
VI

평균 2.34에 비해 병사들은 3.24, 부사관은 2.20, 장교는 2.17이다.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보다 병사 출신들이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 정도를 훨씬 더 인정하고 있다.

한편,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군관에게만 또는 모두에게 유입되어 있는지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군관에게만 유입되어 있다는 대답이 35.7%,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대답이 64.3%였다.

표 IV-40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대상에 대한 계급별 인식

			군관에게만	모두에게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5	5	10
		전체(%)	12.2%	12.2%	24.4%
	부사관	빈도(명)	8	17	25
		전체(%)	19.5%	41.5%	61.0%
	장교	빈도(명)	2	4	6
		전체(%)	4.9%	9.8%	14.6%
전체		빈도(명)	15	26	41
		전체(%)	36.6%	63.4%	100.0%

이 물음에 대해 병과별로도 차이가 있을까? 대답의 병과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 IV-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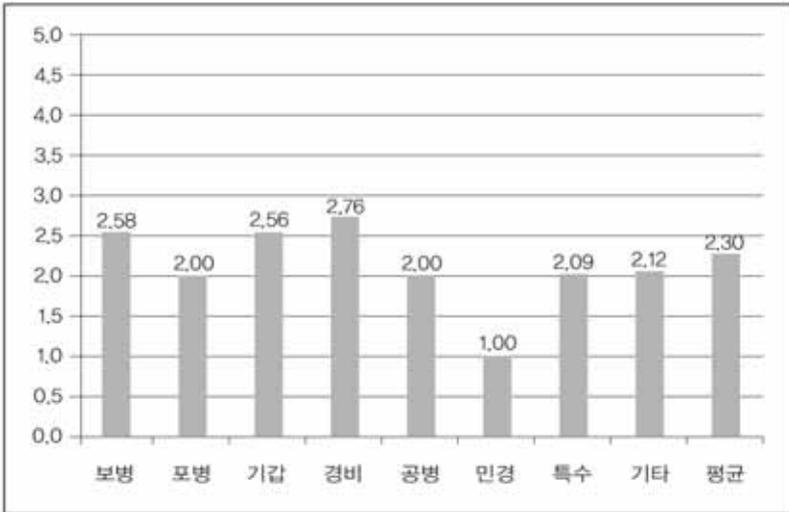
표 IV-41 병과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3	8	8	11	10	40
		전체(%)	1.6%	4.2%	4.2%	5.8%	5.3%	21.1%
	포병	빈도(명)	1	3	7	17	16	44
		전체(%)	0.5%	1.6%	3.7%	8.9%	8.4%	23.2%
	기갑	빈도(명)	0	3	1	3	2	9
		전체(%)	0.0%	1.6%	0.5%	1.6%	1.1%	4.7%
	경비	빈도(명)	1	10	8	8	6	33
		전체(%)	0.5%	5.3%	4.2%	4.2%	3.2%	17.4%
	공병	빈도(명)	0	1	0	3	2	6
		전체(%)	0.0%	0.5%	0.0%	1.6%	1.1%	3.2%
	민경	빈도(명)	0	0	0	0	2	2
		전체(%)	0.0%	0.0%	0.0%	0.0%	1.1%	1.1%
	특수	빈도(명)	0	2	7	5	9	23
		전체(%)	0.0%	1.1%	3.7%	2.6%	4.7%	12.1%
기타	빈도(명)	1	3	7	10	12	33	
	전체(%)	0.5%	1.6%	3.7%	5.3%	6.3%	17.4%	
전체	빈도(명)	6	30	38	57	59	190	
	전체(%)	3.2%	15.8%	20.0%	30.0%	31.1%	100.0%	

위의 <표 IV-41>을 보면, 병과별로는 특수부대나 포병부대보다 경비나 보병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이 점을 5점 척도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5점 척도로 나타난 것이 다음의 그래프 <그림 IV-27>이다.

I
II
III
IV
V
VI

●그림 IV -27 병과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한 눈에 보듯이 평균 2.30보다 높은 것이 보병과 기갑, 경비병과이다. 상대적으로 이 병과들에 서구풍조와 남한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주둔지역에 따라 부대 내 이런 풍조의 유입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응답을 주둔지역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IV-42>이다. 이를 보면, 표본수가 적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제외하고 평양시 주둔부대의 경우 그 부대 출신 30명 가운데 “거의 없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3명으로 전체의 43.3%, 평안남북도가 각각 33.3%, 황해남도 40.0%, 황해북도 12.0%, 강원도 12.5%, 함경남도 35.7%, 함경북도 10.0%가 부대 내 유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42 부대주단지(시·도)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단지	평양시	빈도(명)	0	2	8	7	13	30
		전체(%)	0.0%	1.1%	4.2%	3.7%	6.8%	15.8%
	평안남도	빈도(명)	1	4	2	3	5	15
		전체(%)	0.5%	2.1%	1.1%	1.6%	2.6%	7.9%
	평안북도	빈도(명)	1	1	0	2	2	6
		전체(%)	0.5%	0.5%	0.0%	1.1%	1.1%	3.2%
	자강도	빈도(명)	0	1	0	1	0	2
		전체(%)	0.0%	0.5%	0.0%	0.5%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1	1	3	7	8	20
		전체(%)	0.5%	0.5%	1.6%	3.7%	4.2%	10.5%
	황해북도	빈도(명)	0	12	4	6	3	25
		전체(%)	0.0%	6.3%	2.1%	3.2%	1.6%	13.2%
	강원도	빈도(명)	2	2	15	27	18	64
		전체(%)	1.1%	1.1%	7.9%	14.2%	9.5%	33.7%
	함경남도	빈도(명)	1	1	3	4	5	14
		전체(%)	0.5%	0.5%	1.6%	2.1%	2.6%	7.4%
	함경북도	빈도(명)	1	6	2	0	1	10
		전체(%)	0.5%	3.2%	1.1%	0.0%	0.5%	5.3%
양강도	빈도(명)	1	1	0	1	1	4	
	전체(%)	0.5%	0.5%	0.0%	0.5%	0.5%	2.1%	
전체	빈도(명)	8	31	37	58	56	190	
	전체(%)	4.2%	16.3%	19.5%	30.5%	29.5%	100.0%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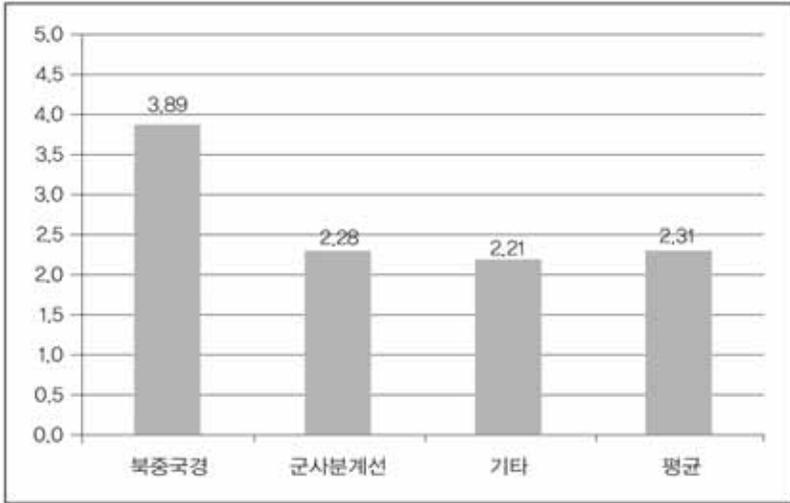
이를 북중 국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 부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 9명 전원이 부대 내 유입을 인정한 반면,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 출신 25.0%는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 유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 IV-43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3	3	2	1	0	9
		전체(%)	4.3%	4.3%	2.9%	1.4%	0.0%	13.0%
	군사분계선	빈도(명)	1	11	7	26	15	60
		전체(%)	1.4%	15.9%	10.1%	37.7%	21.7%	87.0%
전체		빈도(명)	4	14	9	27	15	69
		전체(%)	5.8%	20.3%	13.0%	39.1%	21.7%	100.0%

이러한 차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IV-28>인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2.31에 비해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3.89인 반면,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2.28이다.

●그림 IV -28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위치상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으로, 군사분계선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동부전선 보다는 서부전선 주둔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부대 내 여러 일탈현상에 관한 앞의 다른 항목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가 다른 지역 주둔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일탈현상이 적었으나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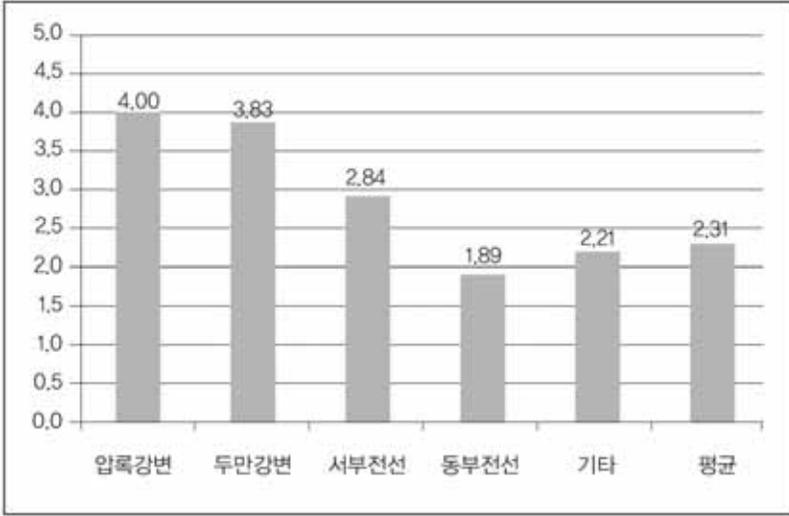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표 IV-44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2	0	0	1	0	3
		전체(%)	1.0%	0.0%	0.0%	0.5%	0.0%	1.5%
	두만강변	빈도(명)	1	3	2	0	0	6
		전체(%)	0.5%	1.5%	1.0%	0.0%	0.0%	3.0%
	서부전선-군사분계선	빈도(명)	1	10	3	6	5	25
		전체(%)	0.5%	5.0%	1.5%	3.0%	2.5%	12.5%
	동부전선-군사분계선	빈도(명)	0	1	4	20	10	35
		전체(%)	0.0%	0.5%	2.0%	10.0%	5.0%	17.5%
	기타	빈도(명)	4	17	29	34	47	131
		전체(%)	2.0%	8.5%	14.5%	17.0%	23.5%	65.5%
전체	빈도(명)	8	31	38	61	62	200	
	전체(%)	4.0%	15.5%	19.0%	30.5%	31.0%	100.0%	

이 역시 5점 척도로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 IV-29>가 그것이다.

●그림 IV-29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유입 정도



서구풍조와 남한문화의 유입은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보다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에서 더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동부전선보다 서부전선 부대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두만강변보다 압록강변 주둔 부대에서 더 많다.

I
II
III
IV
V
VI

V. 기강 해이 원인과 평가



1. 원인

가.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1) 선군정치의 역효과

북한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군의 위상강화에서 파생되는 역효과의 하나이다. 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군 고위직 우대 및 군부대 시찰 등 군부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이러한 군사우위정책과 관련하여 1997년 2월 김정일의 55회 생일행사에서 김영남은 김정일이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았다”고 축하연설을 하였다.¹⁴⁴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우위정책에 대해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확고한 의지”¹⁴⁵라고 하였으며, 1998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둥”이라고까지 규정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의 이러한 군사중시정책을 ‘선군혁명령도’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¹⁴⁶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방식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로 정립되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

144. 『로동신문』, 1997년 2월 16일.

145. 『로동신문』, 1997년 10월 10일.

146.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

I
II
III
IV
V
VI

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라는 것이다.¹⁴⁷ 이와 같이 선군정치에 따라 군은 체제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제건설도 맡게 되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군의 기강 해이 현상, 특히 대민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가 앞에서 논의한 2001년 『학습참고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일부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군대를 중시하시고 인민들이 군대, 군대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워 준다고 하여 우쭐해서 인민들을 깔보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⁸ 이는 『학습제강』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선군정치라하여 군대<특세>를 쓰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말로 압축된다.

이와 함께 선군정치라는 명목으로 군이 경제건설 분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민접촉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대민피해, 음주, 기밀누설, 비사회주의 현상 등의 기강 해이가 야기된다. 청년들의 장기적인 군 복무로 인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군 인력의 경제건설 투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정일은 1998년에 사회적으로 인민군대가 맡아야 할 중요 과업으로 ① 도로관리, ② 토지정리사업, ③ 나무심기운동, ④ 중소형발전소 건설, ⑤ 소마리수 늘리기 위한 사업, ⑥ 원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¹⁴⁹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군이 건설한 시설은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안변청년

147.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14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의 기본사상에 대한 해설,” p. 16.

14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pp. 14~16.

발전소, 태천발전소, 평양-향산 관광도로, 평양 타조목장, 황주 닭공장, 구월산유원지, 내평발전소, 평양 9·9절 거리, 평양 4·25여관,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원산 갈마휴양소, 무지개동굴 개축 등이다.¹⁵⁰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을 타개하려면 획기적인 농업생산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다. 김정일은 1997년 4월 초 농정분야에 대한 군부의 관여 폭을 크게 늘리는 조치를 취했고,¹⁵¹ 2004년 12월 31일에 열린 ‘선군정치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우리는 모든 역량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농업 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군이 다양한 경제건설에 적극 투입됨으로써 자연히 대민 접촉이 늘어나고, 군의 각종 기강 해이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2) 경제난의 영향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경제난은 북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의 경제난은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과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여러 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었다”라는 말로 대변된다. 북한은 2000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불굴

¹⁵⁰ 『청년전위』, 2001년 6월 29일.

¹⁵¹ 김정일은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통해 각 협동농장을 책임지는 관리위원장에 현역 군장교를 앉히고 농사일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파종에서 수확까지 직접 군이 개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1999년 7월 29일.

의 투쟁을 벌려 여러 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켜 놓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의 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당 창건 55주년 행사에서 비로소 “력사에 유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긍지 높은 대축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제난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¹⁵² 그리고 북한은 2001년 신년사설의 제목을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세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외형적으로나마 경제회생의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일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¹⁵³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11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설치’,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등 일련의 위로부터의 부분적인 개혁과 통제된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¹⁵⁴ 그리고 2004년부터 박봉주 내각이 대폭적인 분권화와 시장요소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 2008년 6월에는 경제개혁 후퇴를 선언하게 되었다.¹⁵⁵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은 시장의 통제와 계

152. 2000년 10월 10일 당 창건 55주년 기념 『로동신문』 사설,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참조.

153.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자율권 확대, ② 개인경작지 확대, ③ 식량·생활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④ 가격·임금 대폭 인상, ⑤ 환율·관세 인상 등이다. 7.1 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수영,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154. 북한의 통제된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획의 복원을 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이는 신흥 상인계층 보유 재산(시중 자금)의 강제 환수를 통해 국가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여기에는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도 작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8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규정하고, 2010년과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공업·농업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 1월 9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김정일이 “지난날 수령님께서 늘 우리 인민들이 흰쌀 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우리는 아직 이 유훈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최단기간에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할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¹⁵⁶ 김정일이 경제난을 자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촉구한 이후 1월 15일 내각 결정으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채택하는 동시에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을 공표하고, 6월 9일에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지정하는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¹⁵⁵ 북한의 경제개혁 10년의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¹⁵⁶ 『로동신문』, 2010년 1월 9일.

I
II
III
IV
V
VI

이와 같이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은 앞에서 논의한 군 내 기강 해이의 모든 유형이 야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였던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군의 기강 해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7.1조치’ 이후 물가의 급등, 시장에서의 물품 구매,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물질 우선의 사고가 만연하여 사상이나 이념은 뒷전으로 후퇴했다. 더욱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뀜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줄어들고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었다. 또한 ‘7.1조치’ 이후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이동성이 증가된 데다 시장의 성행으로 상품의 거래와 더불어 외부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상황은 군에도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식량공출이 어려워 졌는데, 이것이 군도 식량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기강 해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Ⅳ장에서 밝힌 것처럼 설문조사 대상 탈북군인 200명은 자신이 복무한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떠했다고 대답했을까?

자신이 복무한 부대에서 식량이 “매우 부족했다”거나 “조금 부족했다”고 대답함으로써 식량부족을 인정한 비율은 57.0%이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예상보다 많은 30.0%이다.

표 V-1 부대 내 식량사정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부족	69	34.5	34.5
	조금 부족	45	22.5	57.0
	보통	26	13.0	70.0
	부족않음	42	21.0	91.0
	전혀 부족않음	18	9.0	100.0
합계		200	100.0	

이 응답 역시 5점 척도로서 “매우 부족했다”를 5, “조금 부족했다”를 4, “보통이었다”를 3, “부족하지 않은 편이었다”를 2,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를 1로 설정했을 때 산출된 값은 3.53이다. “보통이었다”에서 “조금 부족했다”로 반 정도 이동한 수치이다. 북한군 내의 식량사정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계급별로 식량이 배급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계급별로 식량사정을 살펴보았다. 병사의 경우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0%, 부사관의 경우는 58.4%, 장교의 경우는 41.4%이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본부에서 하부 예하부대로 내려 갈수록 식량이 착복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증언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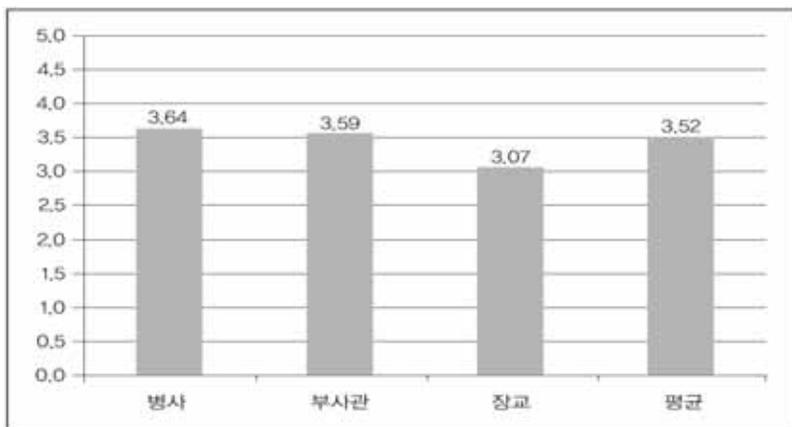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표 V-2 계급별 부대 내 식량사정 인정 정도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부족않음	전혀 부족않음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3	14	5	2	1	25
		전체(%)	1.6%	7.3%	2.6%	1.0%	0.5%	13.1%
	부사관	빈도(명)	54	26	15	31	11	137
		전체(%)	28.3%	13.6%	7.9%	16.2%	5.8%	71.7%
	장교	빈도(명)	9	3	4	7	6	29
		전체(%)	4.7%	1.6%	2.1%	3.7%	3.1%	15.2%
전체	빈도(명)	66	43	24	40	18	191	
	전체(%)	34.6%	22.5%	12.6%	20.9%	9.4%	100.0%	

그러나 5점 척도로 보면 계급별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모두 식량사정이 3.00인 “보통이었다”는 것에서 4.00인 “조금 부족했다” 쪽으로 약간 이동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V-1 계급별 부대 내 식량사정 인정 정도



식량사정은 병과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병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경비병과의 비율이 33명 가운데 15명의 45.5%로서 다른 병과에 비해 낮은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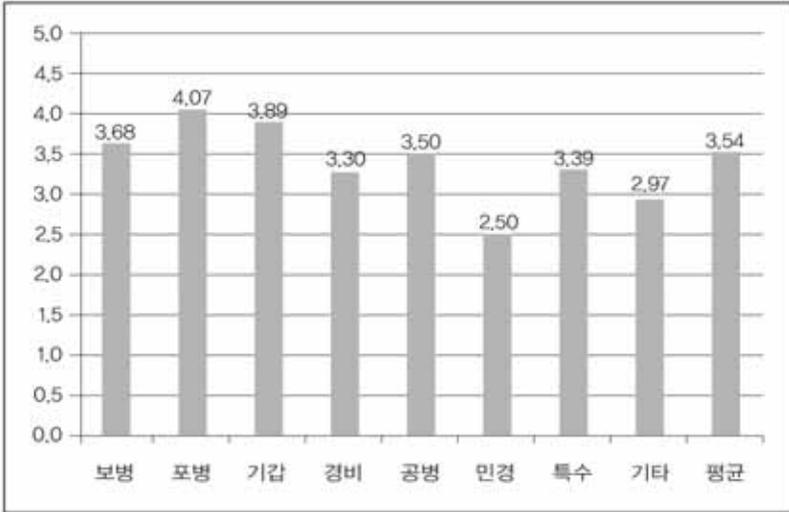
표 V-3 병과별 식량사정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부족않음	전혀 부족않음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15	10	5	7	3	40
		전체(%)	7.9%	5.3%	2.6%	3.7%	1.6%	21.1%
	포병	빈도(명)	23	9	4	8	0	44
		전체(%)	12.1%	4.7%	2.1%	4.2%	0.0%	23.2%
	기갑	빈도(명)	3	4	0	2	0	9
		전체(%)	1.6%	2.1%	0.0%	1.1%	0.0%	4.7%
	경비	빈도(명)	9	6	8	6	4	33
		전체(%)	4.7%	3.2%	4.2%	3.2%	2.1%	17.4%
	공병	빈도(명)	0	4	1	1	0	6
		전체(%)	0.0%	2.1%	0.5%	0.5%	0.0%	3.2%
	민경	빈도(명)	0	0	1	1	0	2
		전체(%)	0.0%	0.0%	0.5%	0.5%	0.0%	1.1%
	특수	빈도(명)	6	8	2	3	4	23
		전체(%)	3.2%	4.2%	1.1%	1.6%	2.1%	12.1%
	기타	빈도(명)	8	4	5	11	5	33
		전체(%)	4.2%	2.1%	2.6%	5.8%	2.6%	17.4%
	전체	빈도(명)	64	45	26	39	16	190
		전체(%)	33.7%	23.7%	13.7%	20.5%	8.4%	100.0%

I
II
III
IV
V
VI

이 점을 좀 더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5점 척도로 나타낸 <그림 V-2>의 막대그래프이다.

● 그림 V-2 병과별 식량사정



포병이나 기갑 병과에서 식량이 조금 부족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경비나 특수, 기타 병과는 평균보다 낮은, 즉, 식량사정이 “보통이었다”는 쪽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부대의 주둔지역별로 본 것이 다음의 <표 V-4>인데 “부족했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평양시 주둔부대의 경우 30.0%, 평안남도 73.3%, 평안북도 83.3%, 황해남도 40.0%, 황해북도 64.0%, 강원도 73.4%, 함경남도 42.9%, 함경북도 50.0%이다.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남도 주둔부대의 식량사정이 비교적 낮고 평안남북도와 강원도 주둔부대의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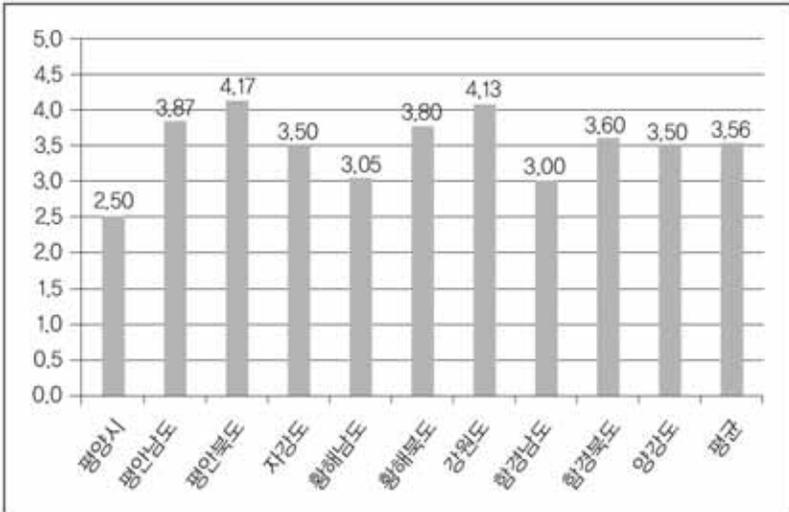
표 V-4 부대주둔지(시·도)별 식량사정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부족않음	전혀 부족않음	전체
주둔지	평양시	빈도(명)	4	5	4	6	11	30
		전체(%)	2.1%	2.6%	2.1%	3.2%	5.8%	15.8%
	평안남도	빈도(명)	6	5	1	2	1	15
		전체(%)	3.2%	2.6%	0.5%	1.1%	0.5%	7.9%
	평안북도	빈도(명)	2	3	1	0	0	6
		전체(%)	1.1%	1.6%	0.5%	0.0%	0.0%	3.2%
	자강도	빈도(명)	1	0	0	1	0	2
		전체(%)	0.5%	0.0%	0.0%	0.5%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1	7	4	8	0	20
		전체(%)	0.5%	3.7%	2.1%	4.2%	0.0%	10.5%
	황해북도	빈도(명)	9	7	5	3	1	25
		전체(%)	4.7%	3.7%	2.6%	1.6%	0.5%	13.2%
	강원도	빈도(명)	37	10	6	10	1	64
		전체(%)	19.5%	5.3%	3.2%	5.3%	0.5%	33.7%
	함경남도	빈도(명)	2	4	2	4	2	14
		전체(%)	1.1%	2.1%	1.1%	2.1%	1.1%	7.4%
	함경북도	빈도(명)	3	2	3	2	0	10
		전체(%)	1.6%	1.1%	1.6%	1.1%	0.0%	5.3%
양강도	빈도(명)	2	0	0	2	0	4	
	전체(%)	1.1%	0.0%	0.0%	1.1%	0.0%	2.1%	
전체	빈도(명)	67	43	26	38	16	190	
	전체(%)	35.3%	22.6%	13.7%	20.0%	8.4%	100.0%	

I
II
III
IV
V
VI

이 점은 막대그래프로 그린 5점 척도 비교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 그림 V-3 부대주둔지(시·도)별 식량사정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평균(3.56)보다 평양시(2.50), 황해남도(3.05), 함경남도(3.00)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안북도(4.13)와 강원도(4.13)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내 식량사정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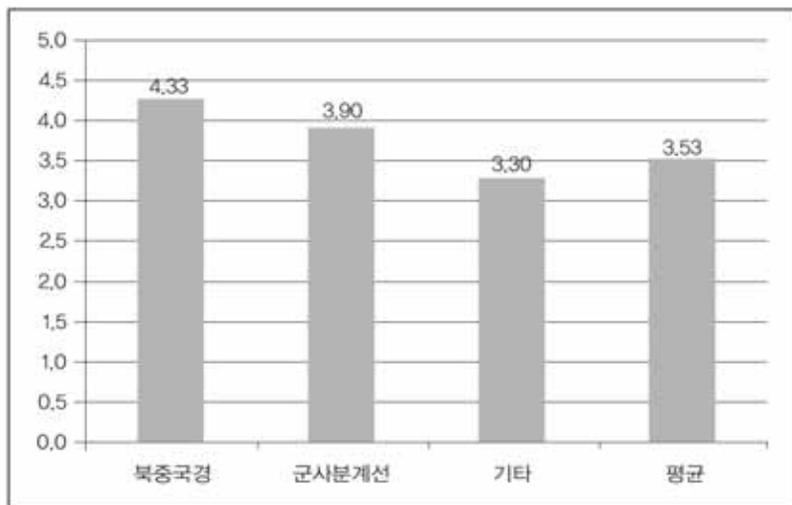
북중 국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식량사정을 비교해보면,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그 부대 출신 9명 가운데 7명이 부족했다고 대답했고, 군사분계선 주둔부대의 경우 그 부대 출신 60명 가운데 30명이 부족했다고 대답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사정이 나은 것이다.

표 V-5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식량사정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부족않음	전혀 부족않음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5	2	2	0	0	9
		전체(%)	7.2%	2.9%	2.9%	0.0%	0.0%	13.0%
	군사분계선	빈도(명)	29	11	7	11	2	60
		전체(%)	42.0%	15.9%	10.1%	15.9%	2.9%	87.0%
전체		빈도(명)	34	13	9	11	2	69
		전체(%)	49.3%	18.8%	13.0%	15.9%	2.9%	100.0%

5점 척도로 비교해 보면, 북중 국경지역이나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 부대 모두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나, 군사분계선 일대보다는 북중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더 좋지 않다.

그림 V-4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식량사정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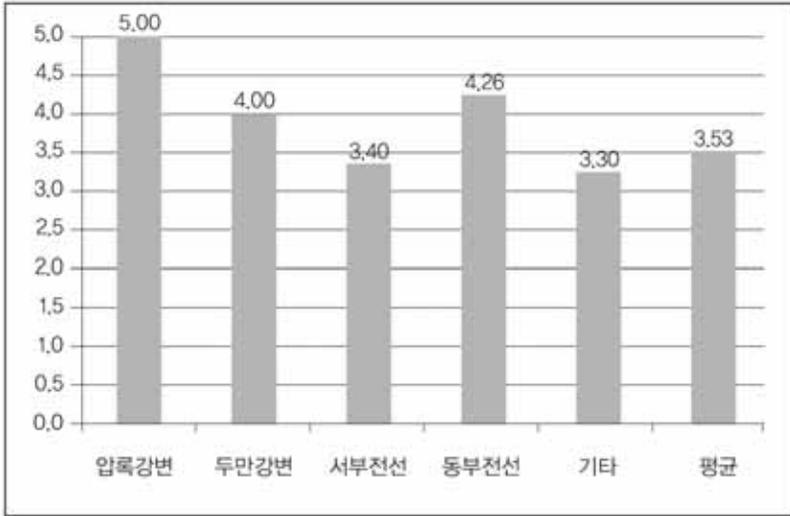
그리고 아래의 <표 V-6>에서 보듯이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두만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사정보다 열악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의 사정이 동부전선 주둔부대보다 낮다.

표 V-6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식량사정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부족않음	전혀 부족않음	전체
주둔지	압록강변	빈도(명)	3	0	0	0	0	3
		전체(%)	1.5%	0.0%	0.0%	0.0%	0.0%	1.5%
	두만강변	빈도(명)	2	2	2	0	0	6
		전체(%)	1.0%	1.0%	1.0%	0.0%	0.0%	3.0%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4	9	6	5	1	25
		전체(%)	2.0%	4.5%	3.0%	2.5%	0.5%	12.5%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빈도(명)	25	2	1	6	1	35
		전체(%)	12.5%	1.0%	0.5%	3.0%	0.5%	17.5%
	기타	빈도(명)	35	32	17	31	16	131
		전체(%)	17.5%	16.0%	8.5%	15.5%	8.0%	65.5%
전체	빈도(명)	69	45	26	42	18	200	
	전체(%)	34.5%	22.5%	13.0%	21.0%	9.0%	100.0%	

이 점은 5점 척도로 나타낸 다음의 <그림 V-5>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압록강변 주둔부대의 경우 식량이 “매우 부족했으”(5.00) 두만강변 주둔부대에서는 “조금 부족했으”(4.00) 군사분계선 동부전선 부대에서도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음(4.26)을 엿볼 수 있다.

● 그림 V-5 부대주둔지(압록강변·두만강변·서부전선·동부전선)별 식량사정



그렇다면 언제부터 북한군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졌을까?

● 표 V-7 식량사정이 어려워진 시기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1995년 이전	5	2.5	4.5
	1995~1998년	67	33.5	64.9
	1999~2002년	20	10.0	82.9
	2003~2006년	18	9.0	99.1
	2007년 이후	1	0.5	100.0
합계		111	55.5	
결측	결측값	89	44.5	
	합계	200	100.0	

I
II
III
IV
V
VI

응답을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기간을 지적한 비율이 제일 많다. 이 시기부터 식량사정이 어려워져 개선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 내에 북한군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외부정보의 유입 증대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국의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의 유입이 증대되었고, 군도 이에 노출됨으로써 기강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가 유입되어 유통되는 현상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유학생 및 근로자의 송환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생존을 위한 주민이동 증가로 인해 점차 늘어났다. 또한 북한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 및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외부정보 및 물질의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앞에서 논의한 ‘7.1조치’는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확산시켰다.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의 확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2002년 『간부 및 군중강연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¹⁵⁷

지금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드는 현상이 적지 않다. 최근에 우리 사람들속에 다른 나라의 영화가 들어있는 이색

¹⁵⁷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투쟁관점을 철저히 세우자,”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p. 7~8.

적인 록화테이프가 류포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해당 기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내부에 류포된 다른 나라의 영화가 수백편에 달한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 나라에 오는 외국인들과 해외교포들속에 끼워들어 온 것이다. 사업상 외국영화테이프를 보관 리용하거나 검토하는 단위들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하여 외국영화들이 많이 새어나가고 있다.

보다 엄중한 것은 이렇게 새여 나간 록화테이프들을 돈벌이목적으로 복사하여 장마당에 내다 팔면서 계속 류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남조선괴뢰들이 방영하는 영화들을 록화한 테이프들과 외국영화들을 전문적으로 복사하여 팔아먹는 자들도 있다.

어느 한 구역의 어떤 주민은 황해남도의 연안, 청단군들에 나가 불순한 자들이 남조선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복사한 록화테이프들을 개당 1천원씩 주고 사다가 다시 여러 개 복사하여 장마당에 내다가 덧붙여 팔았다. 어느 한 사업소의 한 종업원은 무직자와 공모하여 아빠트지하에 방을 꾸려 놓은 다음 여러 대의 록화기를 설치해 놓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남조선영화와 미국, 홍콩 등 자본주의나라 영화들을 록화테이프에 복사하여 장마당에 나가 팔아먹는 행위를 하였다.

여러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외국영화테이프들을 서로 빌려 보거나 끼리끼리 빌려 다니며 보고 있다.···그 전에는 적들의 출판물이 라면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고 결눈질을 하기도 두려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북한 사회에 대한 서구 및 남한문화의 침투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4년 4월 형법개정에서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적대방송 청취죄’나 ‘퇴폐문화반입 유포죄’ 등을 신설했다. 매음죄도 신설했고, ‘퇴폐적인 음악이나 춤, 비디오와 CD’를 보면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사회통제 이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2월

I
II
III
IV
V
VI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⁵⁸ 이 성명은 북한 사회 내부와 탈북자들의 반복동향을 겨냥하여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선포하고 “온갖 정탐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어리석은 체제번복 책동은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강경한 어조는 북한 사회의 심각한 이완현상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북한은 2011년 2월 16일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열어 젊은 세대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 저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이미 북한 사회 내에 서구 및 남한문화가 만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나. 군의 내적 요인

북한군에서 남성의 군복무 연한은 10년, 여성은 6~8년이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는 복무연한이 13년이었던가 다시 10년으로 환원되었으나, 정기복무기간을 초과한 ‘초기복무’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무를 연장하는 ‘충성의 복무’ 제도에 따라 군복무가 연장되기도 한다. 여군의 경우 18세에 입대하여 군관인 경우 26세까지 8년, 그 외 하전사는 24살까지 6년을 복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길다보니 자연히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군에 만연하고 있는 음주와 구타, 탈영 등의 현상은 장기복무의 폐해이다. 한 예로 상관으로부터 구타·기합을 받은 군인들은 스트레스를 아래 사병에게 풀거나 민간인 거주지로 나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심각한 사례지만 오랜 복무기간으로 심

¹⁵⁸ 『연합뉴스』, 2010년 2월 8일.

한 권태감을 느끼는 군인들은 낮에 술을 먹고 상관을 구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¹⁵⁹

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군복무 중 연애불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연애를 하거나 여성을 임신시켰을 경우 ‘생활제대’ 처벌이 가해진다. ‘생활제대’된 군인은 간부로 등용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군복무 5~10년 된 고참병들은 제대 후 결혼을 약속하고 주민부락에서 여성들과 교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제대를 2~3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대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및 착복, 대민피해 등의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북한군의 기술하사관, 군관 등은 가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을 위해 군수물자 유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군의 구성변화도 군 기강 해이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다. 북한은 2002년 추천방식에 의해 진행되던 군 입대제도를 없애고 ‘전민군사복무제’라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식량난 및 군기 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보완하고, 예외없는 군입대를 통해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¹⁶⁰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이들이 군의 규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가 하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¹⁶¹

159. 『데일리NK』, 2005년 3월 1일.

160.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44~45.

161. 『자유북한방송』, 2010년 6월 18일.

I
II
III
IV
V
VI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신세대가 입대하여 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는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생존의 절박성을 체감하였다. 이들에게 사상교양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으며, 군인정신, 국가관보다는 이기주의에 젖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군복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할 때 돈 한푼이라도 더 들고 가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는 증언이 나온다.¹⁶² 또한 이 세대들은 입대 전 이미 북한 사회에 만연한 서구 및 남한문화를 상당히 접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류’는 익숙한 것이며, 이들로 구성된 북한군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한 현상이다.

2.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북한군의 어떤 기강 해이 현상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근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북한소식을 전하는 각종 소식지나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군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IV장에서 본 바대로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을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일반적인 선입견보다 북한군의 기강 해이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보통의 수준에서 약간 더 문란한 쪽으로 이동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준이 북한 체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

¹⁶² 『자유북한방송』, 2011년 1월 17일.

을까? 그 체제에서 살았고 최근까지 군에서 복무하다 탈북하여 국내 입국한 설문조사 대상 200명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규율문란 행위들과 식량사정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고 물었다. 그리고 “1) 지금도 문란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병사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2)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약간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 3)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있지만 그것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사상교양 강화로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4) 규율문란 행위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일부 있고 그것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이 지금으로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5) 규율문란 행위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남한에서 떠도는 소문만큼 크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5가지의 대답 가운데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제일 많은 대답이 두 번째의 것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규율문란과 병사들의 불만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I
II
III
IV
V
VI

표 V-8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나쁜 영향	28	14.0	14.0
	조금씩 해침	105	52.5	66.5
	관계없음	33	16.5	83.0
	지속시 나쁜 영향중	32	16.0	99.0
	크지않거나 아예 없음	2	1.0	100.0
합계		200	100.0	

이 응답을 계급별로 보면, 병사의 경우 두 번째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92.0%로서 압도적 다수인 반면, 부사관 출신의 경우 46.7%, 장교 출신의 경우 55.2%이다.

표 V-9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 나쁜 영향	조금씩 해침	관계없음	지속시 나쁜 영향	크지않거나 아예없음	전체
계급	병사	빈도(명)	1	23	0	1	0	25
		전체(%)	0.5%	12.0%	0.0%	0.5%	0.0%	13.1%
	부사관	빈도(명)	20	64	26	25	2	137
		전체(%)	10.5%	33.5%	13.6%	13.1%	1.0%	71.7%
	장교	빈도(명)	4	16	4	5	0	29
		전체(%)	2.1%	8.4%	2.1%	2.6%	0.0%	15.2%
전체	빈도(명)	25	103	30	31	2	191	
	전체(%)	13.1%	53.9%	15.7%	16.2%	1.0%	100.0%	

병과별로는 두 번째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보병의 경우 62.5%, 포병 40.9%, 기갑 66.7%, 경비 63.6%, 특수 39.1%, 기타 57.6%이다. 반면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있지만 그것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사상교양 강화로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보병 15.0%, 포병 15.9%, 기갑 33.3%, 경비 12.1%, 특수 21.7%, 기타 15.2%이다.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른 부대 출신보다 규율문란 행위가 체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길 꺼려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표 IV-10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병과별 인식

		매우 나쁜 영향	조금씩 해침	관계없음	지속시 나쁜 영향	크지 않거나 아예없음	전체	
병과	보병	빈도(명)	3	25	6	5	1	40
		전체(%)	1.6%	13.2%	3.2%	2.6%	0.5%	21.1%
	포병	빈도(명)	8	18	7	11	0	44
		전체(%)	4.2%	9.5%	3.7%	5.8%	0.0%	23.2%
	기갑	빈도(명)	0	6	3	0	0	9
		전체(%)	0.0%	3.2%	1.6%	0.0%	0.0%	4.7%
	경비	빈도(명)	6	21	4	1	1	33
		전체(%)	3.2%	11.1%	2.1%	0.5%	0.5%	17.4%
	공병	빈도(명)	1	2	0	3	0	6
		전체(%)	0.5%	1.1%	0.0%	1.6%	0.0%	3.2%
	민경	빈도(명)	0	0	1	1	0	2
		전체(%)	0.0%	0.0%	0.5%	0.5%	0.0%	1.1%
	특수	빈도(명)	5	9	5	4	0	23
		전체(%)	2.6%	4.7%	2.6%	2.1%	0.0%	12.1%
	기타	빈도(명)	3	19	5	6	0	33
		전체(%)	1.6%	10.0%	2.6%	3.2%	0.0%	17.4%
전체	빈도(명)	26	100	31	31	2	190	
	전체(%)	13.7%	52.6%	16.3%	16.3%	1.1%	100.0%	

주둔지역별로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평양시 주둔 부대 출신의 경우 두 번째 대답의 선택 비율이 50.0%, 평안남도 60.0%, 평안북도 50.0%, 황해남도 55.0%, 황해북도 72.0%, 강원도 48.4%, 함경남도 50.0%, 함경북도 60.0%이다. 예상했던 만큼의 차이는 발견되

지 않는다. 다만, 강원도가 현재 규율문란 행위가 체제에 주는 부담을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출신보다 약간 낮다.

표 IV-11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부대주둔지(시·도)별 인식

			매우 나쁜 영향	조금씩 해침	관계없음	지속시 나쁜 영향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음	전체
주둔지	평양시	빈도(명)	5	15	2	8	0	30
		전체(%)	2.6%	7.9%	1.1%	4.2%	0.0%	15.8%
	평안남도	빈도(명)	0	9	2	4	0	15
		전체(%)	0.0%	4.7%	1.1%	2.1%	0.0%	7.9%
	평안북도	빈도(명)	2	3	1	0	0	6
		전체(%)	1.1%	1.6%	0.5%	0.0%	0.0%	3.2%
	자강도	빈도(명)	0	0	1	1	0	2
		전체(%)	0.0%	0.0%	0.5%	0.5%	0.0%	1.1%
	황해남도	빈도(명)	3	11	2	4	0	20
		전체(%)	1.6%	5.8%	1.1%	2.1%	0.0%	10.5%
	황해북도	빈도(명)	2	18	3	2	0	25
		전체(%)	1.1%	9.5%	1.6%	1.1%	0.0%	13.2%
	강원도	빈도(명)	8	31	15	9	1	64
		전체(%)	4.2%	16.3%	7.9%	4.7%	0.5%	33.7%
	함경남도	빈도(명)	3	7	1	3	0	14
		전체(%)	1.6%	3.7%	0.5%	1.6%	0.0%	7.4%
	함경북도	빈도(명)	3	6	0	0	1	10
		전체(%)	1.6%	3.2%	0.0%	0.0%	0.5%	5.3%
양강도	빈도(명)	0	2	2	0	0	4	
	전체(%)	0.0%	1.1%	1.1%	0.0%	0.0%	2.1%	
전체	빈도(명)	26	102	29	31	2	190	
	전체(%)	13.7%	53.7%	15.3%	16.3%	1.1%	100.0%	

I
II
III
IV
V
VI

강원도가 현재 규율문란 행위가 체제에 주는 부담을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출신보다 약간 낮은 것은 군사분계선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해서 그것을 검증해 보았다.

표Ⅳ-12 규율문란과 식량사정의 영향에 대한 부대주둔지(북중국경·군사분계선)별 인식

		매우 나쁜 영향	조금씩 해침	관계 없음	지속시 나쁜 영향	크지 않거나 아예없음	전체	
주둔지	북중국경	빈도(명)	4	3	1	0	1	9
		전체(%)	2.0%	1.5%	0.5%	0.0%	0.5%	4.5%
	군사분계선	빈도(명)	11	32	10	7	0	60
		전체(%)	5.5%	16.0%	5.0%	3.5%	0.0%	30.0%
	기타	빈도(명)	13	70	22	25	1	131
		전체(%)	6.5%	35.0%	11.0%	12.5%	0.5%	65.5%
전체		빈도(명)	28	105	33	32	2	200
		전체(%)	14.0%	52.5%	16.5%	16.0%	1.0%	100.0%

위의 <표 V-12>에서 보듯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 9명 가운데 7명이 규율문란 행위가 체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거나 조금씩 해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의 경우 전체 60명 가운데 그 점을 43명이 인정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이 같은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131명 가운데 83명으로서 63.4%인 것을 감안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VI. 결론



북한은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에서 주민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부가 동요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했더라면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따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체제를 지탱해 줄 기반이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조직인 군대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의도하는 바대로 군이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는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전위부대’로서 사상적 무장이 투철해야 하고 규율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소식을 전하는 각종 보도는 북한군의 규율문란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본 연구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다.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간행되어 군 내부에 배포된 『학습제강』이나 『선동자료』 등 여러 비밀자료를 검토해 볼 때, 모범을 창조하고 모든 사회집단에게 따라 배우라고 권장되는 군대에서 선군정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일도 군대에서 제일 걱정스런 문제가 군사규율이 문란한 것이라고 심각히 지적한 바 있다.¹⁶³

기강 해이 현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절대적인 존재인 김정일의 지시를 태만히 한다는 『학습제강』의 내용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탈

¹⁶³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의 기본사상에 대한 해설,” p. 13.

I
II
III
IV
V
VI

북군인 200명의 대답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군 장병들의 충성심은 아직 강한 편이다.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강 해이 유형 가운데 김정일이 자주 질타하고 있는 것은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다. 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난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가용자원이 별로 없는 실정에서 부대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마저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자유용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은 5점 척도로 3.30이다. 3.30이란 ‘보통’보다 약간 많다는 의미이다. 주둔지별로는 평양시와 황해남도 주둔부대에서 부대 내 비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 3.30보다 약간 높게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 3.50,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4.11로 나타났다. 수치가 높을수록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이 많다는 뜻이다.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은 후진국가의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기강 해이 현상도 발견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민피해이다. 즉, 군대에게 항일유격대식 내핍생활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군의 대민사업이 늘어나면서 군이 대민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주민의 양곡이나 가축, 여러 자재나 도구들을 훔치는 일을 자행하여 주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민피해의 정도는 5점 척도로 3.28이다. 군수물자의 착복 및 유용과 비슷한 수치이다. ‘보통’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군 관련 정보 가운데에는 북한군의 대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데 이 수치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

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주둔지별로는 평균 3.28에 비해 압록강변 주둔 부대가 가장 높은 4.67이다. 압록강변 주둔부대가 대민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기 여러 변수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이라는 항목과 대민피해 항목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결국 변수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군수물자를 착복하고 이용하는 부대가 외부적으로는 민가를 약탈하거나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군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비행과 범죄행위의 많은 원인이 음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인지 군 내부 문건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의 하나가 부대 내 음주행위이다. 음주는 사병 뿐 아니라 장교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고 선군정치로 인해 군대와 사회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더욱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 음주가 행해지는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매주 행해지거나 한 달에 2~3회 꼴로 행해져 비교적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에 이르고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산출하면 3.16이다. 3.16은 ‘보통’에 가깝다는 뜻인데, 필자가 직접 면접한 11명의 탈북군인 대부분이 음주 행위의 만연을 인정했음에 비추어 설문조사 결과 수치는 다소 의외이다. 평균이 3.16인 것에 비해 두만강변 주둔부대의 경우 4.00으로 가장 높다.

『학습제강』 등 북한군 내부 문건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가 구타 등 가혹행위의 근절이다. 가혹행위로 인해 장교와 병사 간, 그리고 병사 상호 간 관계에서 증오가 쌓인다면 군의 단합과 조직력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매우 많다”거나 “많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구타행위의 만연을 인정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35.0%이고 “적

I
II
III
IV
V
VI

은 편”이거나 “거의 없다”고 부정한 비율이 43.5%로서 부정한 쪽이 더 많다. 이를 5점 척도로 설정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2.80인데 이는 “적은 편”이 2, ‘보통’을 3으로 설정했을 때 적은 편에서 보통에 가깝게 이동한 수치이다. 즉, 구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수준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한편, 탈영사고도 많은데 10년이라는 장기복무에 따른 염증과 부대 내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5점 척도값은 2.73이다. 3이 ‘보통’이므로 북한군에서 탈영이 많다고 보도되나 탈북군인들은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탈영의 경우는 북중 국경지역보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으로, 군사분계선 일대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나눌 경우, 압록강변과 두만강변 주둔부대에서는 탈영이 비슷하게 발생하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보다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식량사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가 북중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탈영 사고는 더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면서 탈영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탈영은 식량부족과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습제강』 등에서는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로 나온 5점 척도 평균값은 2.17이다. 2.17은 적은 편이라는 뜻이다. 계급별로나 병과별, 주둔지별로 응답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계급별로는 병사 출신이 기밀누설이 많다고 대

답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군 내부에 서구풍조와 남한문화가 얼마나 유입되어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TV, DVD 재생기 등의 보급으로 외부문화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군인 200명 가운데 부대 내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들어와 있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19.5%였고 “거의 없었다”고 유입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31.0%이다. 응답을 5점 척도로 나타내면 평균값이 2.31이다. 북한 사회에는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북한군 내부에는 아직 “적은 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좀 더 상세히 보면, 상대적으로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3.89이고, 반면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의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2.28이다.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위치상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지역을 압록강변과 두만강변으로, 군사분계선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만강변 주둔부대보다는 압록강변 주둔부대에, 군사분계선 동부전선보다는 서부전선 주둔부대에 서구풍조나 남한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있다. 부대 내 여러 일탈현상에 관한 앞의 다른 항목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가 다른 지역 주둔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일탈현상이 적었으나 서구풍조나 남한문화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많아 특기할 만하다.

북한군의 기강 해이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지만, 그 밑바탕

I
II
III
IV
V
VI

에는 만성적인 식량난이 자리하고 있다. 식량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영향을 미치고 군수물자의 유용과 착복, 대민피해, 탈영, 기밀누설 등과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복무한 부대에서 식량이 “매우 부족했다”거나 “조금 부족했다”고 대답함으로써 식량의 부족을 인정한 비율은 57.0%이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예상보다 많은 30.0%이다. 응답의 5점 척도값은 3.53이다. “보통이었다”에서 “조금 부족했다”로 반 정도 이동한 수치이다. 북한군 내의 식량사정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시(2.50), 황해남도(3.05), 함경남도(3.00) 주둔부대의 식량사정이 비교적 낮고, 평안북도(4.13)와 강원도(4.13)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내 식량사정이 어렵다. 북중 국경지역이나 군사분계선 일대 주둔부대 모두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나, 군사분계선 일대보다는 북중 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이 더 좋지 않다.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식량사정(5.00)이 두만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4.00)의 사정보다 열악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서부전선 주둔부대(3.40)의 사정이 동부전선 주둔부대(4.26)보다 낮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규율문란 행위들과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군인 200명의 대답으로 대신하면,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약간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 문란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병사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1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1.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최수영.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나. 논문

김진만. “북한군의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12.

이교덕. “북한군의 군사규율 문란 실태 분석.” 『정책연구』, 통권 145호 (2005년 여름), pp. 303~343.

이상진. “남북 군사력 우열에 대한 군간부들의 인식 평가.” 『조사연구』, 7권 1호(2006.3), pp. 29~53.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집 제1호 (2004), pp. 109~135.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다. 기타

- 『데일리NK』, 2005.3.1.
『데일리NK』, 2011.4.25.
『북한인민해방전선』, 2011.5.20.
『세계일보』, 2011.7.18.
『연합뉴스』, 1999.7.29.
『연합뉴스』, 2010.2.8.
『열린북한방송』, 2011.2.9.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자유북한방송』, 2008.12.12.
『자유북한방송』, 2010.1.8.
『자유북한방송』, 2010.6.18.
『자유북한방송』, 2010.8.24.
『자유북한방송』, 2011.1.17.
『자유북한방송』, 2011.1.21
『자유북한방송』, 2011.1.24.
『자유북한방송』, 2011.2.8.
『자유북한방송』, 2011.2.14.
『자유북한방송』, 2011.2.25.
『자유북한방송』, 2011.3.8.
『조선일보』, 2011.7.5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Urban, Mark. *War in Afghanistan*. London: Macmillan Press. 1988.

나. 논문

Jowitt, Ken. "Soviet Neotraditionalism: The Political Corruption of a Leninist Regime." *Soviet Studies*. Vol. 35, No. 3, July 1983.

Mulvenon, James. "Dream of Red Mansions: Cause and Consequence of Chinese Military Corruption." *The IRIS Discussion Papers on Institution and Development*. Paper No. 0206, February 2004.

Vallance, Brenda J. "Corruption and reform in the Soviet Military,"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7, No. 4, December 1994.

3. 북한문헌

가. 단행본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나. 『학습제강』 및 『선동자료』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원민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
『선동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9.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2003년 6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현시기 인민군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론지도안)』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1』.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에 대한 학습제강(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막을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대에 주신 말씀의 중요내용에 대한 학습제강,” 『학습제강』.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의 기본사상에 대한 해설,”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빛내이는데서 지휘성원들이 앞장설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12.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

- 을 드릴데 대하여,”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 “군사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6)』.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농작물을 침해하고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자” 『해설담화자료(요강)』.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높은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심리전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 『학습제강(당원 및 근로자)』.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 “류언비에어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자,” 『선동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8.11.
-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구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5.
-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 “모든 일군들이 정치성을 높일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2)』.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 “사관들이 군무생활의 모든 면에서 병사들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될데 대하여(사관),”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5』.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서로 믿고 사랑하며 이끌어 주는 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02.
-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자,” 『해설담화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우리 3세, 4세 군인들을 변질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실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7.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 “인민들을 친부모,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목숨바쳐 지킬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 “인민들을 친부모형제처럼 사랑하며 존경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5』.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일군들속에서 슬픔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군관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일군들속에서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나가자,” 『군관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8.
-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군관강연자료(요강)』.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11.
- “전군에 고상하고 문명한 레의도덕기풍을 세우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4』.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93(2004)년 2월 24일 조선인민군 제131군부대지휘부와 직속공병중대, 땅크종합훈련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비밀을 더욱 엄격히 지키자,”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5.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투쟁관점을 철저히 세우자,”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3.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편지를 통하여 군사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자,” 『선동자료』. 제16호.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8.

“피복, 화식기재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주인답게 애호관리할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혁명이 간고할수록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 1999.

“혁명적 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세워 군사규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3』.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다. 기타

『군인생활』, 2009년 제3호.

『로동신문』, 1997.2.16.

- 『로동신문』, 1997.10.10.
『로동신문』, 1999.1.1.
『로동신문』, 1999.6.16.
『로동신문』, 2000.10.10.
『로동신문』, 2004.6.3.
『로동신문』, 2010.1.9.
『로동신문』, 2011.1.1.
『로동신문』, 2011.4.9.
『로동신문』, 2011.4.25.
『로동신문』, 2011.7.5.
『로동신문』, 2011.8.25.
『조선중앙방송』, 2011.2.15.
『조선중앙통신』, 2011.4.24.
『청년전위』, 2001.6.29.

부록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적 규율이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영향으로 ‘선군정치’라는 구호 아래 북한 체제 유지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인민군 내부에서도 북무규율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선군정치’와 북한 정권의 장래도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 조사는 <북한 인민군 북무규율 확립실태>라는 연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집계되어 사용되며 응답내용이 개별적으로 알려지거나 응답자의 신원이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자 인적사항〉

○탈북년월:

○재북시 거주지와 출신지(고향):

예) 청진시(거주지), 혜산시(고향)

○학력:

○복무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복무부대(주둔지역):

예) 0군단, 0사단, 0연대, 0대대(강원도 00군)

○군종:

예) 육군

○병과:

예) 포병

○제대시 계급 및 직책:

예) 상급병사(계급), 위생병(직책)

○성별:

* 여성일 경우만 기재

1. 복무한 부대 내 하급장교와 병사가 김정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성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대체로 높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낮다 5) 매우 낮다

2. 복무부대 내에서 군수물자를 착복하고 유용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았다 2) 대체로 많았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적었다 5) 거의 없었다

3. 복무한 부대에서 민가를 약탈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등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1) 매우 많았다 2) 대체로 많았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적었다 5) 거의 없었다

4. 복무한 부대 내 음주행위(술풍)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거의 매주 있는 편으로 매우 많았다
 2) 한 달에 2~3회로 많은 편이었다
 3) 한 달에 1회로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없다
 4) 1년중 가끔 있는 편으로 대체로 적었다
 5) 거의 없었다

5. 복무한 부대 내에 서구풍조나 문물(황색바람, 남한의 각종 녹화영상물을 보거나 상품을 쓰는 행위, 자본주의에 물젖은 행위 등)이 들어와 있는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1) 매우 심했다 2) 어느 정도 있었다 3)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4) 적은 편이었다 5) 거의 없었다

5-1. 위의 문항에서 1) 또는 2)로 대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서구풍
조나 문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군관에게만 2) 군관과 병사들 모두에게 3) 병사들에게만

6. 부대기밀이 누설되는 일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했다 2) 어느 정도 있었다 3)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4) 적은 편이었다 5) 거의 없었다

7. 부대 내 식량사정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매우 부족했다 2) 조금 부족했다 3) 보통이었다
4) 부족하지 않은 편이었다 5)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7-1. 위의 문항에서 1) 또는 2)로 대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식
량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대개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 1) 1995년 이전 2) 1995~1998년 3) 1999~2002년
4) 2003~2006년 5) 2007년 이후

8. 고참과 신참 병사 간 관계는 어느 정도 었습니까?

- 1) 매우 좋았다 2) 좋은 편이었다 3) 보통이었다
4) 좋지 않은 편이었다 5) 매우 좋지 않았다

9. 부대 내 구타행위는 어느 정도 었습니까?

- 1) 매우 많았다 2) 많은 편이었다 3) 보통이었다
4) 적은 편이었다 5) 거의 없었다

9-1. 구타행위가 병사들의 상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군대에서는 으레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
- 2) 구타 당하는 병사들의 불만이 커서 상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0. 복무한 부대에서 탈영이 있었습니까?

- 1) 매우 많았다 2) 많은 편이었다 3) 보통이었다
- 4) 적은 편이었다 5) 거의 없었다

11. 요즘 군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인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한 편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 2) 다소 있는 편으로 과거에 비해 약간 증가한 편이다
- 3) 보통으로서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 4) 없는 편으로 소문이 과장되었다
- 5) 거의 없기 때문에 소문이 거짓이다

12. 북한군이 한국군의 사상무장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2) 월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3) 비슷할 것이다 4) 열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5) 매우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13. 북한 당국은 경제적 궁핍이 미제와 남한 탓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이판사판 전쟁이 나서 결판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개개 군인들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원한다 2) 원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 4) 원하지 않는 편이다 5) 거의 원하지 않는다

14. 북한의 개개 군인들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 1)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 2)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3)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4) 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5) 반드시 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15.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규율문란 행위들과 식량사정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도 문란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병사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대사기, 사상무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 2)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약간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
- 3) 규율문란 행위들이 가끔 있고 병사들의 불만도 있지만 그것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사상교양 강화로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 4) 규율문란 행위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일부 있고 그것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사기, 사상무장이 지금으로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 5) 규율문란 행위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남한에서 떠도는 소문만큼 크지 않거나 아예 없다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중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임, 이규창

KINU 정책연구시리즈**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비매품**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11-02

www.kinu.or.kr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 정규섭 · 이기동